

November 2013

Monthly

Gardenin

가든인 11월호

SALE COUPON

온라인코드

테르메덴 50% 할인권



Garden
item

정원의 구성요소
퇴비상자



Practical
gardening

청소년 농부의
고구마 수확



Veranda item

다육식물
색을 입다

Monthly Gardening

- ✓ 실내외 월동 대비
- ✓ 추식구근 심기
- ✓ 가을 포기나누기
- ✓ 光에 따른 식물 재배치



772288-171000
ISSN 2288-1719

10,000원

CHECK LIST

김장배추 수확 & 저장법
배추 묶기, 얼기 전 수확, 고무통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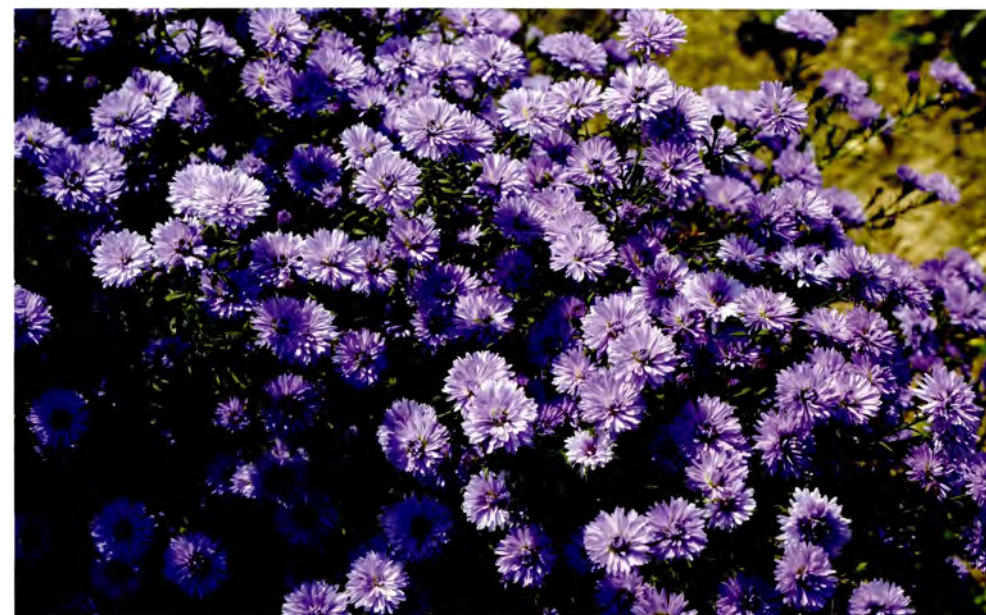


가을에 피어나는 그리움 아스타

아스타속에는 매우 많은 식물들이 있다. 그중 가을에 으뜸인 식물이 바로 아스타 노비(*Aster novi-belgii*)종이다. 아스타 노비는 원래 절화용으로 인기를 끌던 종인데 꽃이 늦게까지 피고 색이 고와, 최고 가든 식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꽃이다. 가을이라는 꽃이 없는 시기에 꽃을 피운다는 것만도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꽃이 주는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는 이 계절을 대표할 만한 꽃종의 꽃이라 치켜세울 만하다. 가을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연 미인 같다. 가을에 보기 드문 보라와 하양의 색의 향연 또한 눈이 부시다. 천상의 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엔 역시 아스타 노비종이 으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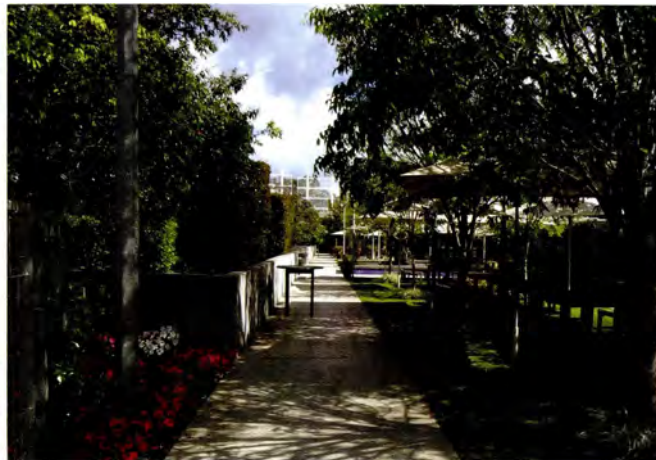
BOOK COVER STORY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2013 우리꽃 '제7회 지식 나눔 축제' 개최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14:00~17:00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참가비 : 무료 / 예약제 운영(참가 문의)
TEL : 031)634-7990, 634-0326~8
FAX : 031)634-7991



November

2013

Outdoor Garden

3. 커버스토리
6. 이달의 야생화
화려함보다는 느낌이 있는 꽃
8.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가을 정원이 가르쳐주는 느낌의 미학!
10.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서두른 월동준비, 오히려 독이 된다
14. 손관화 교수의 가든 디자인
정원에는 퇴비상자가 필요하다
18. 개를 키우는 가드너를 위한 조언
정원을 망가뜨리는 주변 '예외건'들 이야기

Veranda Garden

20. 케럼의 이달의 베란다 관리
베란다 방향에 따라 가드닝 계획도 달라진다
22. 류제의 이달의 꽃
그리스 신화 속 요정 꽃 '네리네'
24. 봄의 향연을 준비한다
화분에 추식구근 심기
27. 다육이 색을 입다
신인장연구소 다육식물 6개종 연색 성공
28. 옛! 너도 다육식물이었니?
살아있는 돌멩이 리폼스

Kitchen garden

32. 정성훈 지도관의 텃밭 채소 관리
김장채소 수확 & 저장법
36.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가을 수확
40. 초보 화단에서 의리를 지켜준 고마운 고추
고추나무 사랑길렀네
42. 안완식 박사의 토종이야기
이름에 숨겨진 토종팥의 비밀

Special theme 'WINTER'

46. 월동에 대처하는 초보 가드너의 자세
추위에 약한 정원 식물의 겨울나기
48. 가을 겨울의 정원수 관리
적기관리가 중요 '때를 놓치면 망친다'
52. 추위야 물러가라
화초들의 겨울 보금자리 온실
56. 외면 받는 겨울 새집
봄 번식기에는 날아든다

Gardening Tour

60. 가든플래너 호주 연수기 I
남반구의 재발견, 미지의 토착식물 블루오션 느낌 "퍽퍽!"
64. 가든플래너 호주 연수기 II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 Eden Gardens
68. 황환주 교수의 세계 식물원
정통과 서구문화의 접목 도쿄진다이식물공원
72. 윤평섭 교수의 컨테이너가든
친환경적 色 形態의 조화가 중요하다
76. 이명호 교감의 산에서 만난 꽃 이야기
신이 내린 가장 향기로운 우리꽃 구절초
78. 역새 vs 갈대의 진검승부
가을 최고 미인을 가린다
82. 시즌 제안, 가을에 떠나는 산행
산행을 재밌게 해주는 TIP

Gardening Story & DI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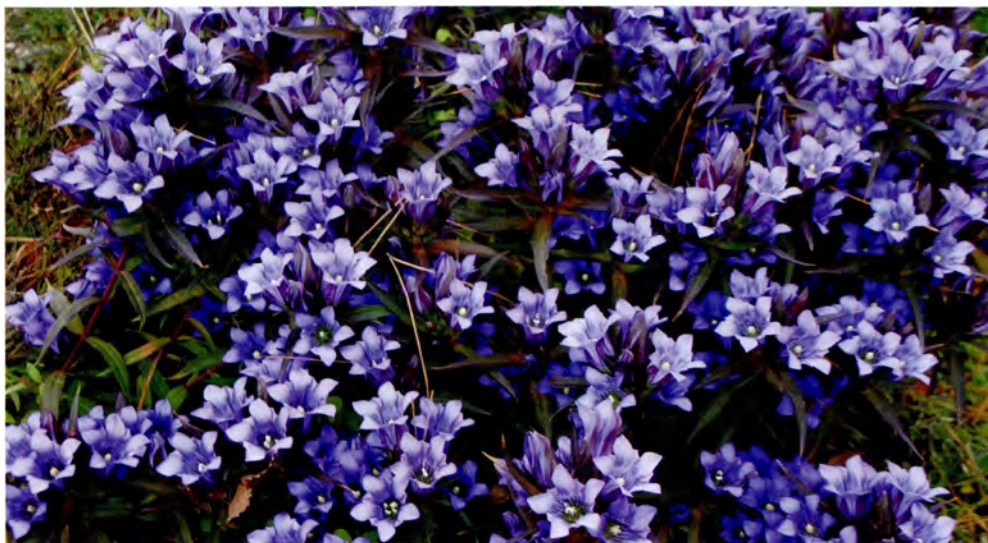
84.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조형물과 어울린 수정 정원
88. 안녕? 성수동!
동네꽃축제에 반한
90. 나만의 허브 에센스 만들기
피부가 봄을 만나다
94. 우정아 가든디자이너의 생활 속 정원
소어물통을 활용한 테이블 북가든

Gardening Information

96. 차병진 교수의 식물의 병해충
식물의 과습, 건조보다 안 좋다
98. 종족 보존을 위한 씨앗들의 노력
종자, 여행을 떠나다
100. 세계적 트렌드 오가닉 가드닝
후를길처럼 들어보셨나요
102. 윤자영 요리연구가의 가드닝 푸드
치중해풍으로 즐기는 색다른 아귀찜
104. Ask your experts Q & A
상추밭 지렁이를 어떻게 할까요 외
107. Garden in News
국립수목원 생활정원전시회 개최 외

이달의 야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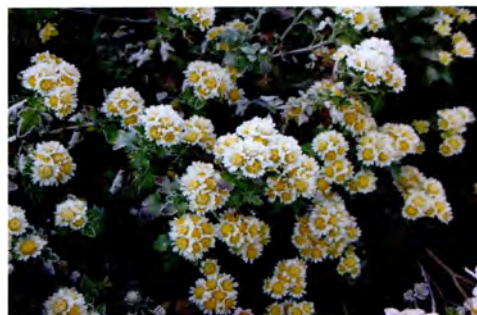
11월은 꽃을 보는 계절이 아니라 분위기를 느끼는 계절이다. 때문에 화려한 꽃을 감상하기 보다는 일년을 마무리하는 식물의 모습과 하늘 그리고 바람과 단풍을 보고 느끼는 달이기도 하다. 이 달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굳이 보자면 연중 개화하는 가우라 코레우리, 상록잔디패랭이와 일년초로 여겨지는 품종들이 있다.



▲ 하늘용담: 서리가 내릴 때까지 개화하고 얼음이 어는 12월까지도 개화한다. 밤이 되면 꽃잎을 모아 서리 해를 피한다.



▲ 갈사초: 갈사초는 여름에도 갈색의 잎으로 매력을 발산하지만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의 정원에서 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포인트 식물이다.



▲ 해변국화: 해변국화는 비닷가와 암석지에 자생하는 것으로 꽃잎이 거의 없지만 무수한 꽃으로 인해 더욱 화려하게 보이고 12월까지도 꽃을 피운다.



▲ 동근임평의비름: 잎이 예쁜 동근임평의비름은 꽃보다 잎에서 귀품이 돋보인다. 물론 가을에는 꽃도 붉은색으로 재단장해 제 면모를 과시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특히 분경용 식물로 인기가 높다.

“

11월은 꽃을 보는
계절이 아니라 분위기를
느끼는 계절이다.

”



▲ 흡수크령: 수크령의 왜성종으로 잎이 갈하고 이삭이 아름다워 앞으로 기대되는 식물이다.



▲ 단풍이 아름다운 상록조팝: 상록조팝은 봄에 잎이 나올 때는 노랑에 가까운 색으로 자란다. 여름에는 연록색이나 가을이 되면 타는 듯한 붉은 단풍을 자랑한다.



▲ 상록잔디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는 우리꽃이 7월, 네덜란드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개화하는 신품종이다.



▲ 사루비아: 최근에 다양한 일년생 식물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들을 적절하게 섞어 쉽게 되면 훌륭한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 산부추: 산부추는 우리나라의 가을에 가장 좋은 토종 중 하나이다. 물론 식용도 가능하다.

가을 정원이 가르쳐주는 느낌의 미학!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일 년 동안 쉼 없는 발아, 발생에서 성장과 성숙을 거치며 이제 휴면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른 봄 작은 새싹에 감동받고 화려한 꽃잔디와 튼튼의 아름다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안겨줬다. 우리꽃 정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달부터는 내년을 위한 월동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꽃들의 생명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아도 되는 시기다. 가장 느리게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정원, 화려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원은 미니 골프장을 모티브로 조성해 동선이 매우 길다. 가을의 꽃과 단풍, 그리고 말라가는 줄기가 아름다운 선이 되고 파란 하늘까지도 정원의 요소가 되어 가을 사색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을이 되면 식물들이 뿌리나 명속줄기로 영양분을 차곡차곡 옮겨 가는 시기이다. 잠시 활동을 멈추고 지켜 봐주는 것 만으로도 정원의 생명체들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가을을, 그리고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연못의 물이 연중 가장 깨끗한 시기도 도래했다. 우리꽃 연못은 시멘트를 이용하거나 진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수를 위한 라이너와 바위 그리고 자갈과 몇몇의 수변 식물과 봉어, 비단 잉어 몇 마리로 구성 요소를 채웠다. 시멘트나 물속에 진흙을 넣어야만 식물이 자란다는 일반적인 연못조성 공사방법을 과감히 탈피해 보다 안정적인 수생동식물의 보고를 완성했다. 수심은 깊어졌고, 청소가 간편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했다. 자갈 사이에 고정된 수변식물들은 하얀 실뿔리로 자신들만의 터를 만들었고, 길고 튼튼하게 자랐다. 더 불어 충분한 산소와 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물고기들을 위한 은신처와 놀이터까지 제공했다. 때문에 우리의 생태 연못에서 수생동식물들이 봄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길러내고 그들이 해를 넘겨 가면서 성장 발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아리가든은 가을과 겨울에도 운치 있는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그라스의 선, 그리고 관목과 야생화들이 단풍의 향연을 펼친다. 만약 아리가든의 억새와 많은 야생화들의 포기가 너무 많이 성장하여 서로 부대끼면 종류나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예를 들면 억새는 포기가 크면 안쪽에서부터 죽는 특징이 있으니 몸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났다면 그 세력을 비워내거나 줄이는 것이 더욱 아리가든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 이른 봄에 피는 종들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선보이는 신품종 등을 도입하는 기회로 이용되도록 한다.



가을이 되면 많은 꽃들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꽃이 피는 종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원이 항상 중 다양성에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산부추의 적용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 산부추는 일반적으로 정원에 많이 이용되지 않는 식물이다. 그러나 우리 야생화 중 매우 값지고 경쟁력 있는 정원 식물로 유리한 것이 산부추이다. 잎과 줄기의 기품은 물론이요, 꽃대 또한 명품이나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늦가을용 알리움(부추와 사촌들)속 식물일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알리움속 식물들은 봄 개화형이 많고 늦어도 초여름까지 모두 피고 만다. 우리의 정원에 심겨진 산부추는 키가 거의 1m까지 자라고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볼 형의 꽃차례 크기는 거의 5cm에 이른다. 지역적인 여러 가지 품종들을 수집 선택을 통한 육종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혼합식재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꽃을 시기에 따라 함께할 수 있다는 것과 관리자의 취향에 따른 배치가 좀더 다양하고 자유롭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구역의 식물을 교체하기도 쉽고 약간의 디자인만 바꾸어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11월이 되면 모든 식물이 사라지는 때이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국화와 식물들이 여전히 색을 만들어 내고 벌을 불러 모은다. 해변국화와 아스타의 혼합은 단순함을 탈피할 수 있고 개화기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의 정원에 이용된 조팝류는 모두 6가지이다. 모두들 특징이 다른데 올 한 해 동안 가든인을 통해서 다양한 조팝의 아름다움과 이용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조팝류는

대체로 단풍이 아름답다. 일반적으로 노랑과 붉은 단풍으로 변하는데 상색조팝과 황금조팝, 그리고 우리 토종의 조팝나무를 개량한 '골든바'는 계절에 따른 변화 중 꽃과 더불어 단풍도 일품인 품종들이다. 우리의 사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품종들이라 하겠다. 급계 물든 조팝의 단풍이 아니라면 좀 더 빨리 우리 정원에는 겨울이 느껴질 것이다. 단풍은 빨리 들지만 11월 말까지도 그 아름다운 색을 간직한다.



본격적인 가을이 오면 정원의 주인은 그라스가 차지한다. 가늘게 세운 포물선의 잎과 힘 있는 꽃대와 조각처럼 부서지는 햇빛을 갈라내는 그 이삭은 화려함을 넘어 고급스럽다. 단연 으뜸인 억새종류들은 서로의 기품이 다르고 단풍의 색깔도 달라 세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라스에 있어 품종 간의 차이는 있다 해도 8월 이전에 1~2회를 잘라 꽃을 피우면 스스로의 무게를 못 견뎌 쓰러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올 한해 가든인을 통해 소개된 우리꽃의 작은 정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매우 행복했고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작은 정원의 4계절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 된다. 3월 창간 예비호를 비롯하여 5월 창간호부터 11월호를 펼쳐 보면 정원의 다양한 변화를 떠올릴 수 있고 내년의 정원 설계에 함께 있어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가든인 독자들의 행복한 정원 문화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서두른 월동준비는 오히려 독

글·사진 박공영(우리포 대표, 이화박사, 펍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 가을 정원의 달콤한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수채화 혹은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1월의 정원은 오히려 한가하다. 물론 많은 분들은 겨울 월동준비로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월동준비는 우리 가든에서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다. 너무 빨리하면 아직 낮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에는 고온이 되어 부패하거나 고온 장해를 입을 수 있다. 식물을 빨리 자르는 것 역시 겨울 동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식물들 스스로 여름과 가을에 생성시킨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로 이동시키는 계절이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식물들이 겨울 채비를 마칠 때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가 돕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식물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유리하다.

본격적으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12월 초에 월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가을은 말이 살피고 사람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인 만큼 정원에서 수채화를 그리거나 아름다운 시 한수를 읊조리며 계절을 만끽할 때이다.

늦발 작물의 수확기, 모조리 따서 보관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미리 해두어야 한다.

우선 김장 무, 배추 수확이 준손잡이 기다려진다. 특히 무는 기온에 따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너무 추위에 노출되면 무의 저장성과 맛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기를 잘 살펴서 미리 미리 수확을 하여 좋은 품질의 무를 수확해야 한다. 배추는 추위에 강하고 결실을 싸고 있어 보통 김장 2~3일전 수확하게 된다.

고추는 이제 미련을 두지 말고 작은 풋고추까지 모두 따내야 한다. 장아찌나 삼삼하게 염장을 하거나 부각을 만들어 겨울을 대비한다. 고구마도 너무 늦지 않게 바로 수확을 하여야 한다.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이므로 따뜻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 잘 썩을 수 있어 상처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확해야 한다. 고구마는 수확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약 일주일 정도 말려서 보관해야 한다. 상처부위를 아물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관 전 상처가 난 것들은 구분해서 먼저 식용하는 것이 좋다.

호박도 지체 없이 따서 보관해야 한다. 얼게 되면 쉽게 물러진다. 다시 말하면 일년초인 채소의 수확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과일 등도 이제 모두 적기를 넘겼으니 바로 수확하도록 한다.

월동준비의 시작은 물관리부터, 꼼꼼히 체크해 동파 예방

정원에서는 구근을 심고 양귀비 등 봄에 피는 식물들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연못은 되도록 청소가 중요하다. 여름에 자란 이끼의 잔여물과 낙엽 등을 모두 긁어내고 많이 자라고 늘어난 물고기 개체수를 조정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겨울을 대비하여 최소 물높이를 30cm 이상 되게 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 만약 물의 수심이 낮다면 물고기는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펌프 혹은 장치들이 얼어 터질 수 있는 것은 물을 빼고 보관해야 한다.

겨울 월동준비의 기준은 물 관리이다. 물은 얼음이 얼게 되면 그 부피가 팽창되어 쇠를 터지게 하고 바위도 갈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이라고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야외의 수직정원 장치는 이 시기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퇴수 밸브는 잘 작동하는지 혹시 관 내부에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 식물의 적응은 일정기간 휴면에 들 수 있는 힘이다. 종자는 식물이 휴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중의 종자만 있다면 말이다.



▲ 이제 동원의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해 실험하고 실패한 최고의 성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김장맛은 배추와 소금 그리고 물맛이라고 했다. 그중 으뜸이 배추맛이다. 배추는 사람으로 지라는 식물이다. 이제 조금만 더 사랑을 전해보자.



▲ 수직정원의 겨울나기는 험난하다. 그러나 관수관리만 잘 된다면 아주 간단하다. 관수는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요한 품종 증식법 에키네시아 가을 서리 내리기 전 지상부 삼목



우리는 많은 식물을 일년생과 다년생으로 구분한다. 주로 일년생은 씨앗을 발아시켜서 육묘하고 꽃을 피워 낸다. 그러나 다년생 초본은 종자에 의한 증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들 대부분은 경쟁력 있는 품종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품종은 씨앗을 맺지 않게 처리하여 육종하는 경우가 많아 종자를 얻을 수 가 없다. 또는 종자는 맺히는데 어미와는 전혀 다른 꽃을 피우거나 균일하지 않아 상품성이 없어진다. 때문에 많은 우수한 품종들은 대부분 포기나누기 혹은 삼목에 의한 방법으로 증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포기나누기는 가을에서 봄에 이루어진다. 주로 휴면기 때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까지 무성하게 자란 잎과 줄기는 겨울이 오면 사라진다.

하지만 좋은 품종을 육성하여 초기에 빠르게 늘리고자 하거나 대량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서리가 내리기 전 생육하고 있는 줄기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하면 한꺼번에 많은 포기를 얻을 수 있어 그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포기는 물론 민들레와 같이 줄기를 땅에 붙이고 있는 종류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 여러 가지 품종들을 교배 하여 얻어진 에키네시아 꽃이 만발하였다. 화색이 다양하고 모양과 키도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제각각이다. 이때 육성자의 의도에 따라 선정된 포기를 팻말을 붙여서 예비 품종으로 하고 일차로 가장 시급한 일이 그 개체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품종을 선발하는 과정 중 2~3년간 그 품종의 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체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작물을 그대로 두어 월동하게 한다. 이른 봄 땅이 녹으면 굴취 하여 포기나누기를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많은 포기를 얻을 수 없다. 고작 2~4포기 정도로 한정 될 수 있다.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

전에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20본 이상을 확보해야 그 균일성과 특성파악에 유리하다.

그러면 예비 품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2~3년은 증식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리 내리기 직전의 가을 포기 나누기를 실시할 수 있다.

에키네시아는 잘려진 뿌리에서 다시 새싹을 틔우게 되므로 반드시 굵은

뿌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일주일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영하로 떨어지기 직전 짚 등을 덮어 보온을 해 주면 이른 봄 약 30본이상의 새싹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어린 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STEP BY STEP 에키네시아 품종 증식 방법



▲ 선정된 포기의 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키네시아는 로제트형의 민들레와 같이 땅 표면에서 많은 잎을 내는 특성을 가졌다



▲ 뿌리와 잎의 접합부에 삼 혹은 낫을 넣어 잘라낸다. 이때 너무 깊거나 얇게 떼내지 않아야 한다.



▲ 에키네시아는 반드시 굵은 뿌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를 볼 약 30본이상의 새싹이 발생하게 되어 더 많은 어린 묘를 얻을 수 있다.



▲ 봄에 트튼하고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짧게 떼내야 한다.



▲ 민들레와 같이 뿌리에 여러 줄기가 한꺼번에 붙어 있다. 하나씩 떼어 내 분리한다.



▲ 각각의 두 가지 예비품종이 준비된 상태. 이때 긴 줄기와 잎은 약 5cm를 남기고 자른다.



▲ 포트에 흙을 담고 하나씩 꽂아서 심는다.



▲ 반드시 품종 간 다른 포트를 이용 식재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한다.



▲ 각 예비품종의 팻말에 품종 예비명과 날짜를 기록, 온실 등에 두고 관리한다. 약 10일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포기가 된다.

정원에는 퇴비상자(Compost bin)가 필요하다

정원을 조성해 봄부터 가을까지 직접 가꾸거나 전문 가드너를 불러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산물들이 생긴다. 잡초를 뽑고 잔디를 깎고, 초화류를 자르거나 숙아내고, 나뭇가지도 전정한다. 키친가든이나 텃밭에 겨울이 오면서 낙엽도 수북이 쌓인다.

이러한 정원 활동으로 생긴 부산물들을 정원 한쪽에 모아두었다 썩혀 퇴비로 사용하지만 정원에 쌓여 있는 퇴비는 아름다운 정원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글·사진 손관화교수
http://sohn.yonam.ac.kr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런던의 첼시 지역에 역사가 오래된 첼시약용정원(Chelsea physic garden, <http://chelseaphysicgarden.co.uk>)이 있다.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외국의 유명 가든이나 플라워쇼에서는 퇴비상자나 퇴비망을 정원의 중심으로 옮겨 정원디자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한다”

방문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은 희귀한 약용식물들이 많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퇴비 클리닉(Compost clinic)’이 눈에 띈다.

퇴비 클리닉은 가드닝을 하는 사람들이 정원의 부산물로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는데, 최근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퇴비 클리닉’ 신청 접수가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었다. 예전에 강의했던 그 강사의 사진도 눈에 띄어 감회가 새로웠다.

가드닝이 국민 스포츠인 영국은 정원마다 다양한 퇴비상자를 가지고 있다. 가든센터에는 퇴비상자를 매장에 진열해 놓고 있고, 플라워쇼에서는 새로운 퇴비상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퇴비상자나 퇴비망은 여전히 정원의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유명 가든이나 플라워쇼에서는 퇴비상자나 퇴비망을 정원의 중심으로 옮겨 정원디자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게 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에서 이용하는 퇴비상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호기성 세균을 이용하는 통기성 퇴비상자

규모가 좀 큰 정원이라면 퇴비상자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배치하면 정원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작업하기도 편리하다. 퇴비 상자는 보통 3개를 세트로 만든다. 첫번째 상자에 정원의 부산물을 넣어 시간이 지나면 썩는데 크기와 부피가 줄어든다. 2개월 정도 지나 옆 상자로 옮기면서 뒤집어 주고, 또 2개월 정도 지나면 옆의 세 번째 상자로 옮긴다. 이렇게 해서 약 6개월이 지나면 굳은 정원의 부산물들은 잘 썩어 짙은 흑갈색의 퇴비로 변하게 된다. 물론 겨울에는 잘 썩지 않는다. 퇴비상자는 호기성세균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통기가 되면서 옆으로 다 새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어주는데 옆 상자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한 면을 뿔 수 있게 만든다. 각각의 상자를 붙여서 배치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3개를 연결해서 만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상자는 크기를 달리 만들어도 되지만 한 번이 120cm의 정육면체 3개가 연결되게 만들면 목재 길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호기성 세균이 잘 활동하면 내부 온도가 50~60℃로 올라가는데 심하면 70℃까지 올라가 잡초씨를 죽일 수 있다. 방부하지 않은 목재로 만들기 때문에 퇴비상자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므로 영구적이지는 않다.





■ 낙엽 전용 퇴비망

낙엽은 큐틴 성분 때문에 호기성인 곰팡이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공기 소통이 매우 잘되는 철망으로 퇴비 용기를 만든다. 낙엽은 썩는데 시간이 걸려 2년 정도 지나 퇴비로 이용한다. 그래서 낙엽 전용 퇴비망을 안 보이는 곳에 숨기기보다는 정원의 청경채로처럼 디자인해 정원의 구성요소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기도 한다.

■ 혐기성 세균을 이용하는 밀폐식 퇴비상자

정원의 부산물이 많지 않다면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 속에 부산물을 넣어 썩힐 수 있다. 외국에는 잘 만들어진 플라스틱 퇴비상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 부산물을 넣은 후 아래 위의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고, ▲위에서 넣은 부산물이 썩으면서 아래로 가라앉아 퇴비가 된 재료들을 아래에서 파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다. ▲썩은 액체를 빼낼 수 있는 물꼭지가 아래에 달려 있고 지렁이를 넣어 썩어 부스러진 재료들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층마다 망이 있는 다층 용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뚜껑을 닫고 밀폐시키므로 호기성세



균보다 혐기성세균을 이용하게 되어 호기성 퇴비상자보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분해 속도는 느리지만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가 작은 정원에서 유용하다.

■ 정원 부산물 수거 방법

영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정원을 가지고 있어 정원을 손질할 때마다 정원 부산물이 나오는데, 정원이 작아 퇴비상자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정원의 부산물을 지정된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두면 쓰레기차처럼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부산물은 공동 퇴비장에서 잘 썩혀 다시 필요한 정원으로 돌아간다. 런던에 있

을 때 앞집에서 정원을 다듬는 가드너들을 보았고 정원의 부산물을 트럭에 싣고 가길래 어디로 가져가냐고 물었더니 공동 퇴비장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우리도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퇴비상자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밀폐식 퇴비상자는
규모가 작은 정원에서도 유용”



개를 키우는 가드너를 위한 조언II

정원을 망가뜨리는 애완견 길들이기

글·사진_ 정승환 기자 / 도음말_ 엘리트애견학교 /
촬영협조_ 김수님 님의 골드리트리버 '행복이'

애완견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이해할까. 개도 인간처럼 슬퍼하고, 좋아하고, 생내는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다. 이런 애완견을 위해 가드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원을 위해서는 애완견과 주인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완견과 정원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정원을 보호하기 앞서 개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정원과 애완견이 함께 조화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정원을 갖고 있는 이씨(52세)는 요즘 걱정이다. 가을꽃과 관엽수로 꾸민 실외 정원에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다. 범인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완견을 무자니 개에게 너무 가족한 것 같고, 풀이 놓자니 정원이 걱정되니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애완견과 주인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정원은 정원식물이 멋대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드너 입장에서 가드닝하기에는 조금 미안함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땅파기 행동...원인을 찾아

개가 땅을 파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개의 이런 행동은 무료함과 외로움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운동이나 놀이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또는 이성의 개를 갈망하는 호르몬 발생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어떤 개들은 몸을 따뜻하고 차갑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단순히 땅을 파는 행동을 막는다면, 보통의 개들은 다른 곳에 또 땅을 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

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개가 울타리 아래로 탈출하려할 때 땅을 파는 개의 습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개들을 주인 없이 실외에 혼자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

개들의 위험한 행동들은 지루함에서 온다.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애완견과 마당 또는 정원을 가릴 때 주인이 개들의 마음을 점유해 서로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개가 사람에게 순종토록 해야 한다. 개가 땅을 파는 습관을 갖기 전에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너(애완견) 만큼 나의 정원도 소중한단다”

정원을 망가뜨리는 개를 몽둥이를 들어 혼내주는 것은 좋을까. 절대 아니올시다. 그럴 경우에는 개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예로 막대기로 땅을 두드린다든지, 개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엘리트 애견학교 류동욱씨는 “개를 혼내줄 때는 혼내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주인이 정원을 좋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완견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개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정원에서 뛰노는 것 이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개가 주인과 놀이를

한다는 오해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일부 땅파는 강아지는 사냥견으로 사육되어져 자손들은 습성이 묻어있다. 특히 테리어 종이나 닥스훈트같은 경우는 정원에 살고 있는 해충과 설치류 등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땅굴을 통로처럼 만든다.

복종 훈련, 자주 할수록 좋다

보통 개가 식물이나 정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는 것을 떼고 이갈이를 시작하는 5개월이 지날 때 쯤이다. 이 사이에 본능적으로 습관을 고치치 않는다면 나중에 고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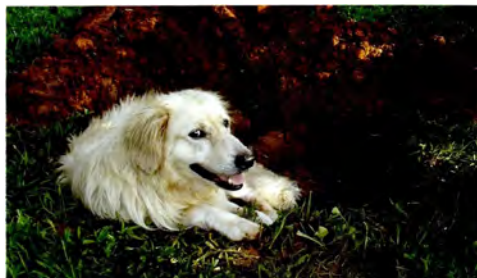
이런 애완견을 위해 운동요법을 추천한다. 류씨는 “사람도 사춘기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 육

체적으로 좋은 것처럼 개도 특별한 운동보다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개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또 개가 땅을 파는 인위적인 공간 즉, 모래박스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정원에 모래 상자에 개 전용 장난감을 제공하면 개가 정원을 망치려는 생각은 자연스레 잊게 된다. 찾아내면 칭찬하고 반복해서 ‘땅을 파’라고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칭찬과 명령을 반복해 명령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즉 개와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행동교정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인 훈련을 위해 매일 2회씩 10~15분 정도로 개에게 명령과 복종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점차 개가 갖고 있는 능력의 범위가 확장하면 칭찬과 간식을 주는 방법을 반복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들은 왜 땅을 팔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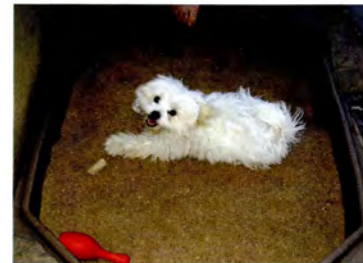
- 흙 냄새를 즐기고, 땅을 만지는 느낌이 좋아 한다.
- 땅을 파는 행동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장난감 등으로 놀 수 없는 개들에게는 최상의 놀이이다.
- 추울 때 바람과 냉기로부터의 피난처가 되고, 더울 때 휴식을 위한 시원한 공간이 된다.
- 울타리 밖 세계는 동경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다 준다.
- 동물적인 본능으로 울타리 밖의 먹이에 대한 냄새에 집착할 때 발생한다
- 보통 수컷보다 암컷이 식물에 관심이 많다.



명령을 이해시키는 애완견 놀이법

협조_ 블로거 고양이세수(blog.naver.com/hicadog)

- 정원의 한 부분을 부드러운 흙과 모래를 섞어 1m×2m×60cm(깊이)로 땅파기 허가 구역을 만든다.
-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보여준다.
- 한 번에 찾아내면 칭찬, 반복해서 ‘땅을 파’라고 말한다. 다시 간식을 찾아내면 간식을 바로 주고, 장난감이나 공을 찾아내면 즉시 ‘페치’ 게임을 하고 다시 장난감을 묻는다.
- 이런 과정을 반복해 ‘땅을 파’하는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 안에 개를 발견했을 때는 우선 박수로 큰 소리를 내어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정원 밖으로 개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휴식과 칭찬을 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그런 행동들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개 전문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벽을 쳐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개가 무서워

할 수도 있다.

개가 주인에게 관심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장난감 등을 통해 놀이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큰 소리로 행동을 억제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절대로 개를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 안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의 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두려움과 외로움, 불안감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외부에 개를 묶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것은 개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공격성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도 개가 정원의 땅을 파는 행동을 한다면 흙속에 콘크리트, 뾰족한 돌이나 소금, 등 동을 묻어둔다. 한번 혼이 나 땅 파기를 그만두면 다른 곳으로 옮겨 묻도록 한다.

털발을 키우는 가드너들에게 작물보호제(농약)는 금기사항이다. 정원과 개를 함께 공존하고 싶다면 유기농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베란다 빛의 양에 따라

가드닝 계획도 달라진다

글·사진 오하나(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쉼네 화단 <http://blog.naver/el512>)

베란다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햇빛의 양

가을이 깊어 가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햇볕. 남향 베란다는 가을부터 햇볕이 더욱 갑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가을 가드닝을 즐길 수 있지만 동남향 베란다인 우리 집은 달랐다. 점점 햇볕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

여름에만 해도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햇볕이 들어왔다면,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오전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약한 시간여백에 빛이 들어오질 않고 있다. 동향에 가까운 햇볕만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고작 1시간 남짓의 햇볕이니 당연히 가을 가드닝에도 차질이 생긴다. 초가을에 열심히 씨앗을 심었으나 작년까지 살던 정남향 창가의 자취방에 비해서 성장이 확연히 더딘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햇볕이 부족하다고 항의라도 하듯, 새싹들이 키만 쑥쑥 자라면서 비실비실 웃자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정남향에 살던 때와는 다르게 가드닝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어느새 정물 속 깊이 모셔두었던 긴 옷들이 거리를 누비는 계절이 도래했다.

겨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11월은 식물도 사람처럼, 화려했던 지난 시즌을 서서히 갈무리 하고, 다가오는 겨울과 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남향, 겨울에도 꽃과 채소 키우는 재미가 솔솔

베란다는 위치가 남향의 경우, 베란다는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온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다.

남향 베란다에서 추천하는 채소와 화초는 추위에 강하고 가을~겨울 즈음에 꽃을 피우는 화초가 적당하다. 루꼴라, 청경채, 래디쉬, 비타민 다채, 치커리 등의 잎채소, 뿌리채소와 화초 중에서는 국화, 시크라멘, 옥살리스(사랑초) 등을 키운다면 가을~겨울 동안 베란다 가드닝의 재미가 더욱 쏠쏠할 것이다.

하지만 동향, 동남향의 경우에는 남향 베란다와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론 서향, 서남향의 경우에도 남향 베란다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 아무래도 가을~겨울 동안 베란다는 온도가 정남향 베란다는 비해서 많이 내려가고 햇볕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채소와 화초 씨앗을 심자'라는 계획보다는 '기존에 키우던 식물들을 추위로 죽게 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 유지 시키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

햇볕 부족한 가을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 파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햇볕이 많이 부족해졌다. 어떤 채소를 심는 것이 좋을까. 고민 끝에 뿌리가 있는 대파를 구입하여 대파 밑동만 잘라 흠에 심었다.

대파 밑동을 흠에 심으면 햇볕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도 쑥쑥 자라 또다시 수확할 수 있게 된다. 가을에 햇볕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고 싶다면 무턱대고 아무 채소에 도전하기보다는 햇볕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쪽파, 대파, 부추, 치커리 등의 채소를 고르는 것이 좋다. 판매용 채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베란다에서도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온다.



Step by Step> 쪽파 심기부터 수확까지

① 8월말 ~ 9월초쯤 종묘상이나 꽃시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쪽파 구근을 준비한다. 보통 1도 이상씩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란다는 심기엔 너무 많다 싶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쪽파의 뾰족한 끝을 약간 가위로 잘라 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③ 적당한 화분에 쪽파 구근을 심고 흠을 덮어준다. 여기에서는 동근 형태의 섬유 유연제 리필 병통을 사용하였는데 사각 채소 화분에 심을 경우, 흠에 줄을 그어 일자로 심어주는 것이 좋다.

④ 일주일도 안 돼서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성장이 빨라서 하루가 다르게 잎이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

⑤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길게 자랐다. 쪽파는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 초보자도 키우기 쉬워 추천하는 가을 채소이다.

⑥ 수확할 만큼 자라자 통째로 뽑아서 수확한다. 수확을 포기하고 쪽파 구근을 늘리고 싶다면 쪽파 잎이 시들 때까지 두었다가 뽑으면 된다.

내안성이 강한 와조 '안련화'



최근 씨앗을 심어 발아시킨 한련화의 새싹을 블로그에 올리자 추운 계절에도 한련화가 살아 남는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었다. 한련화는 잎만 보면 여러여러해 보이지만 은근히 강해서 베란다에서 겨울도 이겨내는 편이다.

단 가을 햇볕은 봄 햇볕보다 부족해서 웃자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도 봄에 심은 것보다 더 오래 잎을 감상할 수 있고, 조금 더 꽃을 빨리 피우기 때문에 여름의 병충해 피해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만 어린 잎을 보여주고 있지만 봄에는 화려한 한련화 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련화 꽃은 화려하여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특한 허브이자 화초이다.

일년생 화초 정리, 관엽류 실내로 이동

늦여름이나 초가을부터 키우던 채소는 슬슬 수확을 하여 마무리를 짓고,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채소의 경우에는 어린잎을 샐러드로 활용해 보자. 햇볕이 더욱 부족한 동향, 서향 베란다는 경우에는 쪽파, 대파와 같이 웃자람이 덜하고 쑥쑥 잘 자라는 채소를 추천한다.

허브의 경우에는 보통 뿌리로 겨울을 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 정리해 주는 것이 좋고, 관엽식물의 경우에는 베란다 온도를 확인하여 실내로 옮겨야 하는 종류를 체크하도록 하자. 늦가을부터 흠에 심어야 하는 구근 식물의 경우에는 슬슬 흠에 심어주어 봄에 활짝 필 꽃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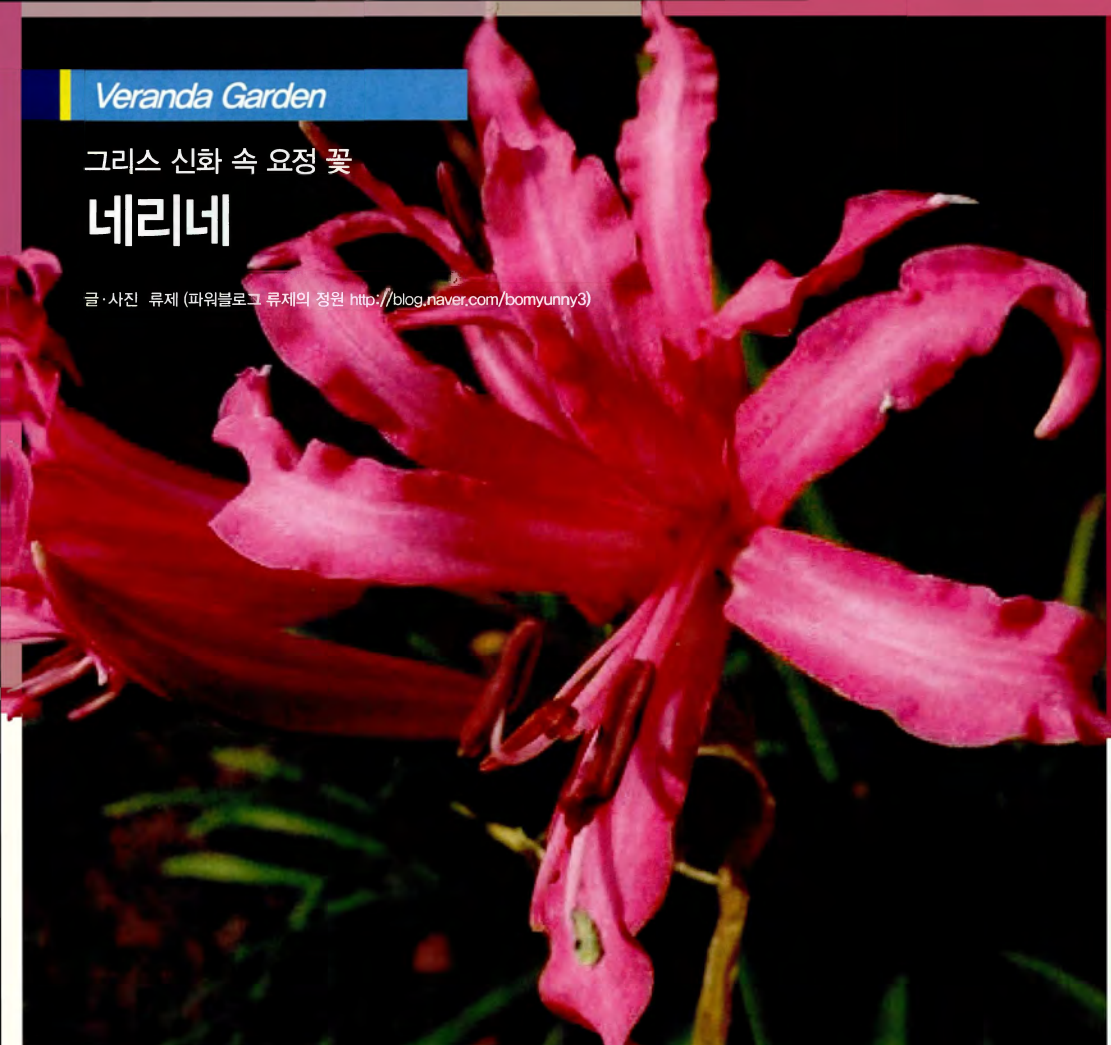
단 동남향과 서남향 베란다 중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다면 햇볕 양이 좋을 수가 있어 예외이므로 꼭 햇볕 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11월은 수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계절이지만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년생 화초들을 정리하면서 봄에 새로 구입할 화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봄을 위해 구근식물을 심음으로써 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을 잘 마무리 하여 내년의 가드닝을 알차게 준비하자. 🌱

그리스 신화 속 요정 꽃

네리네

글·사진 류제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myunny3>)



네리네는 한국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구근식물이나 그리스 신화 속 요정 네레이드에서 이름이 유래된 식물답게 매우 아름답고, 재배하기도 수월한 식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요정에 비견될 만한 꽃 네리네에 대해 알아보자.

초겨울에 개화하는 꽃

네리네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아프리카에서 온 수선화과의 구근식물이다. 그럼에도 겉모습이 상사화와 비슷하여 외국 식물이라는 이질감이 덜 드는 편이다. 꽃색은 백색, 자주색, 적색, 분홍색 등 다양한 편이며 햇볕 아래에서는 꽃잎이 반짝거리는 특성이 있어 '다이아몬드 릴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네리네는 꽃의 아름다움 말고도 장점이 많은데 초겨울 11월부터 꽃이 피고 꽃이 3~4주 정도로 오

래 간다. 구근을 캐지 않아도 되니 손이 많이 가지도 않는다. 이러한 장점에도 네리네는 한국에서 인지도도 낮고 구하기가 힘든 편이지만, 화초로서 장점이 많기에 곧 구하기가 쉬워지리라 전망된다.

식재 정보 | 화분 재배를 권장한다

네리네는 여타 구근식물처럼 양지바르며 비옥하고 배수 좋은 곳을 좋아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네리네의 노지월동이 가능한 지역이 별로 없으며, 네리네는 옮겨심기도 싫어하므로 화분 재배를 권장한다.

구근은 휴면기인 여름에 구매 심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식재 시 구근 윗부분이 1~3cm 정도가 흙 위로 노출되게 심는다. 네리네는 상사화보다는 화분에 적응을 잘하여 높이 20cm 정도의 화분에 심어도 개화를 잘하는 편이다.

비료 & 물주기 | 여름 이외의 계절에 비료를 준다

네리네는 원산지에서 고온 건조한 여름에 휴면을 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고온기인 여름에 휴면을 한다. 때문에 여름엔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비도 맞지 않도록 한다.

잎이 있는 가을~봄에는 4~5일에 한 번 물을 주고, 겨울 10c 이하의 장소에서 월동할 경우에는 봄, 가을보다는 물을 적게 주어야 한다.

비료주기도 물주기와 비슷하게 봄~가을에 2~4주에 한 번 액비를 1000배 희석한 것을 준다. 역시 겨울에 10c 이하에서 월동할 때는 액비도 주지 않아야 한다. 여름에도 액비는 주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퇴비를 흙 표면에 적당량 깔아 주면 좋다.

번식 | 분구로 번식한다.

네리네는 사실 종자 번식도 가능하지만 구근식물답게 종자 번식을 하면 꽃이 피기까지 5~7년이

걸리는 데다 종자를 맺는 과정에서 구근의 양분을 대단히 축내므로 주로 자연적으로 나뉜 자구들로 번식을 시키는 게 좋다. 네리네는 옮겨심기를 싫어하므로 한 번 심고 3~5년 후 여름에 흙을 새것으로 바꿔주면서 늘어난 자구들을 분리해 심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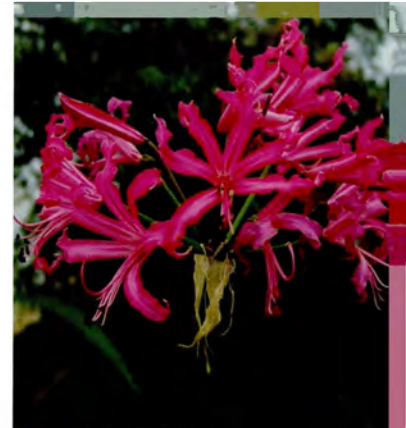
병충해 | 특별한 병충해는 없다.

네리네는 강한 식물이라 특별한 병충해는 없으나 배수가 안 좋은 흙에 심었거나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구근이 종종 썩는다. 그러므로 심을 때 배수가 좋은 흙에 심어야 하고, 잎이 있는 시기엔 햇볕을 잘 보여주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월동 | 실내 월동을 해야 한다.

네리네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나 노지 월동이 된다. 그러므로 네리네를 심은 화분을 겨울 동안 1~15c 사이의 장소에 두어 월동시키면 된다.

단 겨울도 네리네의 생장기이므로 겨울 동안 네리네에게 햇볕을 잘 보여주고 온도를 10~20c 사이로 유지시키면(25c 이상의 온도에선 휴면에 들어갈 수 있다) 겨울 동안 대충 월동한 포기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m**



봄꽃 향연을 위한 준비

화분에 추식구근 심기

구근은 화분이나 윈도박스 등에 심어 디스플레이 하기에 안정적이다. 일반적으로 구근은 한 화분에 한두 개를 심기보다는 층을 나누어 여러 구를 심는 데, 봄이 되면 꽃의 현연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25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 심는다.



노지에 구근 심기 | 혼합식재로 화려함 연출

노지에서도 다른 식물들과 혼합식재하면 서로 대조되어 더욱 화려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상시화와 같은 작은 구근은 암석식물과 같이 식재하면 좋다.

큰 잎과 꽃을 가진 백합과 크리놀은 혼합화단이나 관목 위주의 화단 빈 공간에 식재하면 자연스러움을 더해준다. 아말릴리스, 네리네, 수선화는 따뜻한 벽이나 펜스 아래에 심고 숲이 자생지인 시클라멘, 얼레지, 스노드루프 등이 있는데, 낙엽성 교목 또는 관목 아래 살짝 그늘진 곳에 심으면 더 멋스럽다.

화분에 구근 심기 | 구근 3배 깊이로 식재

구근은 심기 전에 베노밀을 1000배 희석하여 소독해 식재하고, 소독약이 없으면 락스를 이용해도 좋다. 구근은 과습하면 썩기 쉽기 때문에 배수층을 꼭 깔아주어야 한다. 흙은 물 빠짐이 좋고 입자가 굵은 흙이 좋다. 화분에서는 원예용 상토에 그냥 심어도 무난하나 발효와 부엽토, 모래를 5:3:2의 비율로 혼합해 식재하면 좋다. 구근에 이미 영양분이 충분하므로 거름을 많이 섞을 필요는 없다.

구근의 심는 깊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근 크기의 3배 깊이에 심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선화나 히아신스처럼 뿌리가 아래에서 나는 구근은 흙 위로 약간 보이게 심을 수도 있다. 백합처럼 뿌리가 위에서부터 나는 구근은 깊게 심어야 한다. 다 심은 후에는 흙을 덮고 물을 듬뿍 준다.

심은 후 관리 | 햇빛이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관리

구근은 별다른 보호 없이 실외에서 잘 자란다. 심은 구근은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서 키운다. 물이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이 너무 과다하면 구근이 썩어 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관리가 필요하다. 썩이 나기 전에는 속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물을 주고, 썩이 난 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준다.

썩이 나면 화분째로 1월말까지 저온상태로 둔다. 추식구근은 추위에서 한 달 이상을 지내야 꽃눈이 분화되는데, 꽃눈을 만들 때 건조하면 봉오리가 말라버린다. 썩이 나고 나서 저온에 잘 견딘 썩들은 2월 정도면 꽃봉오리가 보인다. 개화를 앞당기기 위해 실내에 들여 놓아도 된다.

꽃이 진후 | 건조하고 통풍 잘되는 그늘에서 보관

5~6월 정도면 잎이 저절로 노랗게 시든다. 꽃이 지면 꽃대는 남기고 꽃은 잘라준다. 씨를 맺는 대신 구근을 비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휴면을 맞이한 구근은 화분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캐내어 말린 후에 보관해도 된다.

화분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물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고, 캐어낼 경우에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바깥 말려 양파망에 널거나 신문지에 싸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휴면한다.

심기 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처리 후 심어야 한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10℃의 저온에서 40~50일 정도 넣어둔 후 10월이 되면 꺼내어 화분에 심는다. 저온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듬해 예쁜 꽃을 보기 위함이다.

구근은 기본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꽃눈을 형성해야 생육하고 개화할 수 있다. 꽃눈 분화가 일어나도 휴면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꽃을 볼 수 없고, 휴면에서 깨어나도 꽃눈 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꽃을 볼 수 없다. 추식구근은 이러한 휴면타파와 꽃눈 분화가 저온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

Mini Box 1

추식구근의 공통적인 재배 특징

꽃이 피는 시기 : 3~5월

재배 장소 : 9~6월 : 실외 (별이 많고 기온이 높지 않은 곳)
6월말~9월초 : 휴면기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

심는 시기 : 9~11월 초

겨울 관리: 실외에서 관리한다. 썩이 나는 12월말까지는 실외의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화분을 기른다. 저온처리 후 1월부터는 햇빛이 잘 드는 실내 창가로 옮긴다.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봄 관리: 일찍은 2월말부터 5월말까지 꽃이 핀다. 꽃이 지고 난 후 씨를 맺기 전에 자른다. 초여름 관리: 늦게는 6월 초쯤에 잎이 노랗게 시든다. 시든 것을 캐내 그늘에서 말린다. 초가을 관리: 냉장고에서 40~50일 동안 저온처리한다.



▲ ▼무스카리



▲ 수선화

Mini Box 2

구근의 분류

춘식구근 : 칸나, 다알리아, 아말릴리스, 글록시니아 등

추식구근 : 수선화, 튜립, 히아신스, 아네모네, 아이리스, 시클라멘, 크로커스, 프리지어 등



구근 종류별 재배 TIP

수선화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서 키운다. 물이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이 너무 과다하면 구근이 썩어 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관리가 필요하다. 구근은 크고 묵직한 것으로, 썩이 살짝 나와 있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에 저온 처리한 구근을 심는다. 심은 후 물을 충분히 준다.



튤립

가을에 심는 대표적인 구근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월동이 가능하며 겨울을 지나야만 예쁘고 정상적인 꽃이 핀다. 실내에서 재배시 냉장고에 40~50일정도 보관 후 식재하면 좋다. 베란다에서는 1월 중순경까지 차가운 곳에서 키우다가 20℃ 정도의 따뜻한 곳에 두면 40~50일 후 꽃이 핀다.



알리움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초봄에 잎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다시 잎이 나와 자란다. 꽃이 필 때쯤이면 잎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기후조건의 차이로 보인다. 잎은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꽃대가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기에 절화용으로도 사용한다. 구근의 모양은 거의 마늘과 흡사하며 한구를 심으면 보통 다음해에 2개로 분구가 된다.



프리지어

항기가 매우 진하여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월동이 어려우나 베란다, 창가, 햇빛이 잘 들고 바람막이가 되는 곳에서는 무가온 월동이 가능하다. 저온 7℃ 이하에서 50일정도 재배 후 실내에 두면 개화가 가능하다. 식재 전 차가운 곳(냉장고)에 보관하면 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무스카리

화분용, 화단용, 지피식물용으로 사용되며 다년생 구근 식물로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이 좋고 해가 잘 들고 반그늘인 곳이 좋다.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



아네모네

바짝 마른 구근을 물에 불려 냉장고에 2주정도 보관한 후 썩을 티워 정식한다. 너무 많은 수분은 구근을 파괴하므로 젖은 솜이나 상토를 이용하여 수분을 흡수시킨다. 노지에서의 월동은 어려우므로 실내재배 후 봄에 노지에 식재한다. 구근은 뽕이 모양으로 넓은 쪽이 위쪽이다.



노지에 튤립 심기



1. 언 땅에 튤립 구근을 식재하기 위해 말뚝을 박는다.
2. 말뚝을 이용해 말뚝을 깊게 박는다.
3. 말뚝이 2/3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박는다.
4. 박은 말뚝을 다시 뽑아내어 구멍을 만든다.
5. 구멍에 튤립 구근 1개를 심는다.
6. 구근을 심고 흙을 덮으면 식재 끝. 내년 봄을 기다린다.

선인장연구소 다육식물 6개종에서 염색 성공

다육과 선인장의 화려한 변신

다육과 선인장에 색을 입히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선인장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육이에 색깔을 입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절화류처럼 다육과 선인장에도 빨주노파남보의 색을 입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과 관심가치를 높여겠다는 야심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다육이 컬러화 연구는 다육이에 식물 전용 염색제를 스프레이 해 색을 입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다육과 선인장이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머리 염색을 할 때 도 피부에 맞아야 하듯 식물에게도 부작용이 없는 종을 선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합 종과 염색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육이 컬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인장연구소는 그동안 염색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다육이 30여종과 선인장에 염색제를 처리했으며, 그 결과 프로이노사, 월토이, 크리스마스, 소정 등의 6종에서 3개월이 지나도 무탈하게 생육된 것을 발견했다. 이들 종들은 염색된 부분과 새로 자라난 부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염색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종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거나 죽기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연구를 진행했던 선인장연구소의 김효정 연구사의 설명이다.

염색제 선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국내와 염색제를 수집해 특성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가격이 저렴하면서 선인장 생장점을 과사시키거나 생육부진을 초래하는 등의 식물 생육 변화에 피해가 적은 염색제 2종을 선별했다. 일반 물감이나 락카 등의 염색제도 시도해봤지만 식물생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관상 가치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선택된 염색제는 식물의 기공을 막지 않고, 식물호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물 전용 염색제 이용, 스프레이 방식으로 염색

왜 스프레이 방식일까. 김 연구사에 따르면 물오름보다는 스프레이 방식이 최근 염색의 대세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절화류에도 스프레이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물오름 방식은 잎까지 물을 들이기도 하고, 색이 지저분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육이는 특히 물오름 염색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이라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염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염색된 다육이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빛이다. 염색을 해도 다육이 고유 특성이 변하지 않는 만큼 물을 자주 줄 필요는 없다. 두 달에 한 번 흠뻑 주면 염색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또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두어야 한다. 염색제로 도포했기 때문에 광합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육식물의 염색이 상용화되면 다육이는 국내 식물계의 최강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조그마한 체구의 매력에 빠져 전국은 다육이 열풍인데, 여기에 화려하게 염색까지 한다면 왕자 군히기는 때론 당상 염색의 목적과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을 즐길 일만 남았다. 🌵

문의: 선인장연구소 031)229-6178



손톱크기의 아기자기한 매력 다육

리톱스(Litops)

글·사진 정승환 기자 / 도움말 스카이다육랜드



▲ 다양한 리톱스가 전시된 곳. 마치 자생지인 아프리카 사막을 축소한 듯한 작각을 불러 일으킨다.

리톱스 취재를 위해 찾은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위치한 다육판매점. 에케베리아, 세뿔, 하월시아 등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즐비하다. 주인을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한 칸에 모아 놓은 작은 돌들이 눈에 띈다. 자세히 보니 돌이 아닌 다육식물이다. 리톱스는 모양 때문인지 생석화(生石花)라 부른다. 아원도 Lith(돌)과 Opsis(유사한)의 합성어라 한다. 또는 알팔굽과 비슷해 알팔굽 식물로도 부른다.

키우는 노하우에 따라 군생 번식

리톱스는 오묘한 매력이 있다. 작은 돌 형태의 식물이 조금씩 번식하는 모습을 보면, 키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을 불러 일으킨다. 매장에서 만난 리톱스 마니아 김정호씨(40, 리톱스 재배 경력 5년)는 그 매력에 푹 빠졌음을 실감케 한다. “처음에는 하나지만 퍼지면서 두 개가 되요. 옷을 벗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2개가 4개가 되고, 잘만 키우면 군생을 만들 수 있지만

엄지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자갈, 아니 자갈보다 작으니 조약돌 정도 되려나. 우리가 아는 다육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살아있는 돌멩이라 부르는 다육식물인 바로 ‘리톱스’이다. 가을의 끝이 보이면서 다육도 이제 본격적인 생육에 들어간다. 리톱스 속의 다양한 매력에 꼭 빠져보자.

드너의 관심만 있다면 키우기 좋은 실내식물이다. 야생에서 강한 햇빛에 적응한 식물로, 실내에서 키울 때는 적당한 광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려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 광 조건을 맞추자면 오전에는 햇빛을 4~5시간 정도 받게 하고, 오후에는 반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보통 남향의 베란다 또는 창가가 최적의 장소이다. 이런 곳이 없다면 하루 중 충분한 햇빛에 리톱스가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일조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동향의 베란다도 나쁘지 않다. 리톱스는 충분한 광을 받지 못하면 잎이 가늘거나, 길어지면서 못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 색깔이 차츰 없어지고, 측면은 녹색빛을 띠기 시작한다 결국 죽게 된다.

또 봄에 강렬한 햇빛은 잎이 타버리는 일조(日燒)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막기 위해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겨울의 반약한 빛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식물이 장기간 흐린 날씨에 밝은 빛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욕심이 과해 식물을 들고 갑자기 햇빛을 쬌게 한다면 위험하다. 일조현상이 일어나거나 표면에 백색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잎이 타버린 식물체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물이 서서히 빛에 노출되도록 순화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기르기 시작한 리톱스라면 필요한 방법이다.

리톱스 재배 성공여부는 ‘물관리’

리톱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스카이다육랜드 대표 지윤석씨는 “리톱스 물관리는 일년에 넉 달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름 6~7월과 이듬해 1~2월 관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관리가 리톱스 관리의 반인 셈이다. 리톱스는 성장주기가 있다. 생육 단계에서 토양 건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장주기가 잘 안다면 물주는 시기나 방법이 어렵지 않다. 리톱스는 다년생 식물로 매년 새로운 잎으로 분화된다. 만들어진 두 개의 식물체는 모양이 정확히

같다. 이 상태에서 가을동안 성장하기 시작해 겨울을 거치고 봄까지 지속된다. 이후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휴면기를 겪기 시작한다. 리톱스의 휴면기는 강렬한 열이나 장마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휴면기에는 늦은 여름까지 그동안 저장해두었던 물을 사용한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이 시작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리톱스의 성장이 시작된다.

리톱스 재배, 사막의 강한 환경을 고려한다

화분 재배시에는 리톱스의 뿌리를 고려해 화분 깊이가 3~5인치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화분이 아닌 용기를 쓴다면 배수구멍을 임의로 만들어 줘야 한다. 배수를 위한 용토를 쓸 때는 모래와 용토가 5:5비율이 되어야 한다. 마니아 김정호씨가 키우는 리톱스는 거의 강모래를 쓰고 있다고 한다. 강모래가 배수력이 좋은 것이 이유이다.

심을 몇 달 개의 작은 자갈을 놓고 배치한다면 마치 식물이 사막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리톱스 최대의 적은 응애다. 크기가 작아 응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잎 표면에 작은 점의 하얀 흉터가 있다면 응애 피해임을 알 수 있다. 살충제는 관엽식물에 쓰이는 액체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보통 코니노 수화제(0.5g)을 물 1L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된다. 작은 조약돌 같은 리톱스, 살아있는 돌을 집에서 키워보고 싶다면 주변의 다육 판매점에서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생육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리톱스 관리법



◀ 여름의 리톱스는 휴면기로 물을 주면 안된다. 이 기간에 평소처럼 물을 준다면 썩거나 물렁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확연하게 주름이 잡혀진 모습이 보일때 물을 주면 재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때 물은 가볍게 흙이 축축할 정도로 줘야 한다. 이런 현상을 제외하고 휴면기에는 절대 물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 일반적으로 8~9월에 식물체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성장의 첫 표시는 잎에 물이 생기면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이 기간이 진행되어 틈 사이로 색이 형성되면서 이후에 하양 노랑 꽃이 열린다. 대부분의 리톱스 속의 꽃은 강한 형태가 있다. 꽃이 피지 않았던 충분한 나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새로운 개체가 입을 형성하면서 내부로부터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 하나의 식물로부터 두 개의 개체가 복제되는 것이다. 마치 세포 분열을 확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겨울기에도 리톱스는 성장한다. 새개체는 크기가 증가하고 주변의 모개체는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다. 이시기에는 절대 물을 주면 안된다. 새개체는 낮은 잎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낮은 잎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리톱스를 5°C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겨울철 창가 근처에 두면 실내가 따뜻해도 서리로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는 창가에 두지 않도록 한다.



◀ 새개체는 낮은 개체의 겹대기가 줄어들때까지 낮은 개체에 저장된 물과 영양분을 추출한다. 이 겹질은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식물이 이 단계에 이르면 시기적으로 봄이다. 이때 새개체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봄중반까지는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관수와 함께 토양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낮길이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물의 양을 줄이고 휴면을 준비하도록 가드너 입장에서 도와할 때다.

How to 다육으로 꾸미는 분경

촬영협조_ 다육랜드 (032.673.8892)지윤석 대표



1. 크라솔라 속인 청솔. 성분이 다른 흙에 심어줄때는 빨리 적응하기 위한 미리 털어준다. 중심뿌리는 놔두고 잔뿌리는 정리해준다.
2. 먼저 분경의 중심을 집을 때, 중앙에 두 개의 돌이나 큰 돌 하나를 사용한다. 지씨는 두 개의 돌로 배경을 집을 예정이다.
3. 중간높이인 청솔을 심어준다. 뿌리 있는 쪽에 공기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므로 사이사이 흙을 넣어주어 빈 곳이 없도록 한다.
4. 나머지는 거미줄바위솔을 심는다. 사izer이 분리될 수 있도록 머리카락 부분을 잡고 심는다. 번식이 잘 되므로 주위로 두르면 된다.
5. 마지막으로 검은색 화창토를 표면에 깔아준다. 화창토가 없다면 마사토나 그늘 모래를 깔아주면 깔끔한 입체적인 배경을 만들게 된다.
6. 봄과 가을에는 다육의 성장기이므로 심고 나서 충분한 관수를 한다. 뿌리가 잘 퍼지고 새로운 흙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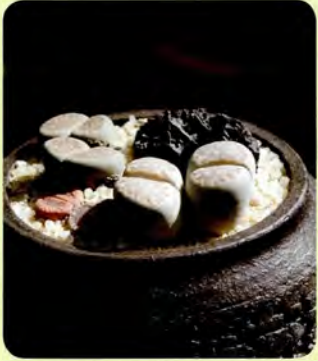


살아있는 돌. 다양한 창으로 분류되는 리튬스

● 도로시에

Lithops dorotheae

국내외 인기 있는 종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마홍 옥이라고 부른다. 선명한 창과 대담한 글꼴무늬가 특징적인 종이다. 경계와 섬은 불투명 크림색 빛, 노란빛, 녹색빛 등이 나타난다. 꽃은 노란색으로 크기는 보통 25~30mm 정도 된다.



● 마르모라타

Lithops marmorata

보통 부분적으로 닫힌 반투명 창에 대담하거나 얼룩진 섬들이 대략적무늬를 이룬다. 측면에서 보면 혹은 난 것처럼 솟아있는 모양이다. 얼룩점은 탁한 녹색빛의 회색이다. 꽃은 흰색이고, 직경이 대부분 25~30mm이다.



● 레슬리에이

Lithops Lesliei

국내에서 가장 흔한 품종이지만 최근에는 찾기 힘들어 졌다. 자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가을에 색이 더 짙어 지는 리튬스로 탈피가 진행되며 개체수가 증가한다. 레슬리에이는 직사광선에 강한 편이라 키우기 쉽다.



● 슈도

Lithops pseudotruncatella

백백하게 가지를 뻗은 것 같은 홈들과 글꼴무늬, 많은 얼룩점들을 갖고 있다. 창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홈과 글꼴무늬가 경계부위 함입이 있어 불규칙해 보인다. 색은 연회색, 황갈색, 분홍색 등 다양하고, 꽃 색깔은 노란색이다.



● 오프티카 '루브라'

Lithops optica 'Rubra'

리튬스 색깔이 진한 분홍색인 루비색과 비슷해 힘들어 졌다. 자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가을에 색이 더 짙어 지는 리튬스로 탈피가 진행되며 개체수가 증가한다. 레슬리에이는 직사광선에 강한 편이라 키우기 쉽다.



● 아우캠티에

Lithops aucampiae

아중, 원예종에 상관없이 서식지에서 자생가능한 건전종이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어디서나 적응이 가능하다. 반질반질하고 매끈한 창과 방사형의 멋진 무늬가 조화를 이룬다. 꽃 색깔은 노란색이다.



● 알비니카

Lithops Lesliei 'Albinica'

레슬리의 원예변종인 알비니카. 리튬스 역사 중에서 그나마 최근에 출현한 리튬스이다. 창 색깔이 녹색이고, 겨울에 점점 짙어지는 특색이 있다. 탈피로 개체수가 많아진다. 꽃색은 백색이고, 레슬리류 직사광선에 강한 특색이 있다.



● 오제니아나

Lithops otzeniana 'Aquamarine'

종명으로 오제니아나이지만 '아쿠아'라고 부르기도 하다. 아마도 창에 물방울이 떠다니는 듯한 무늬로 인해 아쿠아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8~13mm의 깊은 홈이 특징이고, 경계가 뚜렷한 편이다. 하얀색의 중앙에 20~30mm의 노란색의 꽃이 핀다.



● 줄리

Lithops julii ssp.

줄리는 흔한 종류이지만 종자의 발아율과 탈피가 느린 편이다. 밤색의 창 무늬를 갖고 있고, 그물 모양과 비슷하다. 크기는 보통 25mm이다. 원래 뒷부분이 약간 볼록하거나 약간 오목한 형태를 갖고 무늬색은 녹색, 연보라, 갈색, 회색, 황색 등 매우 다양하다.



● 올리바시아

Lithops Olivacea var. olivacea

종소형의 크기인 올리바시아는 평균 약 18x15mm 정도의 크기이다. 창 색깔이 회색을 띠며 무늬가 단순한 편이다. 처음에는 붉은 색을 띄지만 자라면서 올리브 그린색으로 변한다. 겨울에는 색이 더욱 짙어져 선명한 느낌이 든다.



● 탑레드

Lithops karasmontana 'Top Red'

가을에 순백의 꽃을 피우는 탑레드는 창 색깔은 붉은 색이다. 발아 후에는 리튬스 루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면서 확연히 다르다. 붉은색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로 인해 인기가 꽤 높다.



● 우케리 *Lithops hookeri*

일반적인 형태보다 패인 좁은 홈들이 불분명한하다. 그래서 벌레 먹은 모양의 무늬라고도 한다. 반투명의 창들은 브라운 색을 지니고 있는 품종이다. 틸은 약 4~9mm 정도로 작다. 25~35mm의 조금은 큰 노란색의 꽃이 핀다. In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텃밭 채소 관리 김장채소 수확 시기

글·사진 정성훈 기자 / 자료 DAUM 카페 '농사길잡이'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성훈 농촌지도관)

겨울 김장을 위해 밭과 채소관리에 노력한 가드너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드디어 김장의 최종 마무리 수확단계이다. 올해 농사의 마무리를 위한 농부의 마지막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다. 배추 수확의 환희를 느끼기 위한 마지막 수수를 지금부터 '농사길잡이' 정성훈 농촌지도관이 전한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배추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었다. 마트에서 배추를 사다 먹는 사람들이 이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직접 내 텃밭에서 기르는 배추와 무로 김장 채소를 담근는 텃밭농부들에게는 가격보다 날씨에 신경 써야 한다.

김장채소를 수확해야 하는 11월은 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급감하는 시기이므로 김장을 대비한 사전 보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작물이 얼어버리는 동해(凍害) 피해에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성훈 지도관은 "보온대책을 세워야 하는 달이므로 좋은 김장을 담으려면 적기에 수확하고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배추는 연결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묶어 주는 것만으로 서리 피해 방지

기상의 변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무배추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한 배추를 묶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배추를 묶어주는 것만으로 추위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배추가 얼게 되면 언 부분은 잎의 끝이 벌어지고, 하얗게 마른다. 우선 영하의 온도에 작물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도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햇빛이 차단되어 속이 노랗게 된다고 한다. 배추의 일부는 묶거나 묶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배추의 결구를 묶어주는 적기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다르나 중부지방은 일반적으로 11월 1일 전후가 좋을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묶는 방법에는 개별로 묶는 방법과 포기를 연결해 묶는 방법이 있다. 정성훈 지도관은 "둘 중에 고르라면 연결로 묶는 방

법이 손쉽고, 시간 절약과 수확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끈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낭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결목음방법은 Step by Step으로 설명한다.

수확하기 좋은 김장 채소 선별법

처음 김장채소를 수확하는 사람은 작물이 어떤 상태일 때 수확을 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겨울에 들어서 서리를 맞으면 배추의 섬유가 연해지고 풍미도 증가해 맛이 좋아진다. 정성훈 지도관은 배추는 통이 3~4kg(결 껍질제거)으로서, 줄기가 두껍지 않은 것이 좋다고한다. 또 배추를 들어다 봤을 때 보기보다 무겁고, 배추 잎이 안으로 감싸 있어 꽃 봉우리 같으며, 반으로 갈랐을 때 속이 노란색인 것이 좋다고한다. 흰색은 재배기간이 길고 결구가 너무 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병충해나 생리장애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 좋다. 무는 모양이 좋고, 단단해 보이며, 청색부분이 많은 것이 좋다. 또 무청이 상심해야 하며, 무속에 구멍이 있거나 검은 점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한다.



▲ 정성훈씨의 배추 결구가 완성단계인 모습 (촬영_ 10월 19일)

기상상태에 맞춰 수확하는 센스

김장채소의 수확은 김장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작물이 언 피해를 받으므로 기상상황에 따라 수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의 언 피해온도는 0℃, 배추는 -6℃이다. 11월부터는 항상 온도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작물 수확의 기본 자세이다.

김장배추는 -6℃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얼었다가 도 날씨가 풀려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수확하면 된다. 하지만 -6℃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바로 수확해 저장을 해야 한다.

배추와 달리 김장 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면 무의 조직이 늘어나 온도가 올라가 녹은 다음 조직 자체가 망가져 푸석해진다. 즉,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얼지 않도록 피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는 -2℃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상된다면 바로 수확해 저장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확 후 저장에도 방법이 있다

김장하는 시기를 결정해 수확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이상상황에 따라 배추가 열기 전에 수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때는 저장해 보온 해 주면 2~3주 정도 채소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정성훈 지도관은 “무, 배추의 온도는 0~3℃, 습도 90~95% 정도로 유지될 수 있고, 물이 잘 빠지며 햇빛이 잘 쏘이는 밭 또는 집안 터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때 쓰이는 저장 용기로는 고무 통을 이용해도 되고, 무·배추 사이에 왕겨를 넣거나 날개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된다. 저장하고 나서 눈이나 비가 와서 움 안으로 물이 들어가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주변에 물도랑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저장할 때 배추와 무의 상태도 중요하다. 배추는 너무 큰 포기는 썩기 쉬우므로 골라내고, 길쭉한 2~3배를 뜯어내고 병든포기, 얼었던 포기는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김장무는 육질이 단단한 무를 제때 수확하고 너무 큰 무는 바람들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골라내야 한다. 또 병들거나 상처가 난 무는 건전한 무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텃밭의 김장을 마지막으로 올해 텃밭채소의 가을 걷이가 끝이 보인다.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부지런한 농부가 풍성한 가을을 수확하는 것은 진리이다. 🌾



Step by step 배추를 열지 않게 하는 길잡이의 배추 묶기

▲ 첫 열의 배추를 묶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여매고 매듭을 지은다. ▲ 가집자리 잎을 두 손으로 위로 세우고 끈을 한바퀴 둘러며 나아간다. ▲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아가고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주면 완성이다.

◀ 배추 연속 묶기

How to 영아의 기온에 대비하는 김장채소 저장법

▲ 기상 예보에 따라 추위가 예상되면 무와 배추는 가능하면 즉시 수확한다. ▼ 무나 배추 사이에 왕겨를 넣거나 날개로 신문지로 씌는다. ▲ 실외의 고무통을 이용해 보관하고 온도변화 적은 실내 지하실이나 다락도 좋다.

Check list 11월 김장 채소발 관리

배추 묶기가 필요한 시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동해의 위험. 작물이 동해를 받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이 없어진다.

- 묶는 시기는 영하로 내려가기 전, 중부지방은 11월 1일 전후
- 끈은 굵은 것을 쓰는데 좋다. (끈 묶은 자리가 상하지 않게)
- 묶어주는 방법은 연속 묶기

수확시기

무는 0℃, 배추는 -6℃에서 연 피해를 입는다.

- 김장배추는 얼었다가도 녹으면 수확하면 되지만 -6℃이하로 내려가면 수확·저장한다.
- 김장무는 얼었다가 녹으면 조식이 회복하기 어렵다. 보통 -2℃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수확·저장한다.

김장채소 저장요령

- 온도 0~3℃, 습도 90~95%가 유지되는 물빠짐 좋고, 양치바른 밭이나 집안 터에 저장
- 저장용 고무통을 이용한다. 무·배추 사이에 왕겨를 넣거나 신문지로 날개 포장해 보관
- 눈·비에 대비해 움 주변에 물도랑 설치

좋은 김장채소 고르는 법

- 김장배추_ 배추는 겉 겹질 제거한 통 무게가 3~4kg, 줄기가 두껍지 않고, 잎이 안으로 감싼 꽃 봉우리 모양, 속이 노란색인 것
- 김장 무_ 모양이 좋고, 단단하고 청색부분이 많아야 한다. 무청이 상하고 무속에 구멍이 있거나 검은 점이 있으면 피한다.

HOT 길잡이가 수확한 풍성한 아콘과 토란

길잡이네 텃밭의 아콘의 굵기가 일반 핸드폰보다 크다. 아콘은 수분이 많아 고구마보다 잘 부러지고 캐낼 때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콘은 수확한 후 보름정도는 놔둬야 맛있다. 아콘알은 말려 차로 끓여 먹어도 맛있다.

알이 꼭 찬 제법 큰 토란들이 여러 개 달려 있다. 서리 내린 후 기온이 영하로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토란은 한꺼번에 줄기를 베어 수확하는 것이 좋다. 껍질은 1~2시간 정도 놔둔 후에 벗기 쉽다. 토란은 독성이 있어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한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고구마 수확, 넝쿨과의 행복한 사투

글·사진 정승환 기자 / 협조 광주도시농업연구회,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가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기자의 청소년 시절을 되새겨 본다. 어린 시절 어느 공간 어떤 시간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를 성공한 청소년기가 아닐까.

이제는 적응할 법 하지만 청소년농부프로젝트가 열리는 광주시 하변천리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흙에서 내가 소년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의 청소년농부들에 대한 어른의 동경이 아닐런지... 농업에 전공하고 나서야 농사가 무엇인지 알았던 철부지 어른의 마음은 지금 청소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경험이 의미 깊은 일이라는 것은 나 뿐 아니라 학생 본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

농사로 얻는 가을의 고마움

도착하자마자 시끌벅적하다. 지난번 태양열 조리기 제작 이후 근 한달만에 보는 회원들 얼굴들이라 반갑고, 먼길 오느라 수고했다며 인부를 묻는다. 또 이날 태양열 조리기로 수확된 농산물을 구워 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는 내심 기대되는 소식이다.

가을의 날씨는 농부들에게 참 좋다. 작물의 상태가 등숙을 넘어 완숙의 상태에 접어들니, 하늘의 조화와 맞물려 있지 않은가. 봄여름, 힘든 농작업으로 땀 꽤나 흘린 농부의 마음을 하늘이 아는지 수확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농부들을 위해 친히 고구마 밭을 빌려 준 농장 주인의 마음도 고마울 뿐이다. 이것 또한 가

을만 되면 넉넉한 우리네 인심이다. 날씨도 선선하니 고구마 캐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아이들에게도 오랜만에 하는 작업인지 기대감 반, 설레임 반으로 고구마 밭 가는 걸음이 가볍다.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를 건네니 눈웃음으로 대답한다. 청소년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가는 시점

이라 그런지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 참석하지 못해 보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일정에 참여했다.



"고구마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 심은숙 회장의 지도 아래 열심히 고구마를 캐고 있는 미래의 농부들이다.

"게란이 잘 익었을까?" 지난강의에 만든 태양열 조리기로 수확한 작물을 익히고 있다.



"힘껏 담거봐." 제법 강한 고구마 넝쿨을 캐는 도시농업연구회 송은경 회원(가운데)과 정원영(왼쪽), 최군, 임준성(오른쪽)은



"이렇게 작은 고구마도 있네." 항상 모든 사물에 호기심이 강한 남기영(노광주중1, 노란색 옷)은 고구마의 크기에 놀란다.



"홍박 크기 만한 고구마" 수확한 고구마를 차곡차곡 봉지에 담고, 농부들은 다른 고구마를 열심히 캐고 있다.

가을 수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어느 틈에 벌써 청소년들과 고구마 밭에 도착. 도시농업연구회 회원인 고원미씨가 고구마 캐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 초췌 네 이랑을 맡아요. 우선 고구마 줄기가 강하게 얽혀 있으니 분담해서 시작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이 달려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두세명이 붙어 제법 강한 고구마 줄기를 잡고 벗기기 시작한다. 줄기를 건으니 말칭 했던 검은색 비닐이 찢겨 나온다. 그 다음 아이들이 검은 비닐을 벗기고, 또 다음 아이들이 호미를 들고 고구마 캐기에 투입된다. 웬만한 프로 농사꾼 못지않다.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고구마가 수북이 쌓여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을 고구마이다.

유기농을 추구하는 청소년 농부

1시간여 남짓 지났을까. 마무리를 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도 느낀 것일까, 여름 수확 때에는 기온 탓인지 금방 지치고,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늘 만큼은 아이들의 몸이 가벼운 듯 활발함이 느껴진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배추 벌레잡기가 시작됐다. 지난 9월에 파종했던 배추가 제법 한아름 곱구가 맺기 시작했다. 하지만 잎이 커질수록 배추 잎을 기주로 먹고 사는 벌레들도 늘어나는 법. 농약을 뿌려도 되겠지만 청소년

농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유기농을 추구하는 농부들이다.

고구마 캐기 시간 때보다 훨씬 아이들의 웃음이 밝다. 인간과 벌레의 종(種)들의 만남이라 그럴까? 여기저기 벌레를 찾아 배추 잎을 뒤적거리며 ‘나 오기만 해봐라’라는 무서운 눈빛으로 탐색한다. 벌레 좋아하는 루지민(초월중)양의 벌레 사랑은 단연 돋보인다. 손바닥에 벌레를 놔두고 요리조리 살펴보는 모습이 신기하고 대견스럽다. 해충과 작물을 동시에 사랑하는 진정한 유기농 농부이다.

“배추바퀴벌레, 잡았다.” 수확이 무르익는 배추에게 잎벌레는 배추에게는 귀찮은 존재다.



“벌레는 또 하나의 생명체” 벌레를 사랑하는 루지민(초월중) 양은 벌레잡기 시간에는 항상 돋보인다.

“어떤 벌레가 있는 거니.” 2조 조원들이 서로를 배추에 있는 해충들을 잡아 구경중이다.

미래의 과학영농 체험

어느새 마지막 일정으로 이어진다. 도시농업연구회 회원 남종우씨가 지난시간에 만든 태양열조리기에 구운 농작물을 시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계란이 반숙된 것도 있지만 완숙된 것이 대부분이다. 고구마와 감자도 먹기 좋게 익었다. 이것이 과학의 힘. 아이들에게 과학 영농의 기초를 깨닫게 한다. 남씨는 “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

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농사가 힘든 일이라 생각한 아이들도 이번만큼은 공감하는 눈치다.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가을이 수확처럼 마무리도 확실하게 하는 학생들과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이기에 다음 번 마지막 일정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How to

청소년 농부의 고구마 캐기



1. 고구마는 저장성과 상품성을 위해 캐 때 주의. 넝쿨은 낮으로 자르고 걷어낸다.



2. 식용고구마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호미를 사용하면 좋다.



3. 캐어난 고구마는 흙을 잘 털고 머리와 꼬리부분의 줄기와 잔뿌리를 자른다.



4. 수확 직후 고구마는 호흡으로 열이 발생.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후 저장한다.



초보의 화단에서 의리를 지켜준 고마운 고추 고추나무 사랑걸렸네

글 · 사진 김지대 (야매가드너)

신통방통한 고추이야기

고추꽃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고추꽃' 하면 어감이 그리 예쁜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새하얗게 소박하고 예쁜 꽃이다. 50원짜리 동전만한 꽃들이네 그 역할이 참 대단하다고 한다. 고추나무가 자라난 꽃들을 피우는데 이 꽃들이 벌이나 곤충 혹은 바람을 타고 수정을 해서 고추를 자라게 한다. 꽃 가운데를 뚫고 조그만 고추가 나와 자라는 것이다.

지난 봄에 한 개에 2000원 하는 고추 모종을 사 와서 그냥 화단에 꽃아 두고 지지대를 세워줬는데 이 고추가 좋은 종자인지 거름이나 퇴비를 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란다. 지난 여름 아침마다 욕상에 올라가 적당히 자란 풋고추를 따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자라난 고추들을 제때 따 주어야지 또 꽃을 피우고 성장한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아 좋다. 그렇게 맛있는 풋고추를 여름 내내 먹었는데 더위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안된 고추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붉은 고추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초록색에서 강렬한 빨간 색으로 변화

는 고추를 직접 보니 꽤 신기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고추는 이렇게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구나. 가든플래너 박공영 사장님으로부터 가드닝과 농업하는 분들 공통으로 2월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었다.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면서 고추씨를 파종하는 시기여서 그렇다는데, 풋고추에서부터 고추장, 고춧가루 등 양념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고추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



고추나무를 위한 지지대 필수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 고추 잘 기르는 요령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종을 심을 때 처음부터 큰 화분이나 화단에 심는다. 고추는 나무처럼 자란다. 뿌리도 깊은 거 같고 자라면서 줄기도 굵어지고 제법 키도 크다. 따라서 모종을 심은 후 높다랗고 튼실한 지지대를 세워줘 실 같은 것으로 묶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나무가 곧게 잘 자라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고추나무가 좀 자라면서 이파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너무 무성해지지 않도록 이파리들을 따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고추잎으로 나물 등을 해 먹는다고도 하는데 관심있으면 시도를 해 봐도 좋다. 고추는 참 착하게도 벌이나 곤충이 없어도 바람 등으로 수정을 잘 한다고 해서 일부러 꽃가루를 묻혀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한다. 단 실내에서 고추를 기를 경우에는 목장갑 등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해줘야 한다.

고추꽃이 생기고 고추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고추를 따 줘야지 양분이 고르게 가서 더 열매를 잘 맺는다. 고추에게는 에이즈로 통하는 탄저병의 위험이 많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거나 흙이 너무 습할 경우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장마 때 너무 비에 노출되게 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장마 때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진 적이 많아서 수시로 일으켜주고 지지대를 다시 세워줬을 뿐 실내로 옮기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탄저병에 걸리진 않았다.

풋고추와 붉은 고추를 여름 가을 내내 넉넉히 먹고 현재 잘 익은 붉은 고추를 바삭 말리고 있는 중이다. 제법 바삭바삭해지고 있는데 이 말린 고추를 빻아 고춧가루를 만들 예정이다. 고추말리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끈에 열기살기 꼭지를 엮어서 바람이 통하는 창가에 매달아 놓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꼭지를 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꼭지가 힘이 없어서 따 버렸더니 하루 만에 거무튀튀하게 변색되고 말았다. 꼭지가 붙어 있어야 붉은 색깔을 유지하면서 말릴 수 있다.

고추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서 아직까지도 꽃을 피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곧 겨울이 닥칠텐데 한 해 살고 죽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실내로 옮겨 계속 키울 것인가. 온실이 있다면 데려다 놓을텐데 그럴 수도 없으니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



색갈쟁이팔, 개구리팔, 50일팔 등

이름에 숨겨진 토종팥의 비밀



글·사진 안완식 농학박사(토종종자 모임 씨드림 상임대표)



▲ 팥의 잎모양은 3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진 겹잎이다.

팥은 그 재배적지가 광범위하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팥은 중국 남부의 수림지대가 그 원산지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넓은 지역에 걸쳐 팥의 근연종인 새팥(*Phaseolus nipponensis* OHWI.)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팥의 기원지에 가깝다. 기록상으로도 7세기 경 백제 멸망 시 군대 식량창고의 유적에서 팥을 비롯한 벼, 밀, 녹두, 보리, 콩의 탄화미가 발견되어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팥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본다.

팥은 그 품종명이 다양한데 대부분이 색깔이나 심는 시기, 익는 시기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들이다. 또 지방에 따라 그 어미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많아 재미있다. 우선 색깔에 따라서는 붉은팥(적투팥, 빨간팥), 검정팥(묵팥), 흰팥(백두), 노랑팥(황색팥), 자청팥, 색갈쟁이팔, 개구리팔, 갈가마귀팔, 제비팔 등이 있으며, 심는 시기에 따라서는 아무 때나 심어도 좋다는 두루팔, 보리나 밀 수확 후 파종하는 그루팔이 있다. 익는 시기에 따라서도 40일팔, 50일팔이 있는데 천날거리팔, 순알거리팔로도 쓰이니 그 이름들을 모두 모아놓지 않고서는 '시나리'나 '순알거리'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팥의 배꼽이 크고 희어서 이팔(



쌀팔)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이팔으로 불리는 품종도 있으며, 밀이나 보리를 베기 전에 그 고랑에 심는 대우팥을 경상북도에서는 꿀팥 또는 꿀팔이라고 한다.

팥은 전분이 많아 34% 정도나 되지만 침 속의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의 작용을 받기 힘들어서 소

화가 잘되지 않는 편이다. 단백질도 20% 내외로 많은 편이지만 영양가는 콩의 1/5 정도이다. 팥의 전분은 덩이모양으로 세포섬유에 싸여 있기 때문에 혀에 독특한 감촉을 준다. 삶아도 전분이 풀 모양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했던 떡고물이나 송편의 속 등으로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었다.

팥을 처음 육종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경이며 주곡작물이 아니고 신품종이 많이 육성 보급되지 않아서 우리의 토종은 지금도 곳곳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모양, 색,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품종

최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던 팥의 이름과 팥 품종들은 형태, 이용성, 숙기, 선택, 지명 등을 따서 부른 것들이 대부분이다.

모양에 따라서 붙인 이름은 차돌팔, 왕거리두, 외팔, 이팔, 앵두팔, 세팔, 개미팔, 까치팔, 갈가마귀팔, 제비팔, 개굴팔 등이다. 이용성으로는 진천단팔, 꿀팔, 부루뻔기 등이고 숙기에 따라서는 청원물팔, 시나리두, 조생소두, 조생대립, 유월팔, 시월팔, 양가래팔, 50일팔(신나리팔 : 천날거리팔 → 쉬나리팔 → 시나리팔 → 시나가리팔 → 시나그리팔 → 순알거리팔), 잔슈나리팔, 40일팔 등이 있다.

선택에 따라서는 붉은팥(빨간팥, 적두, 적소두, 적팥), 검은팥(검정팥, 흑두, 묵팥), 흰팥(백두), 노랑팥(황색팥), 갈색팥, 물팔, 색갈쟁이팔, 자청팔, 금수팔, 개구리팔(개굴팔), 갈가마귀팔, 재팔, 차돌

팔 등이 있다. 지명을 붙인 예로는 강원적두, 서산적두, 청원적두, 옥천흑두, 진천그루팔, 영동시나리, 옥천개구리팔 등을 비롯하여 50여 품종이나 된다.

팥은 두류 작물 중 콩 다음으로 우리나라 각 곳에서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다.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지역에 따라 각기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남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개굴팔(또는 개구리팔)'을 경기 북부에서는 '재롱팔'이라 하고 경남 산청에서는 '갈가마귀팔', 충청도 금산에서는 '까치팔'이라고 부른다.

심는 시기에 따라서도 다른 이름이 붙여진다. 보리나 밀, 조를 수확하기 전에 골 사이에 간작으로 뿌리는 팥을 경기도 지방에서는 부루뻔기라고 하며 경상도에서는 꿀팔 또는 대우팔이라고 한다. 또 보리, 밀을 베고 나서 하지 지나 후작으로 심는 것을 그루팔 또는 골팔이라고 한다. 부루뻔기는 크기가 중간 정도인 붉은 팥으로 적두팔이라고도 한다. 부루뻔기는 표준말인 '부룩(울) 박다' 즉, '곡식을 심은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더 심는 팔'이라는 뜻에서 '부룩배기'가 되고 다시 '부루뻔기'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루뻔기는 경기도 연천군

창수면 가양리 김월중(60세)씨가 그루팔인 잣팔(또는 골팔)과 함께 오랫동안 심어 왔다.

가래팔은 조밭에 심는 잣팔인데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의 임정준씨가 대물림으로 심어 왔다. 맛이 좋고 수량이 많아 인기지만 시장에서는 부루뻔기의 인기가 더 좋다. 가래팔 중에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 사는 이창신씨가 재배해 온 물팔이 있는데, 물팔은 알이 굵은 편이며 팥의 껍질 색이 살색이면서 배꼽이 길고 희다. 물팔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창신씨가 물팔을 심어 온 것은 껍질이 흰 편이라 팔고물을 내기가 쉽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팥의 품종 이름은 모양이나 심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발음을 한자로 기록하는 이두식이거나 품종명이 갖는 뜻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 많았으며 시기에 따라 그 표기방법이 변천되었다. 즉 山達伊小豆 → 山達小豆 → 山小豆(산달이팔), 豬排夫蔡小豆 → 燕夫妻小豆 → 燕子扇小豆(제비부채팔), 升伊應同小豆 → 伊應同小豆 → 忍冬小豆(잉동팔) → 生動小豆(생동팔)으로 바뀌어 그 표기 방법이 재미있다. 그 중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팥의 이름은 그루팔, 먹팔, 울팔, 산달팔, 예팔, 재롱팔, 천날이팔 등이 있다.



▲ 덩굴로 자라는_예팔의_모습

팥의 품종은 녹두보다 그 변화가 다양하다. 물론 콩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하다 할 것이다. 팥 하면 붉은색, 재색 아니면 기껏해야 검정색이지, 흰색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다. 낱알 크기가 녹두보다는 다소 크고 팥 종에서는 작은 크기의 동그스름한 모양인데, 색깔은 백색이라기보다는 옅은 살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선대부터 한팥만 심는 김영용씨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의 김영용(49세) 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하얀팥을 고집스레 심는다. 어머니께서 하얀팥을 꼭 심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하얀팥은 붉은팥이나 잿팥보다 팥고름 만들기가 쉽다는 이유이고 둘째는 하얀팥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흔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팥의 낱알 색깔의 변이는 크게 단색과 얼룩빛으로 나뉘는데 단색이 67% 정도로 많다. 단색 중에는 적색, 백색, 녹색, 흑색, 등황색 등인데 적색이 가장 많다. 적색은 전체의 47%이고 백색은 12%, 검정색은 3%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얼룩빛은 적색 바탕에 작은 검은 점, 백색 바탕에 커다란 검은 반점 그리고 회록색 바탕에 작은 검은 점이 있는 것 등이 있다. 농민들이 한결같은 말에 의하면, 붉은 색 큰 팥은 시장에서 값이 비싼 데 비해 맛이 덜하고, 회록색 바탕에 작은 검은 점이 있는 잿팥들은 값은 싸지만 맛이 좋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심는단다.



▲ 강원도 춘천시, 복선면상추곡리의 왕가래팥밭

30년 넘게 검정팥만 고집하는 송병도씨

검정팥은 전국적으로 흔하게 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혹시 팥고름을 내릴 때 껍질이 들어가 검은 색을 띠게 되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다. 전남 보성군 북대면 용동리 내동에 사는 송병도씨는 30년이 넘게 검정팥을 심어 왔다. 검정팥을 '목팥' 이라고도 부르는데, 품종에 따라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송병도 씨가 심어온 것은 팥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 콩알 아래위가 평평한 편으로 각이 졌으며 새까만 껍질에 하얗고 긴 눈이 선명하다.

하얀팥과 검정팥의 중간에는 검은 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경기도 지방의 재롱팥이나 경남 산청의 갈가마귀팥, 흔히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흰 바탕에 작은 검은 점이 많아 잿빛으로 보이는 재팥과 재팥의 색깔과 흰색 껍질색이 큰 부분으로 섞인 잿빛재롱팥 등 3가지 색깔의 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검은색팥과 흰색팥의 자연적인 교잡에 의해 생겨서 오랜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고정된 것들이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덕둔 2리 한상오(70세) 웅이 오랫동안 재배해 오던 재동팥은 검은팥, 잿빛재롱팥, 재롱팥, 잿팥 그리고 하얀팥이 모두 섞여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우리의 재래종들이 농민들 손에서 수백 년을 재배하여 내려오는 동안에 상호 교잡되고 분리·고정·선택된 각종 환경에 순화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 개화기를 맞은 왕가래팥의 모습

야산에서 살아남은 돌팥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에 잘 견디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그 지방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되어 있는 재래종이나 또는 근연 야생종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에는 콩과식물 중 재배종에 가까운 근연 야생종이 드물게 자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콩(*Glycine max*)에 가까운 야생콩이 돌콩(*Glycine soja*)이고, 동부(*Vigna unguiculate*)에 가까운 것이 돌동부(*Vigna sp.*)이며 녹두(*Vigna radiata*)에 가까운 것이 돌녹두(*Vigna sp.*)이다. 그리고 팥에 가까운 것은 돌팥(*Vigna vexillata*)으로 생각되지만 돌팥이 동부에 더 가까운 것인지, 팥에 더 가까운 것인지는 더욱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콩과작물 근연종들은 전국 각지의 냇둑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돌팥은 제주도, 진도 등에도 있지만 충남 서산에서 태안 사이의 인평리 근처의 발둑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재래종 콩을 수집하려고 들어섰던 길목의 발둑에서 우연하게 발견한 것인데 팥보다는 좁은 심장형 잎이 호생

하면서 꼬투리는 팥과 거의 비슷한데 좀 짧고, 종자는 재팥과 비슷한 모양인데 작고 빛이 나지 않았다.

수만 년을 남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남은 끈질김을 본받기 위해서는 재배종인 팥에게 돌팥이 갖는 강인함의 유전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자생팥인 '돌팥'의 자라는 모습

SHOW

다양한 종류의 토종 팥

1 	2 	3 	1. 전남 보성군 북대면 용동리에서 수집된 검정팥은 전국적으로 흔하게 볼수는 없다. 2. 붉은예팥과 흰예팥 3. 가래팥은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에서 재배해온 팥인데 붉은팥보다 맛이 좋다. 4. 말팥(왼쪽)과 외팥(오른쪽) 5. 부루떡기의 여러가지 곡식을 심은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심는 팥. 6. 자생종인 돌팥은 작고 잘무르지 않는다. 7. 50일팥의 여러가지 8. 물팥은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에서 찾은토종팥이다. 9. 노랑팥은 강원도 영월에 서 오랜동안 재배해온 토종팥이다. 10. 50일팥의 여러가지 11. 산달팥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서 오랫동안 재배해온 팥이다. 12. 새대가리팥(좌) 색깔쟁이팥(중), 갈가마귀팥(우)=개굴팥=재롱팥
4 	5 	6 	
7 	8 	9 	
10 	11 	12 	

월동에 대처하는 초보 가드너의 자세 I

추위에 약한 정원 식물의 겨울나기

글·사진 정승환 기자 / 도움말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육종팀 이영순 팀장



▲ 서리가 베나무에 내렸다. 이제부터 겨울의 시작, 식물마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가드너가 할 일은 무엇일까? Photo: ellisholcomremarc.com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들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척박한 환경에 생육하기가 쉽지 않다. 식물의 생육이 힘들면, 가드너가 식물의 종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초보 가드너의 식물 겨울나기, 즉 월동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안내해 본다.



만 나라 유럽의 가드너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연말이 되면 실외 정원의 식물들을 아예 치워버리거나,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월동하게 그냥 내버려둔다. 월동은 저온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물의 겨울나기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일단 추운 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내정원이다. 하우스 어느 곳이든 장소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물의 월동방법은 두꺼운 천으로 휴면하는 식물을 덮어주거나, 햇빛이 비치는 창가나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식물에게 맞는 월동법이 다른 식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수목, 잠복소와 전정이 우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면 정원에 있는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다. 인간과 같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중 추위에 약한 나무는 줄기부분을 짚과 같은 잠복소로 두

르고 끈으로 묶으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 겨울 가로수에 이런 설치를 해두는 것을 종종 봤을 것이다. 잠복소는 지상 1.5m 정도 높이에 입힌다.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 짚 속으로 들어가는데 봄이 되면 잠복소를 벗겨 태워버리면 추위도 막고, 해충도 죽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잠복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 토착 천적들이 국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해충 방제를 떠나서 월동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길 바란다. 또 늦가을은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들은 낙엽이 떨어져 나무의 전체적 수관을 볼 수 있는 계절이다. 이때가 전정하기 좋은 시기로, 전정가위로 불규칙한 가지 교차지 등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실내로 들여놓는 것만으로 월동

실외에서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들도 있다. 개불알꽃, 갯국, 구절초, 금강초롱, 금강화, 금매화, 기린초, 평의비름 등의 다년생들은 노지에 그냥 놓아도 내년 봄이 되면 자연스레 생육이 시작된다. 하지만 노지에서 월동이 안되는 식물이나 분화용으로 키우는 것들은 최소한 난방이 안되더라도 무가온 하우스나, 실내 베란다에는 두어야 월동이 가능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육종팀 이영순 팀장은 “가장 쉬운 식물의 겨울나기 방법은 첫 서리가 오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화분이나 상자 등의 컨테이너에서 주년재배하는 것으로 겨울에 햇빛이 좋은 실내 베란다에 놓아 키우면 된다”고 말했다. 예로 실외에 키우는 라벤다, 로즈마리, 사철썩과 같은 데다가 자라는 목본성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놓는 것만으로 실내온화초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실외정원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겨울 휴면기의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추위로부터 벗어날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실외 식물을 옮기고 나서 첫 몇 달은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실내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내한성 다년생식물은 ‘삼목’

대부분의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들은 저온에 견디기 힘든 비내한성 다년생 식물들도 다수 존재한다. 월동을 위해 실내로 들여놓거나, 삼목, 땅을 파묻거나, 화분에 식재하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물이 규모가 크면 재식할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비내한성 다년생 식물의 월동

방법은 겨울동안 식물을 가지치기하는 삼목법이 좋다. 임파첸스, 베고니아, 제라늄, 콜레우스 등의 여름용 화단을 꾸미는 화훼류들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삼목법은 실내 공간의 효율성과 월동시 발생할 질병이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월동중인 식물을 삼목하면 더 많은 번식이 가능하다.

이듬해 봄에 기온이 오르면 실외로 옮기면 된다.

물론 추운 기온이 계속되면서 식물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생육이 필요한 햇빛을 유지만 시켜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칸나, 다일리아 분갈 등의 구근류, 칼라디움과 구근베고니아 등의 인경(bulbs)류는 겨울에 굴취해서 저장해야 한다.

정원에 조팝나무, 개나리, 쥐뚝나무, 질레, 덩굴성 장미 등의 낙엽성 목본류를 키우는 가드너라면 지난해에 자란 가지의 일부를 삽수로 사용하는 숙지삼을 추천한다.



라벤다의 삼목, 겨울에는 반숙지삽으로 삼목하는 것이 좋다.



볏짚을 이용한 월동 하우스 베타는 벼농사 짓는 농민에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추위에 약한 다년생 식물은 휴면

제라늄과 같은 비내한성 식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월동할 수 있다. 실내로 들여와 강제 휴면시키는 방법이다. 억제휴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겨울철 식물로 가득 찬 실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가드너들이 가드닝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온이 4℃이하로 떨어진다면 화분 안에 식물을 넣어두거나 신문지로 분형근 주위를 싸서 가급

적 그늘에 두면 된다. 이후 토양이 다소 건조한 지 매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스프레이로 물을 준다. 서리 맞을 위험에 벗어난 봄에 따뜻한 양지의 실외로 이식하고 관수하면 된다. 물론 관리 중간에 주변 환경을 맞춰주어야 하지만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부분의 비내한성 다년생 식물들은 스스로 휴면기를 갖지만 가드너의 관리가 필요하다. 두꺼운 천으로 멀칭하거나, 온상 또

는 온실로 이동시켜 이식하는 것이다. 구근베고니아, 아마릴리스, 칸나 등과 같은 춘식 구근류는 실내로 들여놓기 전 서리를 맞은 후 굴취해야 한다. 겨울이 온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휴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는 베란다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들에게 실용적인 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

How to

겨울을 이기는 빠른 제라늄 삼목법

1. 준비해야 할 것은 제라늄, 용기, 칼 등이 있으면 된다.

2. 제라늄의 줄기를 커팅한다. 절간 아래를 자르고 신초가 양분용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식재할 삽수 절간 밑의 잎들은 제거해서 양분의 낭비를 막는 것이 좋다.

4. 제라늄의 튀어나온 모서리를 자르는 이유는 삽수가 쓰러지지 않고 쉽게 세울 수 있다.

5. 준비된 삽수를 잘 갖는다. 삽수가 쓰러지지 않는 제라늄의 효과를 특별히 보게 된다.

6.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 놓으면 몇 주 지나면 뿌리가 자란다. 어느정도 자라면 화분에 옮겨 심는다.

가을 겨울 정원수 관리

때를 놓치면 망친다



글·사진 김광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前겸임교수(현 외래교수)



조경식물의 재배 포인트는 적기 식재와 관수,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제초, 배수관리, 전정 등 적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부가 잡초를 보지 않고 밭을 매는 것을 상농이라고 하고 잡초를 보고 매는 것을 중농, 잡초를 보고도 매지 않는 것을 하농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농법을 말해주고 있다.

‘식물의 제일 좋은 거름은 주인의 발자국’이라고 했다. 식물을 제대로 재배하려면 ‘식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땅은 정직하다’와 같은 불멸의 진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가 주식(主食)으로 하는 벼, 보리 농사도 실기(失期)하면 망친다. 정원수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작업을 제때에 실시해야 좋은 수형, 초형, 그리고 규격화된 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뭄과 냉해, 동해 대책을 세워라

가을 겨울 정원수 관리는 다가올 겨울과 이듬해 봄철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관리, 금년 성장기 동안 수세 불량목 위주의 관리, 병해충 피해목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을 가뭄은 특히 많은 나무들을 말라 죽게 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미리 미리 관수해야 한다. 관목들은 표면 관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큰 나무는 드림 관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온대지역의 목본식물들은 가을에 일장이 짧아지면서 온도가 하강하면 생장을 정지하고 저온에 대한 적응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저온

화(低温順化 : cold acclimation)라고 한다. 저온 순화가 안된 수목은 빙점 이상의 찬 온도에서 냉해(冷害 : chilling injury)를 입고, 빙점이하에서는 동해(凍害 : freezing injury)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은 추비(追肥)를 시용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냉해나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클라우드커버(cloud cover) 등 수분증발억제제를 살포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11월부터는 배롱나무를 피복해 주고 수관하에 왕겨(돈분을 섞어 발효한 것), 바크(Bark), 우드칩(woodchip) 등으로 10cm 정도의 멀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미 활착된 소나무나 곰솔은 피복해 줄 필요가 없다.



▲ 잘못된 지주목



▲ 소나무 가을철 가뭄피해

가을 전정은 가볍게 해준다.

■ 향나무류 전정 : 가능한 가을철 전정이 좋으나 대개 12월~1월에 하는 경우가 있다. 동계전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있지만 향나무류 중 특히 가이썬까 향나무는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없으나 중부지방은 월동 후 자른 부분이 동해를 입어 빨갛게 변하여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때를 놓쳤으면 월년하여 2~3월에 하는 것이 좋다.

■ 철쭉류 전정 : 철쭉류는 중간 중간에 도장되어 솟아 오를 것만 자르면 된다. 간혹 10월~11월에 철쭉류를 전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을 전정은 봄에 꽃을 볼 수 없게 한다. 철쭉류는 꽃이 지자마자 자르고 싶은 부위에서

잘라주고 자른 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 주목 전정 : 소형 주목은 봄철 새순이 나와서 굵어지기 전에 깎아다듬기(Shedding, Trimming)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을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완전 목질화가 된 다음에 자를 경우에는 수형이 불량해 미관이 좋지 못하다. 때를 놓쳤다면 가을철이라도 바로 잘라주어야 한다.

■ 소나무 전정 : 소나무는 여름철에 자라난 도장이나 혼잡한 가지 등을 가볍게 잘라주는 정도로 실시한다. 먼저 나무 밑에서 윗가지들을 보아 경쟁자, 교차지, 역지, 상수지, 하수지, 고사지, 이병지 등을 관찰한 후 큰 가지부터 정지한다. 나머지

“

가을 겨울 정원수 관리는
다가올 겨울과 이듬해
봄철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사
전 준비 관리, 금년 성장기 동안
수세 불량목 위주의 관리,
병해충 피해목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불필요한 가지를 전제전정한 후 외형은 가지가 마치 손바닥을 펼치는 모양이 되게 전정한다. 겨울철 목질로 가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길게 늘어진 가지를 2/3부위에서 연정지를 남긴 상태로 분지점에서 잘라주면 된다. 외형의 수형은 낙낙상형이 되어야 소나무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다.

■ 낙엽수 전정 : 왕벚나무, 산벚나무, 이팝나무, 목련, 백목련, 살구, 매실, 산수유 등의 열지, 동지, 내한지(교차지, 역지 포함), 경쟁지, 도장지(수형밖으로 우뚝우뚝 솟아나온 가지) 등을 정리·전정할 필요가 있다. 작업여건이 안되면 내년 2~3월에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기타 가을 관리

■여름철에 설치한 지주목을 재점검하여 침묵된 지주목에 의거 수피가 상하지 않았는가 살펴본다. 수간에 코코넛이나 녹화마대 같은 얇은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꺼운 부직포를 2~3겹 감은 후 재설치하고 가능한 지주목의 침묵 부위에 고무판을 붙이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최근에 새삼, 미국실새삼이 발생하여 개나리, 아생화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발견 즉시 마디 하나 떨어지지 않게 100% 제거하여 소각해야 한다.

■연못이나 호수에 띄운 부레옥잠화는 서리를 맞으면 바로 수거하는 것이 좋다.

■불두화, 백당나무는 잎이 떨어지자마자 굵어내어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대로 두어 비를 맞으면 지독한 인분 냄새가 난다.

■배롱나무와 장미 등은 월동을 위한 파복을 해야 한다. 기상이변이 심해 예측할 수 없는 냉기류가 불어 닥칠 수 있으므로 11월까지의 완료하는 것이 좋다.



▲ 철쭉 잘못 전정한사례



▲ 갈색퍼짐병



▲ 미국실새삼



▲ 감나무 깎지벌레



▲ 솔잎혹파리 피해

가뭄과 냉해, 동해 대책을 세워라

가을 겨울 정원수 관리는 다가올 겨울과 이듬해 봄철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관리, 금년 성장기 동안 수세 불량목 위주의 관리, 병해충 피해목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을 가뭄은 특히 많은 나무들을 말라 죽게 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미리 미리 관수해야 한다. 관목들은 표면 관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큰 나무는 드림 관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온대지역의 목본식물들은 가을에 일장이 짧아지면서 온도가 하강하면 생장을 정지하고 저온에 대한 적응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저온순화(低温順化 : cold acclimation)라고 한다. 저온

순화가 안된 수목은 빙점 이상의 찬 온도에서 냉해(冷害 : chilling injury)를 입고, 빙점이하에서는 동해(凍害 : freezing injury)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은 추비(追肥)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냉해나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클라우드커버(cloud cover) 등 수분증발억제제를 살포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11월부터는 배롱나무를 피복해 주고 수관하에 왕겨(돈분을 섞어 발효한 것), 바크(Bark), 우드칩(woodchip) 등으로 10cm정도의 멀칭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미 활착된 소나무나 곰솔은 피복해 줄 필요가 없다.

병충해 방제, 예찰이 중요하다

■ 철쭉 갈반병(septoria azaleae) : 대개 7월부터 발병하여 초가을부터 겨울동안에 심하게 나타나는데 엽맥을 경계로 하여 다각형의 갈색 반점이 생긴다. 5~9월까지 만코제브 수화제를 강우 시 소강상태를 보아 집중적으로 월 2회 정도 살포한다.

■ 배롱나무 흰문엽고병(Cristulariella moricola) : 잎에 회색의 원형반점이 생기며 병반은 동심문상의 무늬가 나타난다. 병반 이면에는 피라미드형의 균체가 다수 생긴다. 6~9월에 동수화제를 2~3회 살포한다.



▲ 명품 소나무

■ 소나무 적반 엽고병(Dothistroma pini) : 9월경부터 신초의 잎에 작은 회녹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가지가 말라죽게 된다. 월동 후에 봄철에는 가지의 수피가 터지면서 흑색소립점이 나타난다. 5~6월경부터 코퍼하이드록사이드수화제(쿠퍼, 코사이드)나 만코제브수화제(다이센엠-45, 만코지), 클로로탈로닐수화제(다코닐, 금비라, 새나리)를 월2회 살포한다.

■ 리기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송진가지마름병 : Fusarium circinatum) : 병원균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자강균류에 속하며 주로 1~2년생 가지에 발생하며 감염된 가지의 잎은 갈변하여 고사하고 가지는 많은 송진이 흘러나오기도 하여 끝자락이 꺾여지기도 한다. 2/3이상의 가지가 전염되었으면 미연 없이 제거하는 것이 좋고 특별히 수형이 좋은 나무는 3~4월이나 9~10월에 터부코나졸(바이칼) 유탁제원액을 황고직경 10cm당 5ml를 수간 주사한다. 이병은 가뭄이 극심할 때나 수세가 약할 때 잘 발생하므로 관수나 관주를 철저히 하고 소나무 종둥이 가해하지 못하도록 봄 또는 초가을에 터부코나졸유탁제를 3~4회 뿌린다.

■ 솔잎 혹파리(Thecodiplosis japonensis) : 5~7월에 토양 속에서 나와 소나무나 곰솔에만 기생하며 성충은 솔잎 속생부위 기부에 산란하여 충형을 만들고 유충이 흡즙하므로 8월경에 건

전엽에 비하여 1/2~1/3정도로 길이가 짧다. 다자란 유충은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까지 땅으로 낙하하여 월동한다. 그러나 낙엽되지 않은 기부혹속에서 월동하는 것도 있다. 큰나무는 5~6월에 포스파이돈액제(포스팜)를 수간주사하거나 작은 나무는 페니트로티온유제(스미치온)를 2~3회 살포한다.

■ 솔껍질 깎지벌레(Matsucoccus thunbergia-nae) : 4월 초순~5월 중순에 산란하고 부화약충은 5월초순부터 6월 중순사이 부화한다. 11월이 되면 구형의 왁스층을 뚫고 후약충이 나타내는데 이때 이동을 하면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이때 적갈색을 띠면서 고사된 나무는 7~9월에 벌채하여 제거하고 부분피해를 입은 나무는 4~5월에 메티타티온유제(수프라사이드)나 페니트로티온유제(스미치온)를 7~10월 간격으로 3~5회 살포하거나 12~1월 중순 포스팜으로 수간 주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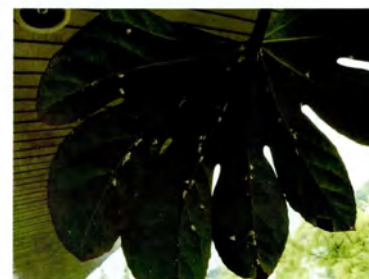
■ 기타 가을건조시에 응애류가 발생하는데 펜피룩시메이트 액상 수화제(살비왕), 페니자퀸액상수화제(보라매, 응애단), 데부펜피라도(피라니카)등을 1주일 간격으로 연속하여 2회살포하고 농약을 바꾸어서(교호살포)하고 응애는 잎의 뒷면을 살포하여야 한다. 반드시 응애류 전문약제인 상기 살비제만 살포한다. 낙엽수가 잎이 떨어지면 얼기 전이나 봄의 눈이 트기 전에 기계유제를 살

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때 상록수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매실, 살구나무, 복숭아, 뽕나무, 감나무 등에는 깎지벌레류가 극성을 부린다. 메티타티온유제(수프라사이드), 페니트로티온유제(스미치온), 디메트에이드 유제(로고, 록슨)등을 살포한다. 낙엽이 지면 기계유제가 효과적이다.

■ 한국잔디(들잔디, 중지 등)는 갈색퍼짐병(Large patch), 봄마름병(춘고병 : Spring dead spot)을 예방하기 위해 토로수 수화제, 펜시쿰 수화제, 터부코나를 유제 등을 살포한다. 그리고 필요시 배토도 한다. 한지형잔디(벤트그래스, 캔터키, 블루그래스 등)는 황색 마름병(Yellow patch)을 예방해야하는데 디페노코나를 · 폴리옥신디 수화제, 메트코나를(액상)등을 살포하고 특히 벤트그래스에 발생하는 달러스팟(Dollar spot)에는 이프로 수화제가 효과적이다.

■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작업은 식양목이나 특별 관리 대상목 등은 낙엽이지기 전에 유색 테이프를 줄기에 감아 표시하였다가 농한기에 관리작업을 해야 하고 새포아풀이 11월 중순까지 종자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씨 맺기 전에 뽑아주어야 한다. ■



▲ 발손이송 깎지벌레



▲ 사철깎지벌레

추위야 물러가라

화초들의 겨울 보금자리 온실

글 소순복 기자



▲ 정원용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사진 : 시티팜에코)

겨울이 성큼 다가오니 가드너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화초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냉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된다. 그렇다고 뽕족한 대안도 없다. 베란다 또는 실외 식물을 모두 실내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 온실 설치에 관심을 쏟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비용도 그러려니와 그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니 뚜렷한 확신도 없다. 겨울용 온실, 그 효과는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온실은 추위에 약한 관상식물을 월동시키거나 겨울 재배를 하는데 필요한 보호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의 온실은 난방시

설을 갖춘 유리온실이다. 단순히 채광이나 보온을 위해 유리나 비닐을 씌우는 것만으로는 온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3℃정도 오른다 하니, 여기서는 온실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하자. 온실의 종류를 나눌 때도 건축 재료에 따라 목조(木造)온실, 철조(鐵造)온실, 반철조(半鐵造)온실, 알루미늄온실 등으로 구분하지만, 본지는 판재로 온실을 구분, 그 효과를 비교 분석 평가했다.

폴리카보네이트 | 경제적인 가격의 조립식 온실

장점 : 무게가 유리보다 가볍고,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길다. 강도는 유리의 250배, 아크릴의 8배로 높고, 견고하다. 평당 비용은 70~80만원으로 유리에 비해 저렴하나 비닐온실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조립식이다. 이중구조로 보온효과가 높다.

단점 :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변형의 우려가 있다. 시간(수년)이 지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긁히면 상처가 남는다. 비가 오면 소음이 발생한다. 고급형 조립식은 3평 기준,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도 한다.

평가 : 가정용 온실로 유리라 비닐의 장단점을 절충한 중간 단계의 제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폴리카보네이트가 대세라는 것이 시공업체의 설명이다.



▲ 폴리카보네이트 벽면온실 (사진 : 프리미엄 디자인)

비닐 | 저렴하고 제작 간편한 대중적 온실

장점 : 가장 일반적인 온실 유형이다. 가격이 일반 유리온실 대비 2/5정도이며 개인이 설치할 장소(베란다, 텃밭, 옥상, 하우스내 등)와 사용목적(식물보온용, 동물보온, 농막용 등)에 따라 프레임의 아치형, 지붕형 등으로 다양하게 주문 제작할 수 있다. 매뉴얼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다.

프레임은 스텐리스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수명은 평균 4~5년 이상이다. 비닐 커버는 일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는 PE(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하나 비닐온실에서는 햇빛투과율이 높고 비교적 두꺼운 PVC원단을 사용하여 지퍼를 달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고, 보온성과 편리함도 높이고 있다.

비닐온실은 봄과 가을 겨울은 보온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여름철은 차광망이나 부직포를 사용하여 반그늘을 만들어 식물성장에 필요한 적당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점 : 대중적인 반면 고급스러움은 없다. 수명이나 단열 효과가 폴리카보네이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강풍이나 폭설 시 안정감이 떨어진다.

평가 : 저렴한 설치비, 간편한 조립, 다양한 프레임 구성 등의 장점이 돋보인다. 가정용 온실로 가장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온실로 평가된다. 여름철 지나친 직사광선을 피해주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유리 | 고급 주택 및 전문 전시실에서 선호

장점 : 유리는 비싼 만큼 고급스럽고,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다. 보는 즐거움이 있고 깨끗하다. 부유층의 고급주택이나 고소득 작물 재배, 식물원 등의 전문 전시실에서 주로 시공한다. 햇빛 투과율이 높고, 비가 와도 소음이 없다.

단점 : 시공비가 비싸다. 시공비가 평당 1백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햇빛 가리기 시설만도 400만원 이상이다. 잘 관리하면 영구적인 수명이지만 파손 위험이 있다. 단열 효과는 높지 않다는 평가다.

평가 : 시공비 대비 파손 우려가 있고, 단열 효과는 높지 않다. 일반 가정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소형 제작은 타산이 맞지 않아 10평 이상의 규모에서 제작 시공해 주는 곳이 많다. 비싼 시공비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최근의 경기 침체는 유리 온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공업체의 설명이다.



▲ 정원용 유리목조형 온실(사진 : 그린21)



▲ 가정용 비닐온실 (사진 : 에덴식물 지지대)

지오톨하우스 | 견고하고 단열효과, 예술미는 덤

지오톨하우스는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온실이다. 축구공과 같은 5각 6각형의 구조물로, 프레임의 길이가 1m내외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연결해 압력을 분산시키는 원리를 이용했다. 폭설과 강풍에 강하고 견고하다. 길이가 짧아 설치 및 운반이 편리고, 골조 알루미늄을 사용해 녹이 슬지 않고 튼튼하다. 둥근 형태로 공기 순환이 잘되어 단열 효과도 뛰어나다. 파이프에 색깔을 입혀 시각적 인테리어 효과도 추구할 수 있다. 수명도 반영구적이다.



비닐 vs 유리 vs 폴리카보네이트 비교

구분	비닐 온실	유리 온실	폴리카보네이트(복층판)
단열성	낮음	낮음	높음
무게	가벼움	무거움	조금 무거움
비용(평당)	20~50만원	150~250만원	70~80만원
수명	2~3년	영구적(바순우려)	10년 이상

온실 설치 장소 및 관리 요령 | 햇빛이 잘 들고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설치

일반적으로 온실은 온도, 습도, 광선 및 통풍 등의 조절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온실은 햇빛이 잘 드는 건물의 남쪽이나 남동쪽이 좋고, 북향은 피해야 한다. 정원의 나무가 겨울 햇빛을 가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배수도 잘되어야 한다. 온실을 주변보다 높은 곳에 지어 빗물과 관개용수가 잘 빠지도록 하고, 사람이나 도구의 온실 출입도 편해야 한다. 자체 창고와 온실과

의 거리도 가까우면 좋다. 통풍도 중요하다. 온실의 창문은 환기 및 통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기가 들어오는 열창과 공기를 내보내는 천창을 설치하여 식물의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병충해 발생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물 관리 시스템은 자동으로 설치해 놓으면 편리하다.



온실 효과를 높이는 방법 | 단열재 및 열전구로 보온 효과 UP

옥상, 베란다와 같이 지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는 바닥에 스티로폼과 은박시트지 등을 깔고 그 위에 칼라보온덮개를 덮어 주어 바닥의 한기를 차단할 수 있다. 방수를 위해서는 바닥에 타포린(천막지)이나 일반 비닐을 한 장 시공하면 좋다. 난방용품으로는 자동온도조절기에 열전구나 히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절전효과가 크며, 아간에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열전구와 히터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열전구는 겨울철 부족한 태양광을 보충할 수 있으며, 온실의 크기에 맞추어 185와트와 250와트를 선택하고, 필요한 개수를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동온도조절기에 달린 센서봉은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것으로 열전구나 히터 등에 너무 가까이 두면 정확한 온도를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열원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지붕이 둥근 경우에는 온실 내부 중앙에 대형 물통을 놓으면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태양의 반대편인 북쪽 방향에 은박지나 오목거울을 장착하면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원리를 이용해 열을 축적할 수 있다.



조립식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정보

- 고급형 온실은 사이즈 변경이 불가능한 완성형 제품.
- 1.2mm 두께의 알루미늄 프레임 - 튼튼한 프레임 구조 및 베이스 접합을 위한 각종 홈 제공
- 마감 - 쉽게 부식되지 않는 코팅처리.
- 부드러운 슬라이딩 도어 적용 - 내부 출입을 개폐방식의 2개의 도어 적용.
- 지붕 환기를 위한 개폐 장치 - 총4개 (좌우 각2개씩) 의 개폐장치 제공.
- 6mm 두께의 폴리카보네이트 - 반투명.
- 설치 시간 : 3사람이 조립시 약 3~4시간 소요.



비닐 온실 설치 방법

비닐온실은 말뚝(뿔)을 사용하여 지면에 쉽게 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cm 정도의 말뚝을 사용하나 지면이 무른 경우 40cm 정도의 말뚝을 사용하여 기둥사이의 바닥에 부착된 말뚝고정링을 사용하여 지면에 고정한다.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 앵커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등으로 바닥프레임을 고정하면 좋다. 하우스가 작은 경우 무거운 물(화분, 산탄 등)등으로 눌러 고정할 수 있고, 바닥이 데크 등 나무인 경우 고정용 새들을 사용하여 나사를 박아 고정한다.

준비물 : 십자드라이버, 펜치, 줄자, 망치, 안전장갑

주의사항 : 처음 조립시 볼트와 너트는 기본적인 모양을 잡기 위해 느슨하게 조인다.



1. 전후면 바닥프레임과 좌우 바닥 프레임을 조립하여 바닥 사각프레임을 완성한다.
2. 전후면 기둥프레임과 가로 보강대를 조립한다.
3. 모든 프레임의 조립이 끝난 모습.
4. 보온 비닐을 로프를 사용하여 프레임과 일체가 되도록 엮어준다.
5. 바닥에 방수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과 은박시트지, 칼라보온덮개를 덮어 주어 바닥의 한기를 차단한다.



온실 시공 업체

- Green 21(폴리카보네이트, 목조형유리온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24 4층
문의 : 0505-570-5704 / 010-4703-4000
홈페이지 : <http://www.green-21.net>

○ 에덴식물지지대(Eden Plant Support- 비닐온실)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50-4번지
문의 : 070-7622-8484 / 010-4567-8007
홈페이지 : <http://www.edps.kr>
- 프리미엄디자인(PREMIUM DESIGN-폴리카보네이트 조립식온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서울프라자 215호
문의 : 032-666-6211 / 010-6488-6100
홈페이지 : <http://premium-design.co.kr>

○ 지오톨하우스 (GeoDome House-비닐온실)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로 137
문의 : 010-9870-0533 / 070-7520-0533
홈페이지 <http://geodomes.kr>
- 아인테크(유리온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1-7 200호
문의 : 02-419-7942 / 010-8705-0533
홈페이지 <http://aintech.com>

○ 시티팜에코(폴리카보네이트 조립식온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7-1 석정빌딩 3층
문의 : 02-3431-4295 / 010-9530-2182
홈페이지 <http://cityfarm-eco.co.kr>

외면 받는 겨울 새집

봄 번식기엔 날아든다

글 소순복 기자/ 도움말 및 사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김대환 회장, 오수환 (구정의 새집 blog.daum.net/gujung)



초가를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사람이나 식물이 월동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계절이다. 비단 이틀뿐이겠는가. 정원에 있는 새들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새집을 만들어줘야겠다는 데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이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취재계획임을 뒤늦게 알았다. 새들에게 겨울에 필요한 것은 새집보다는 '먹이'였다.

새들에게 집은 무엇일까. 보금자리. 안식처. 피난처. 휴식처. 그러나 새집의 주요 용도는 이것이 아니다. 새집은 새들의 쉼터라기보다는 알을 품기 위한 포란실 역할이 가장 중요한 쓰임새이다. 그래서 겨울이 아닌 4~5월인 봄 번식기나 2차 번식기인 7월말 8월 중순경에 필요한 공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집을 겨울에 제작하는 것은 봄 번식기를 준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무지한 기자를 일깨워준 전문가는 김대환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생물 교사. 그는 기자와 같이 조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일깨워주고, 탐조를 대중문화로 발전 정착시키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는 인천야생조류연구회(cafe.daum.net/ibirds)의 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 회장이 밝히는 잘못된 조류 상식은 생각보다 많았다.



집 옆에 이불솜 정도를 매달아 놓는 것은 권장만하다. 솜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들은 직접 만들기를 좋아한다. 매달아 놓은 솜과 나뭇가지, 이끼 등을 물어다 새들은 자신만의 동지를 만드는 것이다.

새의 크기에 맞게 새장 출입구도 다르게 제작한다?

인조 새집 제작 시 출입구의 사이즈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새들은 자신에 맞는 동지를 완성할 줄 안다. 구멍이 작으면 부리로 쪼아 넓힐 줄 알고, 구멍이 넓으면 진흙을 물어다 구멍을 메꾸기도 한다. 새의 이러한 습성 때문에 새의 종류에 따라 출입구 사이즈를 정해야 한다는 고민은 필요 없다. 단 새집을 제작 시 앞편은 조금 얇은 나무를 사용하면 좋다. 구멍을 넓히거나 좁히는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나무는 방부목을 추천한다. 나무는 비를 맞으면 변형될 수 있어, 리스를 칠하거나 방부목을 권한다. 설치시 철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스프링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철사는 나무로 파고들어가 나무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면이 넓은 케이블타이드 좋다.

새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은 나무 위 새집을 선호한다?

인조 새집의 설치 장소로는 사람의 키 높이가 적당하다. 1m50cm~2m 정도. 종종 높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새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새들이 불안해 한다. 새들이 그곳으로 날아들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새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나 위치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연구 자료는 없다.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노출된 새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천적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습도가 너무 높거나 일조량이 지나치게 많은 장소도 기피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곳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위적인 천적들의 접근을 방해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한다.

새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새들은 목욕을 좋아해'

이외에도 김 회장은 새들의 습성을 잘 관찰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새들이 2,3월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는 사실도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새들은 몸에 진드기가 많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는데, 새장 옆에 물을 담은 접시를 놓아주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채나무로 심으면 새들과 함께하는 정원 완성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들깨. 겨울철 먹이대에 놓으면 새들의 겨울나기에 훌륭한 식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개발한 버드 케익 역시 새들이 좋아한다. 쇠기름(소트닝)과 밀가루 들깨 등을 배합한 고형의 먹이이다. 또 새들이 날아드는 정원을 꿈꾸다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유실수를 정원에 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했다. 사람이 좋아하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수가 아닌 새가 좋아하는 유실수는 따로 있다. 그 대표적인 나무로 말채나무를 꼽을 수 있는데, 쓴맛이 강하지만 새들은 좋아한다고 한다. 다양한 유실수를 심어 사계절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도 새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정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새집은 새들의 겨울 보금자리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집은 새들의 번식기에만 필요한 포란실이다. 포란실이란 새가 알을 품는 장소로 새들은 새장에서 알을 품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그곳을 떠나게 된다. 동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천적에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 새들의 휴식 장소는 실내가 아닌 야외. 새들에게는 나뭇가지 위가 바로 최적의 쉼터인 셈이라고 한다. 겨울철 새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이가 놓여진 먹이대이다. 먹을 것이 없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새들에게 인조 동지가 필요하다?

새들에게 인조 새집은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인조 새집은 정작 사용자인 새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새집은 새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낳은 부산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새집은 정원에 공간 예술미를 더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테리어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 새들은 스스로 동지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훨씬 통풍이 잘되고 견고하게 만든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동지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고목나무 구멍이 동지로 활용되기도 하고, 벽돌 틈이나 처마 밑, 심지어는 쇠파이프 속에서도 번식한다.

새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인조 새집의 경우처럼 새들은 사람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새집을 만들어주고, 나뭇가지를 깎아다 새집 속 인테리어까지 해주는 사람들의 과잉 친절은 오히려 새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다. 새

인조 새집에 동지를 틀만한 새

일명 뱀새로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정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이다. 박새나 참새, 오목눈이, 곤줄박이, 직박구리 등도 사람이 사는 곳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새들이다. 따라서 번식도 인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원에 인조 동지를 설치한다면 번식이 가능한 새들이 다, 대체로 참새 정도의 크기이고, 번식기는 4~5월, 육추(새끼키우기)를 할 때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다.

곤줄박이

학명 : *Parus varius*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참새과
서식장소 : 낙엽활엽수림, 잡목림



특징 : 낙엽활엽수림, 잡목림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그 이후에는 작은 무리를 형성한다. 나무 위의 생활이 주가 된다. 동지는 나무 위나 건물 틈에 이끼류를 사용해서 바깥쪽 모양으로 만든다.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에서 뒷목까지 검은색으로 뒷마리와 뒷목 사이에는 크림색의 세로선이 있다.

참새

학명 : *Passer montanus*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참새과
서식지 : 시가지, 인가, 갈대밭, 풀밭, 농경지



특징 : 시가지, 인가, 갈대밭, 풀밭과 농경지 등에서 관찰되며 번식기에는 주로 곤충류를 먹지만 비번식기에는 벼나 풀 씨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텃새이며 돌 틈, 오래된 나무 구멍, 처마 밑 등에서 번식한다. 동지는 주로 마른풀을 이용하여 만든다.

붉은머리오목눈이

학명 : *Paradoxornis webbiana*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오목눈이과
서식지 : 관목 또는 풀숲



특징 : 흔히 뱀새라고도 한다. 동작이 재빠르고 움직임 때 긴 꼬리를 좌우로 쓸듯이 흔드는 버릇이 있다. 번식기 이외에는 보통 30~50마리씩 무리지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끄러운 정도로 움직인다. 동지는 농가 울타리 안에도 들지만 흔히 관목이나 풀속에 튼튼하게 튼다. 한국에 흔한 텃새이다.

딱새

학명 : *Phoenicurus auroreus*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딱새과
서식장소 : 도시 변두리, 농촌 정원, 인가 근처



특징 : 도시 변두리나 농촌의 정원과 인가 근처 등에 서식하며 나무 구멍, 오래된 집의 처마 밑, 쓰러진 나무 밑, 바위틈 등에 이끼류나 나무껍질 등으로 오목한 동지를 만든다. 한국 전역에서 흔히 번식하는 텃새로, 수컷은 머리꼭대기와 뒷목이 회색이다. 암컷은 허리와 바깥 꼬지깃이 황갈색이고 가운데 꼬지깃은 갈색이다.

오목눈이

학명 : *Aegithalos caudatus*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오목눈이과
서식지 : 평지, 산의 숲



특징 : 오목눈이는 평지 및 산의 숲에 서식하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우리나라는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로, 흔히 박새류와 혼성집단을 이루어 활동하기도 한다. 꼬리가 몸보다 유난히 길다. 날개 깃은 검은색과 흰색이며 배는 흰색을 띤다. 꼬지는 검은색이고 바깥 꼬지깃은 흰색이다.

박새

학명 : *Parus major*
생물학적 분류 : 척삭동물문 > 조강 > 참새목
박새과
서식지 : 평지 또는 산지 숲, 나무가 있는 정원, 도시공원



특징 : 4~7월에 나무구멍, 처마 밑, 바위 틈, 돌담 틈 또는 나뭇가지에 마른 풀줄기와 뿌리·이끼 등을 재료로 동지를 틀고 한배에 6~12개의 알을 낳는다. 특히 인공 새집을 좋아해서 크기만 적당하면 정원에서도 동지를 틀고 새끼를 기른다. 번식기가 지나면 무리생활을 하는데 쇠박새, 진박새, 오목눈이 등과 섞여 지낸다.

귀농인 공명재씨의 새집 만들기

경남 통영에서 귀농하여 함양에서 오미자 농장(님과함께 blog.naver.com/adam7720)을 운영하고 있는 공명재씨가 새집 만들기에 나섰다. 자칭 기백이(강아지 이름) 아빠로 불리기를 희망하는 공씨는 주말이면 이런 저런 정원 소품들을 만들곤 한다.

전직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했던 재주를 살려, 정원 소품뿐만 아니라 벤치, 파고라, 지하차장까지 직접 제작하고 있다. 그에게 새집 만드는 것쯤은 그리 힘든 작업이 아닌 듯, 툭툭툭툭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된다. 원목으로 예쁘게 도색까지 해서 완성한 새 동지는 집 앞마당에 있는 밭나무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입주할 새만 날아들면 된다. 봄이 오면 그곳에 누가 동지를 틀까.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소풍갈 날을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나 2014년 봄은 게으름을 피우며, 더디게 올 것 같다. 그에게만큼은 특히...

How To

준비물 - 판상지(가구만들 때 사용), 사포(600방, 220방), 수성스테인, 스펀지, 스텐실재료, 나뭇가지, 공구 - 각도기, 전기드릴, 직소기(전동공구)



1. 집을 설계하듯 새집 만들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크기를 정해 밑그림을 그린다.



2. 왼쪽은 새집의 바닥부분이고, 오른쪽은 새가 드나들 입구. 입구는 전동공구를 사용해 천천히 예쁘게 절단한다.



3. 새집 조립 시작. 앞면과 바닥 부분을 연결한다.



4. 새집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 모습. 이제 지붕만 올리면 된다.



5. 초립된 모습. 220방 다소 거친 사포로 새집의 입구와 모서리를 매끈하게 다듬어 준다. 도색전 다시 600방 고운 사포로 전체를 문질러 준다.



6. 나뭇가지로 지붕 대들보를 연결하고, 새가 날아와 있을 수 있게 입구 쪽에 나뭇가지 하나를 덧붙여 장식.



7. 이제 새집에 색을 입힐 차례. 지붕은 검은색, 나머지 면에는 빨간색으로 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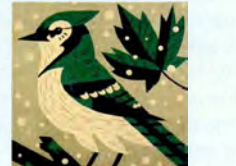
8. 데코레이션을 더해 새집 완성.



9. 내친김에 입구를 동근형으로 한 2, 3호 새집도 제작했다.



10. 완성된 세 개의 새집.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 마음에 든다.



남반구의 블루오션, 토착식물 매력에 빠지다

글·사진 박공영 우리꽃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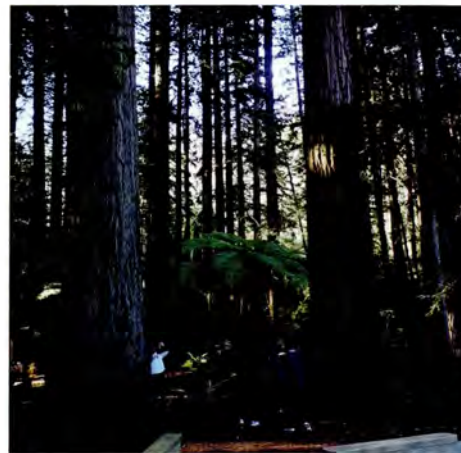
호주와 뉴질랜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바로 그들의 정원과 생활화된 꽃 문화다. 해외 꽃 시장 개척의 블루오션 무대이자 우리나라의 꽃 문화를 돌아볼 지표이기도하다. 필자는 지난 10월2일 민간육성가 자격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한 년 화훼분야 민간육성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일 출발해서 9일 돌아오는 7박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농가와 식물원, 농산물, 화훼시장 등을 견학할 수 있는 뜻 깊은 연수였다. 지난 2007년 11월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막연히 여행의 설렘 그 자체였다면 이번 여정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성과도 얻었다. 단순한 견학을 떠나 육성 전문가들과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방향성과 시각을 토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찾는 좋은 계기였다. 한마디로 보고, 느끼고, 깨달는 삼위일체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자, 이제 보통사람들이 아는 '초원의 나라' 뉴질랜드와 호주로의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자.

한반도와는 정반대인 남반구의 이색 생활문화

두 나라의 계절은 우리와는 정 반대다. 우리는 지금 완연히 가을에 접어들어 날씨가 쌀쌀해졌다. 겨울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호주는 초여름의 경계에 와 있다. 생활방식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방향이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집을 짓는 게 기본이다. 이것은 햇볕을 잘 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 나라의 집은 북향이 기본이 된다. 남반구의 하늘은 북쪽에서 해가 동에서 떠 서해로 지는 것은 북반구와 동일한데 우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북쪽으로 기울어진 하늘에서 해가 비쳐진다. 따라서 만약 좋은 집을 지을 때는 우리와는 반대로 북쪽하늘의 전망과 경사를 중시한다.

운동장 트랙을 돌 때에도 우리는 왼쪽을 끼고 돌지만 이들은 오른쪽을 끼고 돈다. 만약 남반구에 많은 나라가 분포하고 선진국이 많았다면 올림픽의 육상경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차들의 도로주행도 우리와 달리 왼쪽이고, 핸들 방향도 반대이다. 전기 스위치는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 전원을 끄기 위해 우리는 스위치를 내리는 반면 그들은 올린다. 계절 차이도 대비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봄과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다. 이들 모두 건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밤에는 약간 쌀쌀하고 낮에는 약간 덥게 느껴졌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청개구리 같은 현상이다.



▲ 뉴질랜드 레드우드 수목원 : 조림에 의한 산림수목원으로 겨울추위가 심하지 않아 나무의 자람이 빠르고 나이가 없는 특성이 있다. 나무의 자람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빠르다.

환경적 차이가 낳은 토착식물의 신비와 충격

자연과 지리적 차이는 당연히 동식물의 종류도 다르게 했다. 이는 필자를 당황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다. 필자는 식물 분류를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그레도 식물을 많이 안다는 나름 전문가 축에 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호주의 자연은 나의 말문을 막아 버렸다. 물론 정원 식물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조경용식물들이 이용되었으니 어려울 게 없었지만 뉴질랜드와 호주의 식물원에 심겨진 토착 식물은 나를 문외한으로 만들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초보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 마트나 혹은 식물원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이들 나라의 식물도감을 수집하는 데도 공을 많이 들였다. 마치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모든 것이 신기해 이것 저것 쇼핑하던 모습처럼, 아무튼 내심 이들의 토착식물을 우리가 먼저 개발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속에서 유전적으로 많은 종류들을 수집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의 농지는 매우 저렴하고 우리와는 정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어 향후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자체 경영 현지 회사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좋은 육종소재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반구와 다른 계절을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은 농장을 상상 속에서 그려 보는 재미도 있었다.



▲ 캔버라에서 열린 국제 꽃박람회이었지만 우리의 적은 지역축제 같았다. 하지만 구근식물의 식재방식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것으로 식재를 일년초로 피복하는 디자인으로 더욱 고급화하였다.



▲ 끝없이 펼쳐진 초원 전경



▲ 미루나무 전경

우리꽃 코레우리, 높은 로열티로 호주 수출

뉴질랜드와 호주는 영국령으로 영국여왕을 공식적인 여왕으로 떠받드는 영국령에 속한다. 때문에 많은 정원의 형태는 영국식 가든 양식을 엿볼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특산 식물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정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심의 정원이 영국식 냄새를 풍긴다면 주요 식물원이나 자연속의 정원 등에서는 이들 나라의 특산식물과 자연환경에 알맞은 배식과 종 선정 등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 대부분의 일행은 이들 나라의 토종식물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특이하게 생긴 암술머리를 가진 그레빌리아(Grevillea)속과 프로테아(Protea)속, 렘토스페리움(Leptospermum)속, 레우코스페리움(Leucospermum)속, 테로페아(Telopea)속, 다이아넬라(Dianella)속, 아니고잔토스(Anigozanthos)속, 브라시콥(Brachyscome)속, 반크시아(Banksia)속 등과 매우 다양한 그라스와 고사리속 식물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면 반드시 감탄하고 오는 곳이 침엽수림이 우거진 레드우드 수목원이다. 이곳의 키 큰 고사리 나무 키아테아(Cyathea)속의 고사리들은 방문객들에게 미국적인 매력을 확실하게 선사한다.

이곳은 호주 시드니 대학의 식물육종센터 담당 교수들이 주축을 이뤄 연구 중심 회사와 이를 본격적으로 유럽 선진국에 소개하는 민간 중요회사와 협약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는 로열티로 해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산학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하는 대목이었다.

뉴플로라란 이미 유럽과 미국에도 잘 알려진 육종회사이다. 주로 패랭이, 버베나, 아지랜티움(목가갯으로 불림), 만데빌라 등을 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유럽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아지랜티움의 로열티는 약 6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우리꽃이 개발한 코레우리가 이번에 호주에도 수출되는데 그 로열티 가격은 약 220원이다. 큰 기대가 되는 이유다. 특히 호주는 햇빛이 좋아 코레우리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음이 설렌다. 사실 이번 호주 방문은 시장의 가능성과 현황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유용했다.

꽃을 사랑하는 그들이 부럽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합친 면적은 한반도의 36배 정도로 큰 대륙이지만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지로 가면 사람 만나는 것이 소나 양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다.

우리의 집약식 농업과는 반대로 광활한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방농업이라 그 기술적 집중도는 우리보다 많이 뒤쳐진다. 따라서 이번에 방문한 여러 농가들의 시설과 기술은 우리에게 참고정도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약 6,000평의 하우스를 경영하는 장미와 거베라 등을 생산하는 시설농장의 연간 매출액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니 우리 일행은 모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특별한 날만 꽃을 구매하지만 이들은 생활 속에서 문화로 자리잡아 꽃의 소비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보는 일상에서 찬거리를 구매하듯 꽃을 구입하는 이들의 문화가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특산식물



▲ 그레빌리아



▲ 아크로토스



▲ 메트로시테로스



▲ 아크로토스

국내도 정원 문화 복지의 전환과 성숙 필요

우리도 이제 꽃의 소비가 그 나라의 문화적, 복지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최근 많은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의료복지, 생활복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 복지의 핵심인 공간과 꽃의 복지를 주장하고 공약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

더욱이 편협한 복지 개념으로 인해 길거리 경관복지 문화인 꽃의 예산을 줄여 길거리가 더욱 황폐해지는 결과로 작용하다 보니 더욱 더 그들 나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도로나 혹은 작은 공원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에서도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끼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도와 준 농림부와 우리 민간 육종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이들 나라의 특산식물을 모아 만든 식물원도 곳곳에 설치하여 어린이는 물론 국민들의 자긍심도 배양하고 있다.



▲ 시드니 대학 식물 육종센터 :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 회사와 결합된 연구와 경영을 분리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겹쳐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 도로가에도 조립식 화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 영국 국왕을 왕으로 하는 나라로 초기 건물이나 기념공원 등의 건물형태는 영국풍이 많다. 정원의 형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아자수를 심어 자연적 특성도 표현하고자 한듯하다.

선진 가든센터 롤모델을 보다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 Eden Gardens



▲ 중앙에 단을 만들고 좌우에 물과 잔디밭으로 처리하여 야외결혼식장으로 이용된다.

선진 유럽이나 미국 등지를 여행할 때 가장 부러운 것이 크고 작은 가든센터이다. 마을 단위마다 가든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가깝고 편리하게 정원 가꾸기를 생활화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러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내 원예 및 정원 가꾸기 환경은 아직 열악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꽃을 가꾸는 문화적 소양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왜곡된 정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원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원예도구나 다양한 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고,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생활화된 가드닝 한국에도 정착 시급

국내도 식물원 주변으로는 조금 다른 그린환경이 펼쳐진다. 예를 들어 우리꽃이나 산새식물원 등과 같이 꽃을 생산하는 농장이 있는 주변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

굳이 거창하게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꽃을 기르는 집이 많이 있다. 국내에도 가든센터 조성이 시급한 이유이다. 가든센터가 주변 환경 및 정원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형 가든센터는 우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점형 가든센터이다. 단순히 꽃과 자재를 판매하는 마트형식의 가든센터는 실패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방식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가든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꽃 가든센터의 새로운 브랜드 '가든조아'가 탄생할 예고하고 있다.

가든조아는 '커뮤니티가 있는 정원형 가든센터'를 지향하며 막바지 개장 준비가 한창이다. 국내에 신개념 가든센터 개장을 앞두고 우연히 방문하게 된 호주의 에덴가든은 향후 가든조아의 방향과 전장 등을 점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에덴가든, 커뮤니티가 있는 정원형 가든센터

에덴가든은 호주의 토종 가든센터이다. 2004년 오픈한 이후 현재는 호주 전역에 7개의 체인망을 갖고 있는 '인기' 커뮤니티 가든센터이다. 에덴가든 안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마트형 센터와는 다르게 식사와 차,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정원을 예술적 공간으로 승화시킨 디스플레이정원과 어른들은 물론 어린 이까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채소나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주제를 갖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결혼식이나 회사 회식을 위해 임대도 가능한 주민들의 편의 공간이기도 했다.

시드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드니 에덴가든은 약 7천여 평의 공간에 2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여파야하다. 회의장과 식당, 이벤트 룸 등 건물 요소로 배치된 공간이 약 300평, 야외 카페 및 식당이 약 500평, 야외 가든센터가 약 1500평 정도의 규모로 들어서 있다. 에덴가든의 백미 디스플레이가든 역시 약 3500평 대지에 20여개의 아이템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지형적인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자연미를 더한 디스플레이정원 중앙으로는 나무 모양을 한 분수대가 시선을 끈다. 잔디밭과 나무를 일렬로 배치한 가든 카페인데, 주말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누릴 여유로움은 없다.



▲ 지형을 이용한 계류는 물소리와 아름다움도 겸하지만 물의 정화효과 많은 도움을 준다.



▲ 앞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기부한 재산은 세계 굴주인 어린이들을 돕는데 이용된다.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팻말이 전시된다. 이 팻말은 일정기간 전시된 후 다시 작고 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낮은 자리에 부착된다.

정원 곳곳에 묻어나는 공간미학

계단 아래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대 스텐드형 교육장이 들어서 있다. 교육장을 지나도 좌우측 각기 다른 정원아이템이 이어지고, 마지막 커친가든에 도착하게 된다. 식당 재료로 쓰일 허브식물과 채소, 그리고 안쪽으로는 닭장이 자리하고 있어 매일 신선한 재료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다시 벽을 통과하는 오솔길에서는 수많은 재산 기부자들의 이름도 볼 수 있었는데, 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라고 한다. 이 기부금은 모두 유니세프를 통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한다.

이어 수직의 워터 가든을 중앙에 둔 정원에 도착했다. 야외 결혼식장으로 활용되는 이곳은 호주의 건조한 결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정원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신상함이 전해지는 잘 정돈된 정원이었다. 건물에서 시작되는 계류와 폭포도 에덴가든의 또 다른 볼거리다. 현대적 세련미를 가미한 폭포와 계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연스러움을 표현, 자연의 일부가 된다. 계류를 따라 전시되고 있는 예술 작품 또한 공간미학을 더했다.

어린이 현장교육장은 한국의 경사지 텃밭을 연상케 했다. 주로 채소와 허브 등을 가꾸고 있었는데, 기존 에덴가든 스타일이 아닌 과일나무와 사립문 모양의 울타리는 신선했다. 대각선 방향에 자리 잡은 큰 원형의 철재 구조물도 시선을 끌었다. 우수를 받아서 이용하는 집수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 가든센터에서 사용한 모든 물을 재활용하는 곳이다.

단순한 물건 판매 매장이 아닌 창의적 전시공간

벽돌 생산 공장 터에 조성된 전망대는 세월의 무게감이 전해지는 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전망대의 최고층에서 조망되는 정원은 걸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최초 이 디스플레이 정원을 기획한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멀리 시내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 구름다리를 건너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것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다. 공중의 통로를 빠져나오면 아트갤러리나 카페 그리고 가든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가든센터도 물건을 팔기 위한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원 개념의 가든센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에 수로를 두어 그라스로 동선을 차폐했고 또 한쪽 경계면은 대형의



▲ 우수 집수 장치, 가든 내의 모든 빗물을 받아 저장하고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해서 이용한다. 빗물 파고 설치하여 긴 계류와 연결된다. 햇빛이 들지 않아 이끼 등이 자라지 않는다.



▲ 엘리자베스로부터 커친가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수벽을 형성했다.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팔레트 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필자가 꿈꾸어 왔던 바로 그 아이템 호주에서 성황리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도 생활속 문화로 정원과 그 정원을 가꾸어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우리 꽃의 새로운 브랜드인 가든조아가 트렌드를 만들어 기여하기를 바란다. 🌸



▲ 실외 가든센터, 일반적인 제품전시의 공간으로 처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덴가든의 1년 수익의 60%를 차지한다.



▲ 공중통로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색다른 경관미를 연출한다.



▲ 정원의 경계를 이루기 위해 벽을 만들고 그 위에 공중의 통로를 두어 동선과 구획, 그리고 경관까지 고려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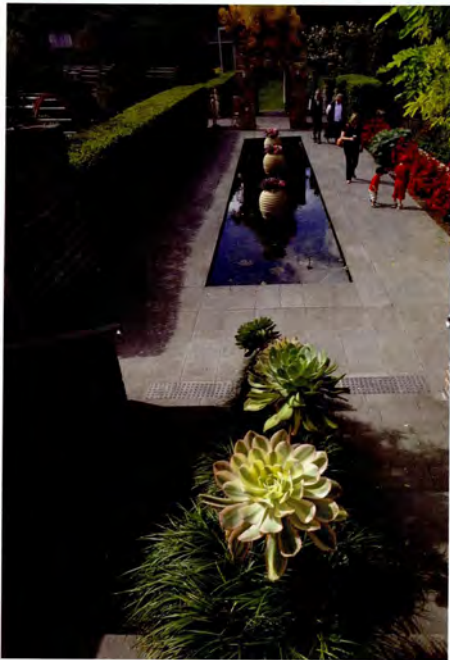
▲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교육장.



▲ 들어가는 입구는 단순화 했다. 잔디밭과 중앙에 조형 분수대를 조성해 언제든지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실내 매장과 출구 디자인, 실내에는 정원용품 외에 홈데코 상품들도 판매한다.



정통과 서구문화의 접목

Tokyo Metropolitan Jindai Botanical Park



▲ 가을 장미전시회

도쿄진다이식물공원은 탈아시아를 외치며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 식 현대문화의 일면을 보는 듯한 식물원이다. 넓은 부지에 조성된 분수와 잘 다듬어진 철쭉군락, 그리스 신전모양의 건물이 어우러진 장미원이 특히 그러하다. 학문적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식물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식물공원에서는 연중 다양한 식물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도쿄를 방문할 때 시간을 내어 느긋한 마음으로 관람하여도 좋은 곳이다.



글·사진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 중앙분수

‘학문적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식물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곳’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쿄진다이식물공원(東京神代植物公園)

도쿄진다이식물공원은 원래 도쿄의 가로수 등을 기르기 위한 묘포장으로 출발했지만, 전후 진다이(神代) 녹지로 개방된 뒤 1961년에 명칭도 진다이(神代)식물원으로 고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식물원으로 개원하였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식물원이다. 1984년에는 대온실이 완성되어 열대 식물들을 겨울에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식물공원은 46.7ha의 면적에 약 4,500종류가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만 주 이상의 수목이 심어져 있어 일본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공원 개념의 식물원이다. 매화, 철쭉, 산딸나무, 작약, 장미, 등나무 등이 30곳의 주채원에서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철쭉원에는 약 300여 품종, 12,000주가 심겨져 있어 개화기인 봄에 장관을 연출한다. 철쭉원은 이 식물원의 자랑거리이자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철쭉원 주변의 봄 화단에는 수십만 송이의 튜립, 꽃양귀비, 팬지, 무스카리 등이 재배되고 있다.

나비원(Butterfly Garden)은 나이아가라 식물원에 있던 열대식물 온실을 개조하여 1996년에 개원하였으며 다양한 열대 관엽식물과 아름다운 나비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2000마리 이상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으며, 세계 6개 언어로 된 음성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일본-진다이식물원-중앙온실 앞에 음악이 나오는 꽃잎 모양의 조형물



▲ 팜파스그래스 군락과 시민들의 휴식과 스포츠활동에 이용되는 잔디밭

세계 장미연합회도 인정한 장미원

유럽의 식물원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장미원에는 시원한 분수, 넓은 잔디밭, 서양식 건축물 등이 잘 다듬어진 수벽과 함께 대칭으로 조성되어 있다. 총 274품종 5,100 그루의 장미가 심겨진 이곳에서는 봄철(5월)과 가을철(10월)에 장미 축제(전시회)가 개최되는데,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한다. 이 장미원은 제 15회 세계 장미 협회의 밴쿠버 대회에서 '세계 장미연합회 우수 정원상(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을 수상한바있다.

1984년에 완성된 대온실에는 주로 열대 관엽식물을 비롯하여, 카를레야, 덴드로비움, 파피오페달럼과 같은 열대 난들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있다. 식충식물, 화려한 베고니아 전시실도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을 붙잡는다. 특별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온실 내에는 총 650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온실 앞에는 꽃잎 모양을 한 철재 조형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꽃잎 부분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음악이 흘러나온다.

팜파스 그라스 군락 특별 소원도 백미

식물원의 넓은 잔디밭에는 이 식물원의 명물 중의 하나인 거대한 팜파스그라스(Pampas Grass) 군락이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키가 4m, 폭 7m에 4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 속근초원, 일년초원, 벚꽃원, 복숭아원, 목련원, 매화원, 자두원, 대나무원, 동백원나무원, 디알리아원, 모란원, 장미원, 침엽수원, 만병초원 등이 특별 식물 수집군으로 조성되어 있다.



▲ 가을 습지원



▲ 디알리아



▲ 디알리아



▲ 베고니아 온실



▲ 실내 장미 전시



▲ 장미



▲ 장미원과 중앙온실



▲ 진다이식물원 입구

1985년에 조성된 습지원에는 붓꽃류, 갈대류, 인디카 계통의 벼 품종 등과 같은 수생식물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환경생태 교육프로그램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주택정원, 정원석, 울타리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정원조성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견본정원으로 들어서있다. 또한 유용식물, 방항식물, 야생화, 채소 등을 심은 심어 놓은 교재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밖에 연못, 석가산 및 침상정원 등이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고 그 외 상수리나무 등의 잡목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 무사시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녹색상당소에는 전시실, 상담코너, 강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식물화관에는 회의실이 있어 연수회사 강습회, 취미 모임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제한구역 외 6천㎡의 면적에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교육류를 식재한 자유구역을 두어 배드민턴, 공놀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중 다양한 식물관련 전시회로 볼거리 풍성

도쿄진다이식물공원에서는 계절별 또는 월별로 매화 및 복수초 전시회, 동백전, 분재전, 제비꽃전, 벚꽃전, 봄 산초전, 아이리스전, 봄 장미 전시회, 수국 전시회, 베고니아 전시회, 가을 장미 전시회, 디알리아 전시회, 국화 전시회 등이 연중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5월 '봄의 장미 축제', 10 월의 '가을 장미 축제' 및 벚꽃 축제 기간 중에는 야간 개장을 하고 다양한 색채의 조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물과 원예에 관한 행사와 전시회,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강연회, 체험 교실 등을 개최하고 녹색문화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in](#)

*본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2013년) 《세계의 식물원 산책 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육각 형광장에 배치한 육각컨테이너에 식재한 펄라고니움 (독일)



▲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를 흰색 페인트로 칠해 월계수를 식재했다. 자연친화경적인 색채로 만든 컨테이너의 예 (베르사이유)



▲ 갈색계열의 벽들 건물 앞에 갈색데크로 벽면과 바닥면을 만들고 컨테이너도 갈색계열의 코코넛피트로 감싸고 있다. 각종 초화류와 아이비를 곁들여 식재한 데크장식의 예 (삼육대학교)

色·形·感의 조화를 만족시켜라 컨테이너가든 디자인 멋



글·사진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컨테이너는 화초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통틀어 소형 화분부터 지게차로 날을 수 있는 큰 용기까지를 모두 컨테이너라고 부른다.

컨테이너 가든에서는 컨테이너에 심을 식물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디자인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용기에 심어야 더 멋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화분에 심는 화초만 좋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컨테이너 가든하면 컨테이너가 주변환경과 색채나 선, 형태, 질감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와 같은 디자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간의 속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모방된 것을 보기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고 혼란한 가운데 통일성과 비례미가 있으며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사조화는 색상이나 형태, 질감이 비슷한 것끼리 나열했을 때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점잖고 조용하며 고상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나 의복디자인에서 효과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대비조화는 혼란을 초래하며 조잡스럽고 유치한 감을 불러일으켜 기억도를 높인다고 한다. 그래서 상업 광고용인 간판이나 포스터에서 사용되고 있고,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예를 들면 형태면에서 유사조화란 사각이진 건물에는 사각형의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하고 직선의 거리에서는 직선의 긴 사각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잘 어울린다. 그러나 둥근 건물에서는 둥근 컨테이너가 잘 어울리고 6각의 건물에서는 6각형의 컨테이너가 잘 어울린다.

가든하면 컨테이너가 주변환경과도 색채나 선, 형태, 질감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현관 양옆에 자연친화경적인 색채인 녹색계열로 만든 컨테이너에 식재한 화양목(프랑스)

▼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 직선도로선상에 원형의 사기화분과 플라스틱화분에 흑백나무를 식재했다. 주변의 형태나 재질, 색채, 선이 통일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어수선하다(서초동)



▼ 자연친화경적인 무채색 건정색 컨테이너에 둥근 흑백과 각종 초화류를 식재하여 장식한 도로변의 컨테이너이다. 주변환경과 형태: 재질의 무조화를 이론 예 (서초동)



▼ 주변에 검은색의 매트와 청색의 로스, 붉은색의 원뿔, 녹색의 깔판, 각종 형태의 화분. 다양한 식물들의 식재가 도로가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환경의 예 (서초동)





▲ 흰색 벽면에 조화시킨 흰관 입구의 백색의 컨테이너에 향나무와 아욱매화를 식재한 컨테이너의 예 (일본)



▲ 긴 직선이 있는 길에 팬지, 무스카리, 수선화를 식재한 원형의 컨테이너를 배치시킨 선의 부조화를 이룬 예 (여의도)



▲ 주변 벽면 색채에 컨테이너를 유사한 색채로 맞춰 캥거루포우를 식재한 분수대 (키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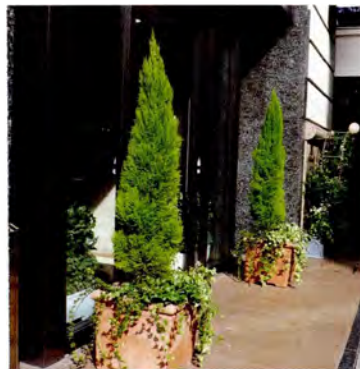
▲ 데크에 맞추어 디자인된 컨테이너의 종려죽 예 (서울)



▲ 베르사이유궁전 앞에 장식되어진 자연친환경적인 색채의 녹색계열 향이리에 제라늄을 식재한 장식의 컨테이너 (베르사이유)

색채면에서의 유사조화란 갈색의 건물이라고 하면 갈색계열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식물을 식재하면 편안하고 점잖으며 고상한 환경이 될 것이다. 흰 빌딩에서는 흰색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으며, 녹색계열의 빌딩에서는 녹색의 컨테이너가 더욱 신선하고 쾌적감을 줄 것이다.

질감에 있어서 유사조화란 건축물이 어떤 재질로 건축물이 구성되었느냐에 맞추어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화강석 건물에서는 화강석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대리석으로 실내가 마감되었다고 하면 같은 재료의 대리석으로 만든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다. 목재로 마감이 되었으면 마감된 목재와 같은 목재로 만든 컨테이너에 식물을 식재하면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다. 점잖고 고상하며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선진국의 경우 색채와 형태미, 재질감이 통일성을 가지고 장식된다. 여기에 비례미까지 첨부되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현관 양옆에 자연친환경적인 갈색계열의 컨테이너에 향나무와 아이버를 식재해 바둑색과 유사색 조화를 이룬 예 (일본)

색채에 있어서는 환경 친화적인 색채로 갈색계열과 녹색계열, 그리고 무채색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색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장소에 배치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채들이다. 나무나 돌, 흙은 자연 친화경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실내에 컨테이너를 장식할 때도 자연 친화경적인 색채로 구성하면 가장 부드럽고 고상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의 앞뜰에 월계수를 심은 화분은 나무로 만든 화분이지만 녹색이나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하여 녹색 화분이나 흰색 컨테이너로 장식하였다. 언베이스(urn vase) 역시 청동으로 만들어 녹색은 색이 청녹색으로 되어 한층 더 고대감과 쾌적감을 준다. 대통령관저인 엘리제궁에는 흰색의 컨테이너에 주목나무를 심어놓았다. 이와 같은 색채 역시 자연 친화경적인 색채를 고려한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길가나 건물 앞의 대부분에 원형 컨테이너에 황금 측백 아니면 초화류를 심었다. 식물 선정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원형 컨테이너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도시의 정원문화가 개선하려면 담당자들의 의식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 부족에 앞서 생각이 따르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in**



▲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를 친환경적인 색채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 형태와 재질은 다르지만 색채와 형태로 통일된 컨테이너를 조성했다. 바둑색에 맞추워 꽃담바리와 클레우스, 아이버를 식재해 놓은 컨테이너의 예 (일본)



▼ 벽면과 기둥색에 맞추어 장식된 컨테이너와 무늬벤자민고무나무 예 (미국의 한팅톤가든)



글·사진 이명호의 야생화(www.skyspace.pe.kr)

신이 내린 가장 향기로운 우리 꽃
구절초



▲ 구절초



남구철조 ▲



▼ 낙동구철초



바위구절초 ▼

가을국화의 대표종

가을철 산행을 하다 보면 양지바른 기슭이나 산
마루에서 허거나 붉은 꽃이 줄기에서 한 송이씩
울라와 무리지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꺾
여 길러진 잎은 마치 쭉 뻗었으면서도 그리 크
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높이에서 피는 꽃이어서 더욱 정겹다.

양지바른 언덕에서 동그렇게 모여 지라는 것을 보
면 산나물꾼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가던 길
을 멈추고 그 향을 맡고 싶노라면 어느새 마음
까지 그윽한 향취에 빠져들게 된다. 그 주인공을
이 글조차.

구절초는 신이 내린 가장 향기로운 가을꽃이 아

닐까 싶다. 가을에 피는 쑥부쟁이, 개미취 종류들과 함께 이 구절초 무리들은 들국화의 대표종으로 손꼽힌다.

구절초의 유래 | 9월9일 이면 마
다가 9개

들국화로 잘 알려진 구절초는 5월 단오에는 줄기가 5마디가 되고,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다고 하여 '구절초(九節草)'라 불린다. 가을에 피는 야생화들은 대개 국화와 식물들인데, 이들은 모두 생김새가 비슷해서 보통 소국(小菊)으로 통한다. 또 구절초는 선모초(仙母草)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흰 꽃잎이 신선보다 더 윤보나다 하

여 붙여진 명칭이다.

특징 | 줄기끝 한송이씩만 피는꽃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며 야생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풀이다. 땅속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새싹이 나오고, 높이는 30~70cm 정도이다. 뿌리에서 돋는 잎과 줄기 아래쪽에 달리는 잎은 깃 모양으로 2회 갈라진다. 잎은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가늘어진다. 꽃은 9월~11월에 줄기가 가지 끝에 한 송이씩 하늘을 향해서 핀다. 처음 필 때는 연한 분홍색이지만 차츰 흰색으로 변한다.

꽃의 지름은 5cm~8cm이며, 두상꽃차례를 이룬다. 국화과의 식물들은 줄기가 많이 갈라져 그 끝

에 모두 꽃이 피는데, 구절초는 꽃이 줄기 끝에 한 송이씩만 피는 것이 다르다. 식물 전체에서 그 특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뜰에 심어두면 좋다. 햇빛이 잘 비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는 편이다.

분류 | 전국에 다양한 종 분포

구절초의 종류를 열거해 보면, 기본종인 구절초를
비롯해서 산구절초, 바위구절초, 한라구절초, 포
천구절초, 낙동구절초, 서흥구절초, 남구절초, 울

포전굴절초는 한탄강 주변과 포천 지역에서 자라며, 어느 종류보다 잎이 가장 가늘고 길게 길러진 것이 특징이다. 남동굴절초, 서흥굴절초, 남구절초의 잎은 다 함께 넓지만 각기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남구절초는 남동강 주변에서 자라고 서흥굴절초는 황해도 서흥 근처의 참나무 숲속에서 자라며, 남구절초는 남쪽 섬과 해안지역에서 자란다. 울릉국화는 울릉도 성인봉 근처에서 자라며 몸 전체에 광택이 있고 흰색으로 꽃이 핀다. 굴절초 종류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꽃보다 잎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없어지고,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두통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한다. 단전을 따뜻하게 하거나 자궁허랭을 치료하고, 생리를 조절하거나 몸을 덥게 하며 소화기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소중한 우리의 꽃

가을철 시골길을 걷다 보면 양지바른 산비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꽃이 구절초이다. 가꾸지 않아도 우리 산하를 곱게 장식하는 들꽃이기에 더



▲ 산구절초



부처구정론 ▲



물류경제



한라구절초 ▼

릉국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전국 어느 지역
에서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는 구절초와 산
구절초라 할 수 있다.

구절초는 잎이 넓고 산기슭이나 들판의 낮은 지대에서 자라지만, 산구절초는 잎이 좁고 깊게 갈라지며 높은 산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위구절초는 백두산과 북부지역의 높은 지대에서 자라고, 한라구절초는 한라산의 높은 지대에서 자란다.

잎은 모두 짧고 깃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나, 바위 구절초는 줄기 하나에서 꽃이 한 송이씩 피는 반면 한라구절초는 가지가 갈라져서 많은 꽃이 한꺼번에 달린다.

구절초 종류들은 대개 붉은 꽃과 흰 꽃을 함께 볼 수 있지만, 남구절초와 울릉국화는 언제나 꽃이 흰색이다.

따뜻한 성질을 지녀 여성에게 유익

관상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 기르기도 하며, 꽃이 달린 전초를 그늘에서 말려 한방과 민간에서 부인냉증, 무월경, 폐렴, 기관지염, 해소, 감기, 인두염, 고혈압, 위장병, 치통 등을 다스리는 데 쓴다. 양지쪽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구절초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맛은 쓰다. 구절초는 신장통을 줄이고 중풍, 미치증나 보혈, 강장제로 쓰이기도 한다. 구절초 꽃잎을 삶은 물

옥 정감다. 누가 돌보지 않아도 튼튼한 뿌리를 내려 생존하면서 짙은 향기를 잃지 않는 꽃이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푸르던 들판이 누렇게 밀라 가는 가을산야에 핀 하얀 꽃들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피던 꽃들도 모두 시드는 계절에 청초한 빛을 뽐내는 구절초, 작지만 강인하고 기품이 있는 이 꽃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청량한 향기를 지녔다.

구절초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더욱 독특한 애착을 느끼는 게 아닐까? 정말 소중한 보호해야 할 우리 꽃이다. 🌸

억새 VS 갈대의 진검 승부

내가 바로 가을 진객

글·소순복 기자 | 참고자료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발행 우리꽃)

억새와 갈대가 어떻게 다를까? 억새와 갈대에 대한 혼동과 궁금증은 매년 이맘때면 등장하는 화두이다. '물가에서 만나면 갈대, 산등성이에서 보면 억새' 그렇다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지, 가을 산천의 대표 미인 억새와 갈대, 그들이 궁금하다.

본지 지난 10월호(그라스 특집)에서 간단히 소개한 바 있는 억새와 갈대는 그라스의 대표종이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평범한 듯 하지만,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군무의 향연은 그 어느 식물도 연출할 수 없는 비경을 자랑한다. 특히 해질 무렵 석양 아래서 일렁이는 은빛물결은 가히 장관이다.

때문에 억새와 갈대는 문학적 소재가 되기도 한다. 문인들은 흔히 억새는 여성적이고, 갈대는 남성적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갈대가 키가 큰 반면 억새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기 때문일 것이다. '억새꽃은 흰색으로 깨끗한 반면 갈대꽃은 갈색이며 부스스하다.' '억새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데 반해 갈대는 투박하고 조잡하다'는 시선도 있다. 단어가 주는 어감은 갈대가 억새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많은 이들은 억새에 후한 미사여구를 풀어 표현한다.

억울한 갈대이다.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에 비유되기도 하고, 고전에서는 고발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에서 이발사가 비밀을 털어놓은 곳이 갈대밭이다. 갈대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지만, 한국 동화에서는 그 누설자가 갈대밭이 아니라 대나무 숲이어서 더욱 억울하다. 이런 설화에서 연유해 갈대는 밀고와 무분별의 비유에 사용된다고 하니 통탄할 갈대이다.

사는 곳이 달라 서로 마주친 적도 없을 텐데, 사람들은 억새와 갈대를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놓고 비교 분석하니 그 또한 재미있지 않은가. 여하튼 억새와 갈대는 비슷한 듯 다른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다. 갈대와 억새는 사는 곳이 우선 다르다. 갈대는 물을 좋아해 물가에서 살고, 억새는 물이 없는 마른땅에서 주로 산다. 그러나 물억새는 물가에서 살기도 하는데, 갈대와 억새는 잎을 보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갈대는 흰색의 맥이 없는 반면 억새는 잎의 가운데에 흰색의 맥이 나와 있다.

유럽 정원의 핫 아이템 억새

학명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분류 외떡잎식물 벼목 벼과의 여러해살이풀

분포지역 한국(전지역)·일본·중국 등지

자생지 산과 들

크기 높이 1~2m

억새는 전 세계적으로 17~20여종에 이르는 속을 가진 대형 패밀리 종이다. 꽃이 피는 가을에 절정을 이루지만, 겨울까지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품종도 있다. 억새는 보통 중북부 지방에서는 키가 2m이상 자라기도 하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어른의 허리정도로 작다. 잎은 매우 억세고 가장 자리에 날카로운 잔톱니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억새를 만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꽃은 가을에 피며 보통 은빛이나 흰색을 띤다. 가끔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억새는 잎이나 꽃에 따라 참억새, 가는잎억새, 물억새, 금억새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억새는 참억새이다. 억새는 주로 초지나 숲의 가장자리, 그리고 사냇가나 경사지 등지에서 자생한다.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진 숲 속에서는 보기 드물다. 모래밭이나 암석지대의 건조한 곳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주로 축축하고 비옥한 환경을 선호한다. 물억새의 경우는 비교적 길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땅속줄기가 발달하여 퍼져 자라지만 그 외 대부분의 종들은 줄기가 뻗뻗하게 모여 자라 덩어리진 포기가 된다.

억새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정원 아이템으로 빠지지 않는 주요 포인트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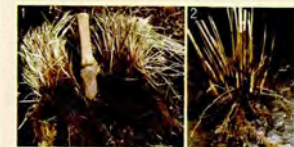
물이기도 하고, 단독 군식 혼식 혼성 등 어디에 식재해도 제 멋을 뽐낼 줄 아는 진정한 멋쟁이다. 때문에 다양한 특성의 품종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정원사의 몫. 정원의 특성이나 주변의 식물과 조화를 고려해 선택한다면 나만의 멋진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 억새는 대체로 절간이 짧고 포기가 조밀한 품종이 좋다.

번식은 종자로도 하지만 좋은 품종은 봄에 새롭게 성장을 시작하기 전 분주하는데 싹이 나올 때까지는 온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겨울철 과도한 습기로부터 보호하는게 좋고, 너무 일찍 줄기를 자르지 말고 봄 성장을 시작하면 잘라준다.

TIP 관리 및 재배 방법

번식 방법

일반 억새는 주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대량 증식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무늬종등 고급품종은 종자가 잘 맺히지 않거나 그 종자를 뿌려도 원래의 품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주를 해야만 한다. 분주는 적당한 크기로 새순이 나기 전 이른 봄 또는 늦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1. 크기 얇은 억새 포기는 단순한 모종상으로 분주할 수 있다.

2. 뿌리털이 잘 발달한 억새의 뿌리, 포기의 끝부분에 새로 나온 어린 줄기를 관찰할 수 있다.



▲ 강원도 정선군 만동산(해발 1,119m)정상에 펼쳐진 30만평의 억새밭 모습. 만동산에서는 이달 3일까지 억새축제가 개최된다. (사진 제공 : 억새꽃추진위원회)

다양한 역새의 종류



▲ 억새 모닝라이트



▲ 억새 그린라이트



▲ 억새 파랑새



▲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에는 5.4km에 달하는 거대한 갈대군락이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사진 제공> 순천만정원박람회

수질 정화 능력 탁월한 갈대

학명 *Phragmites communis*

분류 외떡잎식물 화본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

분포지역 온대와 한대

서식장소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모래땅

크기 높이 3m 정도

갈대는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군락을 이루고 자란다.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많은 황색의 수염뿌리가 나고,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어있다. 높이는 3m 정도이고, 잎은 가늘고 긴 바소꼴이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8~9월에 피고, 수많은 작은꽃 이삭이 줄기 끝에 원추꽃차례로 달린다. 처음에는 자주색이나 담백색으로 변한다.

어린 순은 식용으로 사용하며 중국에서는 노순(蘆筍)이라 한다.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었고 이삭의 털은 솜대용으로 사용하였다. 성숙한 줄기는 갈대밭·갈싯갯·싯자리 등을 엮는 데 쓰이고, 또 펄프 원료로 이용한다. 한방에서는 봄에서 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한다. 부위에 따라 뿌리줄기를 노근(蘆根), 줄기를 노경(蘆莖), 잎을 노엽(蘆葉), 꽃을 노화(蘆花)라 하여 진토(鎮吐), 소염, 이뇨, 해열, 해독에 사용한다.

갈대는 강과 바닷가의 토양 안정화 식물이다. 수질 정화 능력도 탁월하지만 일반적인 작은 정원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 종자에 갓털이 있어 바람에 쉽게 날려 멀리 퍼진다. 번식은 종자와 땅속줄기로 잘되지만, 종자에 의한 번식이 유리하다. 🌈



지피식물 종자와 묘종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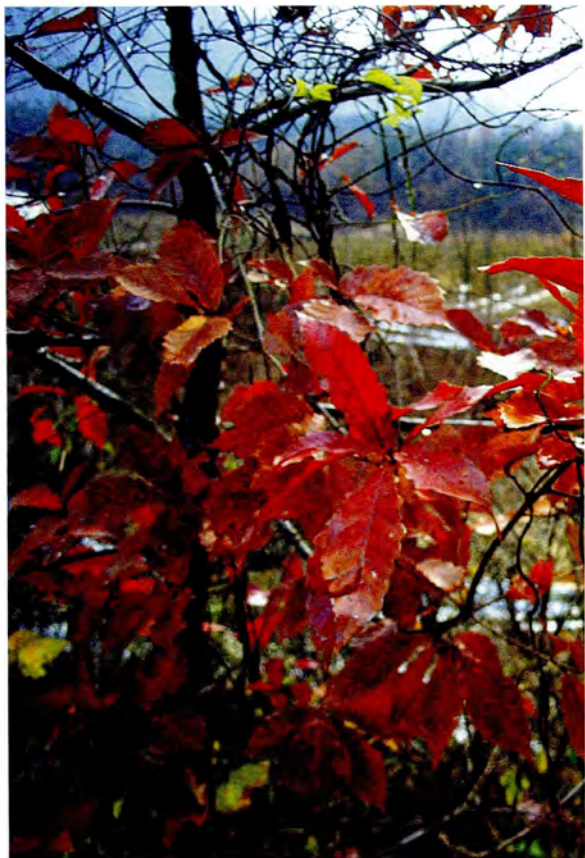
땅끝야생화

문의 : 062.535.0045 / 010.4284.2655 | FAX : 061.535.0048

전남 애남군 옥전면 영춘리 740

가을 산행을 재미있게 해주는 TIP

글·사진 황주리 기자



가을이 되면 왜 잎이 떨어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이다. 잎은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물과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힘으로 포도당을 만든다. 하지만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흙으로부터 뿌리가 포도당을 만들지만 차갑고 건조한 흙으로부터 뿌리가 수분을 빨아올리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잎에 해가 달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잎 속에서 이뤄져야 할 광합성 작용이 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나가면 또 반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계절이라고 하지만 한 계절이 지나가면 지난 계절이 그림고 또 그 계절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듯 하여 후회를 하기도 한다. 한 겨울이 되어 추위에 몸을 떨고 있노라니 차라리 한 여름에 땀을 흘리고픈 마음이 들고 또 한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지난 겨울 찬 바람을 어디다 저장해 놓았었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한 계절의 온도를 저장할 수 는 없어도 계절의 상징물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 계절의 추억을 간직한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낙엽을 모아야 한다.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어도 울긋불긋 풍경을 색칠했던 가을이 너무 그림자 없도록.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이동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잎에서는 수분이 자꾸 증발해서 항상 모자라게 된다. 그래서 잎을 아예 떨어뜨려 나무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낙엽이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의 심정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많은 이들에게 가을은 찬 바람이 몸에 스치기만 하여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상록수도 잎이 떨어진다.

'상록수'는 사계절을 불문하고 언제나 푸르고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록수는 낙엽수처럼 가을에 잎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 처음의 잎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아니다. 상록수도 오래된 잎은 떨어지기도 한다. 다만 잎이 넓은 상록수는 겨울이 되면 잎이 두꺼워지고 표면에 방수층 혹은 큐티클 층이 생겨서 수분 증발을 막게 된다. 바늘같이 뾰족한 잎을 가진 상록수 (소나무 따위)는 표면적을 작게 만들고 양초 같은 물질로 표면을 씩음으로써 적은 수분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잎으로 표본을 만들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낙엽을 주워보자. 낙엽수나 상록수의 잎은 모양, 두께, 잎맥 (앞에 분포하는 수분이나 양분의 통로) 등 생김 모습이 저마다 다르다. 잎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대고 연필로 그 위를 문지르면 잎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잎에 물감을 칠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제 색깔에 가까운 색을 고르면 좋다. 물감은 진하게 풀어야 잎 모양이 뚜렷해 지는데 이렇게 뜯은 잎이나 책갈피에 넣어 말린 잎으로 노트를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솔방울로 만드는 습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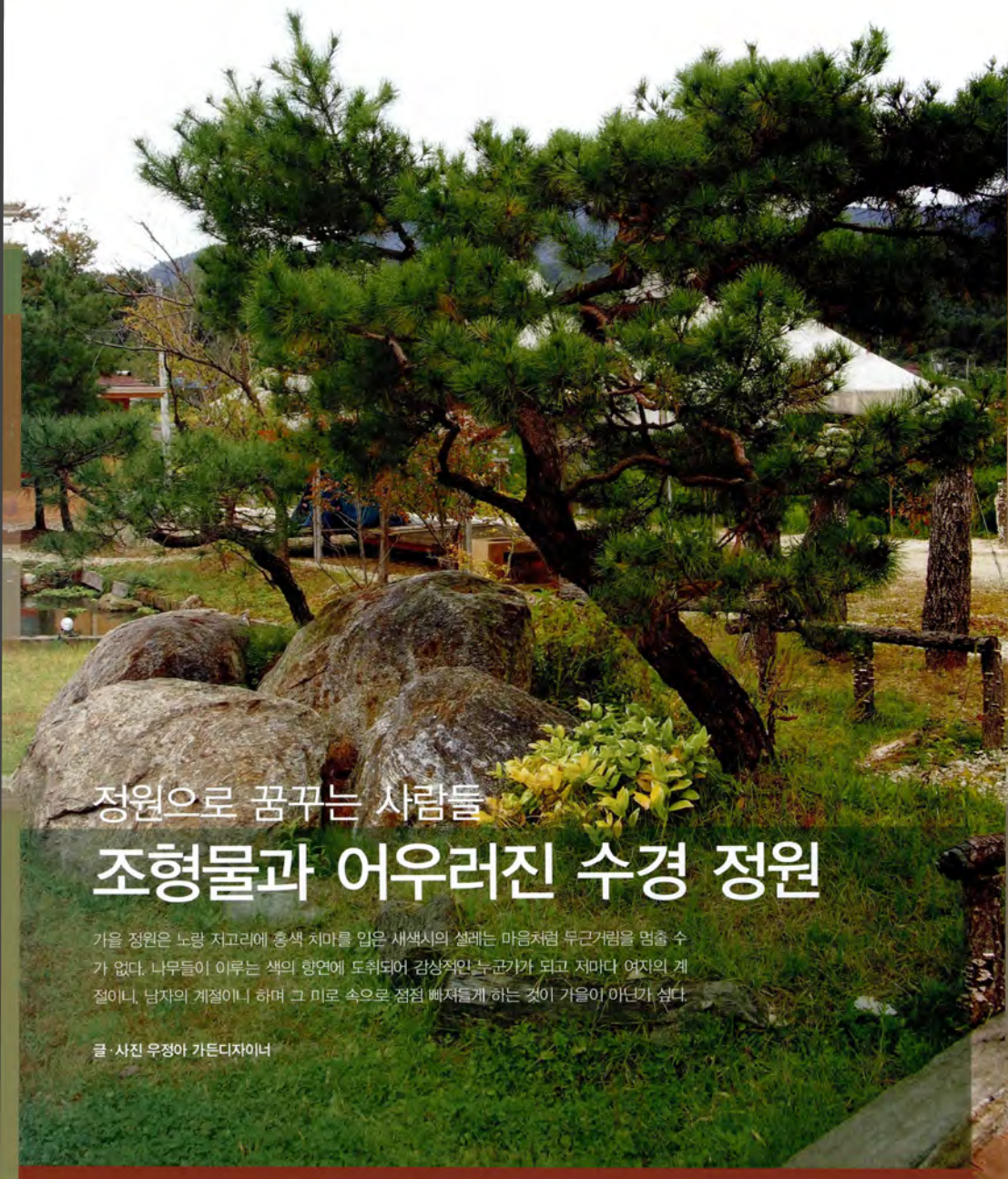
가을산행을 하다 보면 솔방울이 바닥에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맘에 드는 하나를 챙겨보자. 솔방울로 습도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꽤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솔방울을 나무판자 위에 넓적한 뒷부분을 아래로 균형 있게 올려놓는다. 판자 아래로 못을 박아 솔방울을 고정시킨다. 습도가 높을 때 또는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는 솔방울이 정돈된 모습으로 모여있다가 건조할 때 또는 날씨가 좋을 때는 끝이 갈라진 모습을 띈다. in



나무의 다양한 잎과 열매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조형물과 어우러진 수경 정원

가을 정원은 노랑 저고리에 흥색 치마를 입은 새색시의 실례는 마음처럼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무들이 이루는 색의 향연에 도취되어 감상적인 눈근가가 되고 저마다 여자의 계절이니, 남자의 계절이니 하며 그 미로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가을이 아닌가 싶다.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토속 조형물들이 빚어내는 작은 미술관

축백나무 향 가득한 축령산 자락에 청량한 물소리 가득한 박경자(55)씨 정원은 수경정원을 중심으로 약 10000㎡÷(3000평)에 조성되어 있다. 정원 내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눈향나무, 수국 등의 수목과 동굴레, 돌단풍, 금낭화, 할미꽃, 금계국, 매발톱, 꽃잔디, 돌나물 등의 초화류, 그리고 주인장의 손때가 묻은 조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이곳만의 정원 미학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 수경 정원은 세 군데의 연못과 물레방아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주 연못은 잉어, 붕어, 미꾸라지와 함께 물토란과 물상추, 부레옥잠, 개구리밥 등의 수생식물과 석창포, 버들 등의 수변 식물



이 식재되어 있으며, 주 연못 옆의 소 연못에는 부수 식물만 식생하고 있다. 향아리로 만든 분수가 있는 연못은 물의 낙차로 인해 식물을 기르기가 쉽지 않아 조형물의 역할만 하고, 이어진 수로로 물레방아가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주 연못에는 섬의 형상을 한 구역을 두고, 소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여 선적인 요소로서 시각을 유도하고 중심점이 되어 안정적인 구도를 잡고 있다. 연못 가운데 설치된 물적두와 향아리 분수가

낮설지 않은 작은 재미를 준다. 연못을 따라 참나무로 길을 만들어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못을 따라 가도록 하고, 연못 주변으로는 벤치, 그네, 의자를 놓아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주위로는 조형물들이 작은 미술관을 만들고 있다.인 식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물의 재창조, 첨경물로 더해진 정원의 멋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이 첨경물이다. 돌이나 등, 파고라, 벤치, 조형물 등 첨경물은 '어느 곳에, 어떻게, 무엇을'에 따라 정원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첨경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질감이나 색, 형태 등도 전체적인 조화에 큰 역할을 한다.

이곳의 정원은 참나무를 잘라 만든 조형물들이 많다. 통나무를 무리로 세워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가로등을 만들었다. 나무에 돌을 매달고 식물의 넝쿨을 올려 자연적인 소재에 인공적인 소재를 부분적으로 가미해 눈길을 끌고,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과 공생하는 버섯의 질감이 잘 어우러진 데크의 활용으로 무게감을 더했다. 안정감을 주는 동선의 배치 역시 돋보인다.

돌을 활용해 식물을 붙이거나 띄우고, 크기가 다른 돌을 쌓아 만든 조형물, 그리고 친숙한 항아리 역시 정원의 멋을 더해준 구성 요소가 되었다. 물레방아로 분수와 폭포를 만들었고, 침목을 재활용해 만든 벤치와 쉴 수 있는 곳마다 배치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에서도 주인공의 비범한 손재주와 세심함이 엿보인다.

아직은 미완성,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정원

오랜 미국생활을 한 주인공은 모국의 자연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와 터를 잡고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2006년 집을 지으면서 조성하기 시작한 정원은 아직도 만들어 가는 미완성 작으로 끊임없는 시행착오로 힘든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토양의 성질이 특이하여 대부분의 과수가 견디지 못하고 고사했다. 애써 구한 야생화는 일반지역보다 추운 기후로 인해 다음해에 꽃을 볼 수 없기도 했다. 연못에는 연과 수련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보았으나 이 역시 모두 고사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지 못해 무작정 식재하고 '왜 죽을까' 하며 고민만 했다"는 주인공은 식물에는 생태적 특성이 있고, 모양, 기후의 특성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비료 병충해 방제 등 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시행착오 뒤에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며 쓴웃음을 띤다.



이제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그는 "지금은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소량 구입해서 먼저 심어 본다"고 한다. 식물의 상태를 확인 후에 다시 구입하여 식재하고, 유기견 두 마리와 공작, 금계, 오골계, 토끼 등을 방사해서 얻은 배설물과 낙엽을 썩혀서 멀거름으로 사용한다. 정기적으로 목초액 화석액을 분사해 병해충도 예방하고 있다. 연못에도 물고기 치어를 방사해 식물과 공생하고, 계곡물을 순환시켜 물을 정화하며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처음 시작은 계곡이 있어서 연못을 만들었고, 돌이 있어서 돌담과 돌탑을 쌓았다. 참나무가 있어서 조형물을 만들었고, 측백나무의 푸르름이 있어서 색이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철학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안녕? 성수동!

동네꽃축제의 반란

글·사진 소순복



국내의 정원 문화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원이나 공원에서 재즈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관련 축제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가드닝 관련 언론 매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전국은 지금 가드닝 붐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국민소득 대비 이미 오래전부터 가드닝 문화는 정착되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늦은 만큼 국내 가드닝 문화는 최근 상상의 가색페달을 밟고 있는 양상이다. 특정 부류층들의 고급 문화였던 가든파티도 이제는 동네 축제의 일환이 되면서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울숲 동네꽃축제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드닝 문화의 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숲 동네꽃축제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주택가에서 개최됐다. 사실 초청장을 받고 '동네축제'라는 편지 때문에 취재여부조차 망설였던 취재 길이었다. 무거운 발걸음, 구불구불 주택가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의 안내 멘트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도착 목적지는 녹색공유센터. 그러나 그곳은 일반 단층 주택에 불과했다. 마당에 예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몇몇 주민과 내방객들이 있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딱히 축제 장소로는 빈약해 보였다. 정원 깊숙이 마련된 무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는 연주자들이 화음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나 크게 전부였다.

그러나 리어설 음악이 흘러나오고, 초저녁 아들이 조명처럼 무대의 불빛을 빼앗아가더니, 본격적인 가을 축제는 막이 올랐다. 그제서야 축제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감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주렁주렁 계절의 풍성함을 담아낸 감나무가 무대 운치를 더했고, 나무사이로 새어나오는 랜턴의 불빛, 향수를 불러오는 기타동아리의 통기타 연주, 서정적인 가을밤에 제격인 허스키 보이스 등이 어우러져 축제는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였다.

작은 주택가에서 시작된 가드닝 문화의 변화

그렇게 시작됐다. 모든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진리는 이곳에서도 역시 통했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척 축이 마련한 따뜻한 차의 향기까지 전을처럼 퍼지면서 마당 안에 비치된 의자는 어느새 모두 채워졌다. 이어 본지 전문위원인 신구대학교 황환주 교수의 가드닝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그리고 원예치료 전문가 김미영 박사, 푸르네 정원문화센터장 김현정 박사의 강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길지 않았다. 짧고 간결하게 가드닝의 의미를 담아 전달했다. 그래서 더 관중들의 집중력은 높아 보였다.

인신인해를 이루는 축제의 장은 아니었지만 마당은 풍성했다. 별갈게 익어가는 감나무의 열매처럼, 또 마당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이 계절의 꽃 국화의 임처럼, 그리고 가드닝을 주민과 나눔의 문화로 이끌고 있는 주최측의 의도나 후한 인

심을 담은 떡과 과일처럼, 그렇게 풍성한 초록이 아기가 익어가는 가을밤의 마당이었다.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축제는 그렇게 서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숲 동네꽃축제의 주무대인 성수동은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 서울숲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월, 나무를 심는 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입주는 성수동 일대에 두 번째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축제도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주최한 행사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입주 이후 공장지대에 꽃을 놓고, 자투리땅에 씨를 뿌려 가꾸면서 온 동네가 정원이 되는 행복한 꿈을 꾸었다. 이번 축제는 그런 꿈 실현의 첫 단추이고 도화선에 막 지퍼진 불꽃에 불과했다. '안녕? 성수동!'이란 부제가 그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공장지대를 탈바꿈시킨 게릴라 가드닝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화목한 수레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초록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화목한 수레는 꽃의 거리를 조성하는 견인차이다. 화목한 수레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데, 꽃화(花) 나무목(木)자를 써서 화목한 수레이고, 화요일과 목요일 길을 걸으며 게릴라 가드닝을 한다 해서 화목한 수레이다. 또한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니, 굴러가는 수레바퀴만큼 성수동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은 자명하다. 축제는 이외에도 '이웃'과 '동네' 초록을 테마로 해서 마을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문가와 함께 동네 역사와 골목의 자생식물을 알아보는 답사가 진행되었고, 밤에 열리는 정원, 녹색 쿠키, 초록 워크숍, 게릴라 가드닝 등 생활 속에서 자연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최근 성수동의 집값이 급격히 뛰었다. 정원은 집값의 상승 호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수동의 예고된 변화는 비단 집값만을 들쭉이지 않을 것 같다. 누구나 주민이 되고 싶은 마을, 성수동의 기본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in

Mini interview

화목한 수레꾼 이상윤씨 꽃을 통해 소통을 배우다



초록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화목한 수레는 축제 기간 동안 총 7대가 성수동 골목길을 누볐다. 비단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운행이 됐던 화목한 수레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사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운영했다. 화목한 수레꾼 이상윤(20)씨도 그 자원봉사자 중의 한명. 그는 자동차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본업이 있지만, 주말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는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꽃을 직접 키우지는 않았다"는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꽃을 키우는 재미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자동차를 다녔던 승비 때문일까. 꽃을 다루는 섬세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처음 하는 이치고는 제법이다. 게릴라 가드닝이 무엇인지 알고는 하는 것일까. 장난기가 발동해 "게릴라 가드닝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수레를 끌면서 꽃을 심기도 하고 화분을 나눠주기도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기쁨을 공유하고 나눔의 문화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족했다.

꽃에 대해 알고, 사람과 어울린다. 밝은 꽃의 거리를 조성하니 금상첨화이다. 하나둘씩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니 즐거움 또한 배가 된다. 이날 젊은 청년이 경험한 게릴라 가드닝은 꽃이 자라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목한 수레꾼들의 입주는 이 축제기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축제기간이 끝나도 수레꾼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마을 담벼락에 놓아둔 화분과 식물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책임 있는 관리, 가드너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까지 배운 셈이다.

심는 과정



1. 담 아래 놓인 나무상자 화분에 사루비아 모종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다.



2. 포트에 있는 흙을 뿌리개로 일 정도로 털어낸다.



3. 사루비아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었다.



4. 옮겨 심은 후 잘 활착할 수 있도록 흙을 덮어주고 정리했다.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 버려졌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고 재배나 꽃을 가꾸는 것으로,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밤에 활동을 하거나 얼굴에 가면을 쓴 채 활동한다. 최근 인터넷 동호인들 중심으로 이러한 비밀 조직(?)들이 활발한 가드닝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만든 허브 에센스

피부가 봄을 만나다

글·사진 소순복 기자



계절의 변화는 여인의 옷차림에서부터 온다고 한다. 그러나 옷보다 앞서 계절을 감지하는 것은 바로 피부. 지난 여름 땀과 선크림으로 범벅이 되었던 얼굴이 가을이 되니 짝 짝 갈라지고 당기면서 윤기가 사라진다. 보습제가 필요한 계절이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곳곳에서 천연 화장품 DIY 강의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윤정식(생활의 향기 대표) 회장은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화학적 재료에 의한 부작용이 적고, 자신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천연 재료라 할지라도 피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처음 사용하는 재료는 귀 뒤나 팔목 안쪽 피부 등에 테스트 해 본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연 화장품은 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3개월이 넘으면 상할 우려도 있으므로 100ml 정도로 소량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 용기에 옮겨 담을 때 용기와 도구를 깨끗이 소독한 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브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천연 화장품 만드는 실습 강의실은 허브향으로 가득하다. 지난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가 진행한 강의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허브향은 강의 분위기도 밝고 집중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강의가 시작되면 스트레스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레몬이나 자몽 향을 시향지에 떨어뜨려 맡게 한다. 그러면 허브향기에 의해 유머가 살아나며 같은 향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한결 분위기가 좋아진다.”

허브 강의 활동을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향기 전

도사라고도 불리는 그는 “각종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이 식물의 에너지인 허브 향기를 직접 맡음으로써 잠시나마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강의를 하는 즐거움”이라고 밝힌다.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

많은 이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Herba’에 어원을 두고 있다.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꽃과 열매, 잎, 줄기, 뿌리’ 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을 허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허브는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원산지가 주로 유럽, 지중해 연안, 서남아시아 등인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타임, 레몬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민간요법에 사용해 왔던 쑥, 익모초, 배초향, 그리고 양념에 빼놓을 수 없는 마늘, 파, 고추, 생강 등이 모두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자생하면서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는 꿀풀과, 국화과, 화본과, 장미과, 운향과, 미나리과 등 약 2,500여종 이상이 있으며 약용, 미용, 관상, 요리, 염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허브의 꽃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Volatile Oil)는 에센셜 오일라고 부른다. 에센셜 오일은 화장품은 물론 살균, 소독, 탈취작용이 뛰어나 집안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In



천연 에센스 만들기

■ 재료 특성 및 효능

솔루빌라이저 오일 ▶ 피마지 오일에서 추출한 올레의 지방산으로 물과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할 때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유화제, 가용화제이다.

호호바 오일 ▶ 사람의 관목인 호호바씨를 압착하여 만들 오일. 피부를 매끈하고 유연하게 하며 보호효과가 있다.

로즈힙 오일 ▶ 로즈힙은 야생 장미의 열매로 식물성 오일로는 유일하게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다. 로즈힙 오일은 피부의 미백과 탄력에 효과적인 비타민 A와, C, 그리고 피부재생의 핵심인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E ▶ 피부노화를 방지한다.

알로에베라젤 ▶ 알로에에서 추출한 천연젤로 피부 흡수력이 뛰어나 재생,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하루론산 ▶ 천연보습제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동시에 수분을 흡수해 피부에 수분을 조절해 준다.

로즈워터 ▶ 로즈에서 추출한 허브물로 건성이거나 민감한 피부, 노화된 피부에 좋다.

글리세린 ▶ 뛰어난 수분 결합 능력으로 피부 보습 및 보온효과에 도움을 준다.

Step by Step



천연에센스 재료들



호호바, 로즈힙오일과 에센셜오일을 넣어 섞는다



알로에베라젤을 넣는다



로즈워터를 계량한다.



하루론산을 넣는다



글리세린을 계량한다



잘 혼합한다



용기에 담는다

생활 속 아로마 활용



옷장, 신발장 속: 세이지, 타임,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등으로 작은 포푸리를 만들어 옷장이나 신발 속에 넣어두면 향긋한 향과 뽕뽕송송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포푸리에는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레몬, 티트리, 유칼립투스 등의 오일 3방울 정도를 떨어뜨린다.

▶ **발 매트:** 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발 매트에는 살균력이 뛰어난 티트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레몬, 타임 등의 오일을 떨어뜨려 둔다. 또는 스프레이를 만들어 수시로 뿌려준다.

▶ **에어컨, 온풍기:**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레몬, 티트리, 파인, 페퍼민트 등의 에센셜 오일을 천이나 리본에 5방울 정도 떨어뜨려 매달아 놓으면 실내 청정효과를 볼 수 있다.



▶ **냉장고 냄새 탈취:** 냉장고 안을 청소할 때 로즈마리, 오렌지 스윗, 페퍼민트 등을 3방울 정도 떨어뜨려 깨끗이 닦아준다. 솔잎이나 신갈나무(참나무) 잎을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탈취 효과가 있다.

▶ **청소기:** 향균을 위한 오일 티트리, 유칼립투스, 라벤더, 레몬, 오렌지, 버가못, 시더우드, 주니퍼베리 등을 먼저 주머니에 1~2방울 직접 떨어뜨리거나, 화장실에 2~3방울 정도 떨어뜨려 청소기 필터 부근에 넣으면 향균 효과를 볼 수 있다.



▶ **주방 개수대:** 설거지 마지막이나 설거지 후 개수대에 남아있는 냄새 제거나 살균효과를 위해 레몬 한 방울 또는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좋다.

▶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을 열 때마다 불쾌한 냄새가 난다. 오렌지, 레몬, 로즈마리, 페퍼민트 등의 에센셜 오일 2~3방울을 통 안에 떨어뜨려 놓거나 페퍼민트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려주면 살균, 탈취효과가 있다.



▶ **세탁할 때:** 세제와 함께 유칼립투스 3~5방울을 넣어 세탁하면 때가 더 잘 지워진다. 마지막 헹굼물에는 라벤더나 로즈마리, 제라늄, 유칼립투스 등의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려 준다.

▶ **다림질 할 때:** 분무기에 물을 넣고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려 다림질한다. 또한 에탄올 1스푼(5ml)에 에센셜 오일 10방울 정도 희석해 나머지 물과 함께 다림용 분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옷의 살균, 소독뿐만 아니라 은은한 향으로 기분까지 업 된다. 이 때 옷에 얼룩이 남을 수 있는 시트러스나 우드계열의 오일은 피한다.



▶ **애완동물:**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용 스프레이(분무기)를 만들어 실내에 분무하거나 애완동물들의 피부염 예방을 위해 털에 뿌려주면 좋다. (만드는 방법: 에탄올 20ml, 티트리 5방울, 라벤더 5방울, 그레이프후트 10방울, 정제수 80ml로 블렌딩.) 캐리 어오일 10ml, 티트리 2방울, 레몬 2방울, 라벤더 2방울로 블렌딩하여 면봉에 한 방울 떨어뜨려 귀속이나 피부염증 부위를 닦아줘도 좋다.

* 개에게 추천하는 정유: 팔마로사, 레몬그라스, 제라늄, 일랑일랑 * 고양이에게 추천하는 정유: 팔마로사(상무향) 1방울 (90여 가지)



▶ **방충 종이 스틱:**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에 방충 종이 스틱을 만들어 화분에 끼워놓으면, 방충 효과 뿐 아니라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가 식물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만드는 방법:** 나무 젓가락을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 두꺼운 종이를 앞뒤로 잘라 나무 젓가락 사이에 끼워 넣는다.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레몬그라스 등의 에센셜 오일을 1주일에 1~2번 두꺼운 종이에 2~3방울 떨어뜨린다.

▶ **방충용 스프레이:** 정제수 50ml에 라벤더 오일 5방울 또는 캐모마일 3방울을 넣고 잘 흔들어 식물에 수시로 뿌려주면 벌레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캐모마일 자른나 바질을 끓여서 식물에 뿌려줘도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

TIP> 실내용 스프레이(분무기) 만들기



실내 공기 청정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탈취효과를 줄 수 있다.
준비물: 분무기용 빈용기(100ml), 일반 알콜(에탄올), 에센셜 오일, 물(정제수)

만드는 방법: ①분무기 빈용기에 에탄올 40ml를 넣는다.
②쓰다 남은 오일들을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향을 선택하여 에센셜 오일 60방울을 떨어뜨려 에탄올과 잘 희석시킨다.
③정제수 60ml를 채우고 완전히 희석시킨 후 사용한다.
실내, 침대, 이불, 커튼, 소파 등에 뿌려주어 사용한다.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레몬, 버가못, 로즈마리, 라벤더, 파인

소 여물통을 활용한

테이블 록가든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오래 전 시골집에 놀러 가거나 볼 수 있었던 헛간의 소 여물통.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담아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한 록가든을 만들어 보자.



재료



STEP by STEP



관리 TIP 관수 주의, 정기적 통풍 필요



다육식물의 특성상 잦은 관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유리를 덮은 밀폐형이므로 관수에 유의해야 한다. 밀폐형은 수분 증산작용이 용기 내에 순환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개방되어 있는 환경보다는 수분 증발량이 적다. 그러므로 관수의 횟수가 공기에 노출된 식물보다 적어야 하며, 다육식물의 하엽(맨 아래쪽 잎)이 약간 쭈그러들면 관수한다. 보조광을 설치해도 옷자라면 광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창가 쪽으로 이동시켜 주고, 옷자람이 없으면 설치된 자리에 두어도 무관하다. 다육식물은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병해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리 뚜껑을 열어서 정기적으로 통풍시켜 준다. 비료는 고체비료를 사용하고, 용기 겉 표지에 적혀 있는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준다.

물은 많을수록 좋다?

건조보다 더 심각한 피해



글·사진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교수 차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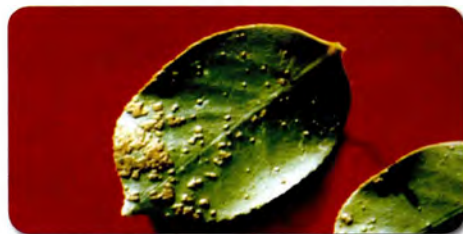
“왜 우리 집에서는 화분이 이렇게 안 될까 요?”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물도 잘 주고 비료도 잘 주고, 햇빛도 좋은 위치에 잘 모셔서 키우는 데도 화분의 식물들이 잘 죽는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아 화분의 식물들 가꾸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하다 죽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는 물어보나 마나 일 것이다. 실제로 화분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분을 고생시키거나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몬다.

화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또는 애정이 지나쳐서,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이다.



▲ 사진1. 과습에 의하여 기부부터 누렇게 변하는 증상.



▲ 사진4. 동백나무의 잎에 생긴 과습돌기의 후기 증상(표면에 코르크화 됨).

물은 빛, 온도와 더불어서 식물체의 건강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서, 식물체가 요구하는 환경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8월이 바람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8월이 ‘물’이다. 생물에게 있어서 물은 그만큼 중요하다.

세포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곧, 물이 없으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식물체가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의 재료로도 물은 필수적이며, 식물체 안에서의 물질 이동도 물을 때어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식물체는 증산작용을 통하여 몸 속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여분의 열을 증기의 형태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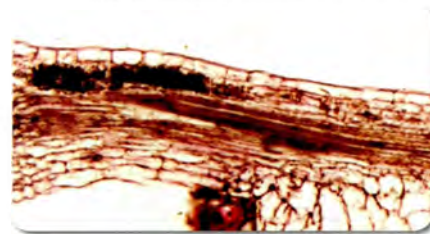
따라서 뿌리가 흡수한 물의 양이 증산활동으로 소실된 양만을 보충하기에도 충분치 못하며, 만약 이러한 수분 수급의 불균형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식물체의 잎은 며칠 안에 시들거나 또는 가장자리부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공급하여도 뿌리가 질식하여 고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식물체가 죽을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화분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무관심 또는 게으름 때문에 화분의 흙이 바짝 마르도록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 어떤 때는 물을 너무 흠뻑 주어 뿌리가 온통 물에 잠겨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식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과습은 식물을 단기간 내에 죽게도 한다.

토양의 수분교란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식물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분교란을 받은 식물들은 잘 자랄 수 없다. 이러한 토양의 수분 과다 또는 부족에 견디어 나가는 힘, 즉 내건성 또는 내습성은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생육단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 사진2. 매우 작은 돌기로부터 시작하는 장미 잎의 과습돌기.



▲ 사진5. 동백나무 잎 과습돌기의 현미경 사진.

그런데 흙 속에 물이 모자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 속에 물이 너무 많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분부족보다는 수분과다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며,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나치게 물이 많은 흙에서 자라는 식물체는 활력을 잃고 자주 시들며, 잎의 색이 옅은 녹색 내지 누런 녹색으로 변한다. 특히 수분 함량이 많은 한해살이(일년생) 식물은 생육기에 흙이 심하게 과습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2~3일 안에 시들거나 죽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습하면 질소, 칼슘, 마그네슘 등은 평상시보다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생육 후기보다는 생육 초기에 흡수율이 더 많이 줄어든다.

과습은 엽록소의 함량이 떨어뜨리는데, 과습 조건이 오래 지속되면 식물은 아래 잎부터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여 위쪽으로 진전되며 (사진 1), 심하면 과습 장해의 최종 증상인 시들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에는 질소결핍 증상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물을 너무 많이 준 식물체는 아랫부분의 잎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잎이 누렇게 되며, 식물체의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진다. 때로는 잎이나 줄기에 갈색이나 검정색의 젖은 얼룩이 나타나거나, 또, 과습한 상태를 좋아하는 병원성 미생물들이 감염함에 따라서 뿌리와 아랫줄기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썩기도 한다.

노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라면 수분스트레스가 토양의 종류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내에서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의 수분 부족 또는 과다 스트레스는 화분에 주는 물의 양과 빈도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 식물의 수분스트레스는 적당량의 물을 제때에 주면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다. 📖



▲ 사진3. 케일의 잎에 생긴 과습돌기.



▲ 사진6. 포도의 열과.

토양 과습이 만드는 특이한 증상 과습돌기와 열매터짐

토양이 과습했을 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과습돌기’라고 불리는 ‘이데마(edema)’인데, 이것은 잎의 뒷면이나 줄기에 작은 돌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사진 2~4) 이 돌기는 세포가 분열하고 신장하여 작은 덩어리를 이룬 것으로서 잎의 껍질을 뚫고 튀어나온다(사진 5). 처음에는 모래알보다도 작은 흰녹색의 돌기 또는 흑과 같이 보이지만 점점 자라서 사마귀처럼 커지기도 한다. 이 돌기 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는 녹색 듯한 색을 보이며, 표면도 코르크조각과 같이 보인다.

과습돌기는 토양 과습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특히 잘 나타난다. 따라서 물을 조금씩 주거나 토양에 마사토를 섞어 배수가 잘되게 하는 등 과습을 피하고, 빛이 잘 들도록 하며,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과습돌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증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열매가 익을 무렵에 토양 습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토양 습도가 올라가면 열매가 터지는 ‘열과’가 나타난다. 열과는 토마토나 포도(사진 6) 같이 과피가 두껍지 않으며 과육이 잘 발달하는 열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토양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란 토마토는 나중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물을 많이 준다든지 하여 흙이 과습하게 되면 열매껍질에 금이 가며 갈라진다. 포도에서도 토양이 과습하면 과도하게 흡수된 수분이 열매 쪽으로 모여 과육의 부피는 커지는 반면 과피는 많이 자라지 않아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 잘 나타난다.

종족 보존을 위한 씨앗의 노하우

종자 트래블(Travel)

글·사진 정승환 기자 참고자료_ BBC, Biology

여름이 지나버린 지 오래고, 가을의 꽃들도 지고 있다. 아쉬움을 달래고, 이듬해 개화를 위해 가드너라면 채종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드너의 이런 작업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식물 자체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진화되어 있다. 오히려 식물이 하는 위대한 일에 미개한 인간이 방해하는 모습 일 수도 있다.



▲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민들레 홀씨. 종자에 달린 솜털은 낙하산 역할을 해 바람에 따라 이동케 한다.

수십만 마리의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뚫는 그 확률성이나, 사과꽃의 화분관 속 정자가 난자 한 개와 두 개의 극핵과 만나 종복수정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과연 차이가 클까? 지구상의 최상위 고등동물이면서 가장 잘 진화된 인간을, 식물이 진화적 관점에서 이길 수 없다고 대부분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유동적인 인간이 고정되어 생활하는 종이었다면 아마도 인간 멸종이라는 무서운 결과도 상상할 법하다. 단연컨대 식물은 지구상에 가장 고등의 종족 보존 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식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자 번식을 위해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종자의 번식법을 살펴보면 번식의 유형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낙하산 종자

민들레는 전역에 퍼진 잡초다. 자생 민들레 존재는 거의 희박해졌고, 서양민들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서양민들레는 그 번식력이 대단하다. 특히 봄에 하얀색 솜털은 종자를 바람을 이용해 멀리 퍼트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포플러나무의 씨앗도 바람에 수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도록 솜털이 있다. 바람을 이용하는 식물에는 새장달맞이꽃도 유명하다. 이 식물의 하얀 심장형 꽃잎과 튀어나온 수술이 예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식물의 종자를 퍼

트리기 위한 방법은 특이하다. 식물이 죽기 전 줄기에서 여러개의 가시가 위로 솟으면서 둥근 새장형의 띠 모습을 만든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어느 지점에 떨어진 씨앗은 환경조건이 맞으면 발아가 시작되고, 또 다른 새장 달맞이꽃을 피운다.



▲ 새장달맞이꽃

물, 종자 분산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

물은 종자의 발아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종자를 확산하기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열대지방의 코코넛 열매는 바다에서 수십킬로미터를 떠다니면서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코코넛 종자의 배와 하얀 과육(배젖)은 두껍고 물에 뜨는 섬유성 겉껍질로 둘러싸였고, 단단하고 딱딱한 내과피 안에 들어 있다. 또한 열대의 해변등나무도 같은 방식으로 강과 바다를 떠다니며 자신이 종자를 갖고 섬을 찾고 있다. 연꽃이 지고 맺힌 연저(종자)도 같은 방식으로 떠다니는 식물 중 하나다. 자체적인 힘으로 종자를 퍼트리는 것들도 있다. 콩, 봉선화, 제라늄, 유채 등이 해당된다. 특

히 히말라야 봉선화는 열매를 품은 물이 외부 압력보다 높아 폭발하는 방법으로 씨앗을 멀게는 4~5m 정도를 날려버린다. 열개압출 산포법이라고 하는데, 빙설식물도 떨어지는 빗물 등에 의해 씨앗이 용수철처럼 튀어 날아가는 특이한 종자분산법을 쓴다. 지형 환경을 이용하는 독특한 식물들이다.

비행기와 유사한 장치로 종자 분산

종자의 비행장치는 그 신비한 모습에 과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행장치로 단풍나무를 들 수 있다. 단풍은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날개 모양을 갖고 있어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있다. 물리학적 설명



물에 부유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는 코코넛 종자와 같은 방식으로 분산하는 연저(연꽃의 종자)



비행기 날개를 닮은 단풍나무 종자(위)와 비행접시 같은 원반형에 털이 있는 무궁화 종자



각각 월악산과 지리산에 존재하는 산양과 반달곰. 두 동물 다 식물의 열매를 먹으면서 종자를 퍼트리는 매개체이다. photo_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사람과 동물은 종자번식의 매개체

애기우엉의 열매는 날카롭게 생긴 갈고리가 있다. 이 갈고리가 지나다니는 사람의 옷, 동물의 털에 붙어서 이동하게 된다. 도꼬마리도 종자에 갈고리가 있어 털에 쉽게 붙어 이동된다. 인간과 동물을 이용하는 종자에는 악마의 발톱이라고 부르는 바늘덩굴이 있다. 바늘덩굴의 열매는 날카롭고 못같은 가시가 있어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 상처를 준다. 상처를 준 종자를 떼어내어 멀리 버리면, 결국 종자를 퍼트리는 데 일조를 한 셈이다. 국립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는 재미있는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복원기술원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월악산에 서식하는 산양을 대상으로 겨울철 배설물을 수거·조사했다. 그 결과 배설물 속에 종자가 포함되었는데 봄철에 그 배설물 속 햇개나무 종자가 발아했다고 한다. 특히 산양의 배설물 속에서 수집한 햇개나무 종자와, 일반 햇개나무 종자를 파종해 발아를 실험한 결과 배설물 속 종자가 약 40배 정도 발아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동물의 위액이 종자를 소독해주고, 종자휴면을 깬 후 배설물의 여러 영양분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배설물을 확인해보면 조릿대, 신갈나무 열매, 빛나무, 산뽕나무 열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동물을 매개체로 쓰는 종자의 종족 번식 능력은 대단하다.

이외에도 무수한 식물의 종자 번식 방법이 있다. 한낱 인간에 의한 관리로 살아가는 정원 속 식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종의 번식을 위한 진화력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가드너로서 식물을 대하는 자세가 겸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h**

세계적 트렌드, 오가닉 가드닝

후클컬처(Hugelkultur)를 들어보셨나요?

글 정승환 기자 / 도움말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 사진·자료출처 www.permies.com



통나무, 나뭇가지, 낙엽 등의 산림소재를 이용한 후클컬처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로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다.



한국보다도 유럽이 오가닉(Organic) 가드닝의 욕구가 높다. 농업의 유기농법을 가드닝에 적용한다는 것이지만, 단순히 농약 안치고 잘 발효된 퇴비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자연순환농법이 전해 내려오는 유럽은 퍼마컬처(permaculture)를 지향하는 가드너들이 늘고 있다.

퍼마컬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연순환농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특히 오스트리아 북부의 셉 홀퍼(sepp Holzer)라는 이름의 농사꾼은 일반 관행농법이 아닌 토양의 관점에서 자연에 가까운 농사법을 한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추운 산 위에 다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기술이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유럽에는 유독 유기농 가드닝 전문가들이 많다. 그 전문가중의 한 사람인 파울 위튼(paul wheaton)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것이 후클컬처이다.

후클컬처(hugelkultur)는 독일어지만 해석하자면 'mound culture', 즉 흙더미재배라고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동유럽권, 독일 등에서 사용하던 텃밭농사기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흙을 이용한 재배는 아니다. 흙속에 커다란 통나무나 나뭇가지 등을 깔아 준다. 독일 국토 면적의 3/10이 산림으로 이뤄진 국가인 만큼 산림목재를 베드로 사용하는 재배법이 내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물 흡수력, 스펀지와 같은 베드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소재들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특히 배수가 중요한 작물 또는 식물에게 일반적 점질토나 일반 배양토를 쓰기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썩은 나무는 스펀지 효과를 일으켜, 긴 시간 동안 토양의 물을 흡수하는 강점이 있다. 이것은 생육되는 식물의 뿌리에게 통기성과 영양물질 등을 제공한다. 몇 년이 지나면 영양분이 풍부해져 활발한 토양생명을 가진 베드를 얻을 수 있다.

또 나무가 썩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미세한 공극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경운이 된다. 처음 몇 년간은 나무가 썩으면서 퇴비화 되어 토양 온도가 높아지고, 충분한 영양과 물을 유지한다. 큰 장점이야 말로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어 사막에서도 물 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가든이라고 한다. 파울씨는 휴가 기간 동안 물을 줘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정원이라고 소개한다.



◀ 미국의 집앞 정원에 설치한 베드. 호박의 생육 상태가 좋다.

나무에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썩은 나무는 근처 산에서 구할 수 있고, 간혹 목공소에서 버리는 썩은 나무를 내놓을 때가 있다. 이런 재료들을 구해 바닥에 깔아두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면 완성이다. 썩은 나무는 장기적인 탄소와 습기를 보유하는 물의 저장창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삼나무 같은 경우 소재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 이유는 삼나무는 천연 살충제, 제초제, 항균제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완전히 썩는데 오래 걸린다. 또 이런 성분들이 토양의 유익한 세균 등의 발생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토마토, 멜론 등의 혼합종, 야생나뭇나무, 블랙체리, 호두나무 등도 독성을 갖고 있어 베드 소재로 좋지 않다. 특히 야생나뭇나무는 독성 매우 많다고 한다. 사용하기 좋은 나무로는 오리나무, 사과나무, 미루나무, 포플러나무 등이다. 나무가 썩어 분해되면서 탄소가 높아지고, 질소를 토양에 가둬두고 작물에게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썩은 나무가 이런 작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후클컬처 베드

여러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후클컬처의 장점은 토양의 깊이가 얇은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를 넣고, 흙을 쌓는 것만으로 빠르고도 쉬운 베드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나무들과 흙을 퍼 나르기 위한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하지만 베드를 만드는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특히 잔디가 많은 유럽인들은 텃밭을 만들고 싶은 가드너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후클컬처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잔디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흙을 쌓는 방법부터, 땅을 약간 파고 잔디를 넣고 흙을 덮는 방법 등 다양하다. 또한 이중층으로 잔디를 넣는 방법도 있다.

베드의 적당한 높이

이 베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텃밭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연덕형이나 선호한다. 보통 베드 높이를 3~6인치(약8~15cm) 정도로 한다. 어느 정도의 높이가 적당한지도 후클컬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일 수 있다. 파울씨는 이 높이에 대해 여름의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이라면 6~7피트 정도인 약 1.8m~2.1m정도로 권장하고 있다. 나무가 썩으면 부피뿐 아니라 높이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낮은 높이도 가능하다. 15~60cm 높이의 베드는 약 3주정도 습기를 잡아둘 수 있지만 권장할 만한 높이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민들이 낮은 높이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드 폭은 1.5m가 적당한데, 높이를 3피트(약 91cm)로 맞춘다면 폭은 4피트(약1.2m)보다는 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마도 넓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토양에 적용 가능할까?

후클컬처를 검색해보면 외국의 텃밭 가드너들의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농법을 서로 공유하고, 포럼까지 열고 있는 동호회 등이 있다.

물론 국내에 이것이 적용가능한지는 미지수다.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재진 박사는 "나무가 썩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된다. 이때 여러 유기화합물들이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이 작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실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양비료과 이덕배 박사는 이 베드의 토양성에 대한 실험은 어느 기관에서 해본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이런 베드의 장점을 꼽는다면 우선 배수력과, 나무가 썩으면서 그런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 즉 지렁이나 땅강아지 등의 다양한 생물들을 정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렁이의 분변토로 인해 토양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 시간이 갈수록 토양의 질이 작물재배를 위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호에는 작은 정원에 적용하고 있는 정원베드형 후클컬처를 소개해 보겠다.[in](#)



▲ 산림이 많은 유럽권에서는 이런 형태의 후클컬처가 성행하고 있다.

후클컬처 베드 사용시 예상 흐름도



지중해풍으로 즐기는 색다른 아귀의 맛 마르세이유 아귀찜

글·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아귀는 왜 콩나물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매운 소스 속에만 있어야 할까. 매콤한 아귀찜도 좋지만 블랙올리브와 화이트 와인으로 맛을 낸 아귀 파스타 소스를 개발해 보았다. 실제 프랑스 마르세이유 항구 근처의 유명 요리집에서는 화이트 와인에 푹 삶은 아귀 요리가 있다고 한다. 색다른 요리법으로 아귀의 맛을 즐겨보자.



재료

아귀 한 마리 : 생물을 구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렴한 냉동아귀를 구입한다. 시장 등에서 1만원 아래로 살 수 있고, 요즘은 더 저렴하게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토마토 : 잘 익은 붉은 토마토, 달달한 맛을 좋아하면 방울토마토도 괜찮다. 토마토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파스타용 토마토 소스를 준비한다.

고수 : 비린내를 없애고 담백한 향을 내기 위해 준비했다. 고수의 향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허브가루를 넣거나 아예 빼도 무방하다.

아보카도 : 수입된 아보카도는 날익은 상태에서 판매되는데 구입 후 껍질이 약간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익힌 후에 사용한다.

그밖에 올리브오일, 화이트와인, 블랙올리브, 마늘, 양념류



1. 아귀를 깨끗이 씻은 후 후추와 소금 등으로 밑간을 해 놓는다.

2. 마늘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아보카도를 잘라 놓는다. 아보카도 자르는 요령은 안의 씨가 닿을 정도로 결부분을 동그렇게 칼로 분리한 다음 손으로 사과를 가르듯이 천천히 가른다. 그러면 씨가 어느 한 쪽에 박힌 채 깨끗하게 분리된다. 자른 아보카도 껍질을 벗기고 먹음직한 크기로 잘라 놓는다.



3.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마늘을 먹음직하게 갈색 빛이 돌때까지 충분히 볶는다.

4. 마늘이 다 익었으면 준비한 아귀를 넣어 익힌다. 아귀에 있는 수분이 뜨거운 올리브유와 만나 될 수 있으니 바로 뚜껑을 덮는다. 약한 불 위에서 서서히 익힌 후 불을 끄고 뚜껑 채로 방망이 돌려준다. 팬의 올리브유가 너무 뜨거워서 자칫 잘못하면 아귀 살이 팬 표면에 눌러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화이트와인을 아귀살이 잠길 때 까지 부어준 뒤 약한 불에서 졸인다. 화이트와인은 비싼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마시다 남은 와인을 사용해도 괜찮다. 와인의 양 역시 취향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면 된다.



6. 토마토, 혹은 방울 토마토를 으갠 뒤 넣어 졸여준다. 토마토 양이 부족하면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다. 이때 약한 불에서 은근히 졸여야 하며 졸일 때 잘 저어주는 게 좋다. 오래가 노와 같은 해산물전용 향신료가 있다면 이때 함께 뿌려 준다. 매운맛을 좋아하면 레드페퍼를 적당히 뿌려준다.

7. 블랙올리브의 고소한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잘게 잘라 뿌려 둔다. 올리브의 고소한 맛이 토마토 육수에 스며들 때 까지 서서히 졸인다.



8. 아귀와 화이트와인, 마늘, 블랙올리브의 향과 맛이 어우러져 고소한 맛이 나올 때 준비한 아보카도를 넣는다. 아보카도의 등장으로 고소한 맛에 부드러운 맛이 추가된다.

9. 요리 마지막에 이국적인 향이 더해지도록 고수 잎파리를 엮는다. 와인과 함께 먹을 수 있다.

* 아보카도가 남아서 혼제언어와 곁들여 사이드 메뉴로 준비해봤다. 별다른 요리법이 필요없이 양파, 케이퍼, 마요네즈 등과 함께 곁들이면 훌륭한 사이드메뉴 겸 술안주가 된다. [in](#)





안완식
농학박사 씨드림
상임대표



김광덕
전 상명대학교
산림대학 경림교수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경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중식
서울여대 명예교수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아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국화꽃, 햇빛 좋고 통풍 잘되는 곳에 두어야 오래 관상

Q 얼마 전 꽃시장에서 국화꽃을 사왔습니다. 집안에 가을 분위기를 내보려고 사왔는데, 얼마 못가서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너무 일찍 시들어버려서 속상해요. 가을은 아직 남아있는데 말이예요.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화원의 국화는 매일 물주기를 하고 비료를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볼 수가 있는데 가정에 있는 화분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꽃을 좀 더 오래 보려면 줄기 아래 붙어 있는 잎을 3~4개 정도 따주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주세요. 작은 화분은 매일, 큰 화분은 2~3일 간격으로 물주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꽃에 수돗물을 주면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 있어 꽃이 큰 대국은 꽃색염병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수돗물은 솥에 담갔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꽂이용으로 사온 국화를 오래 관상하려면 화병에 들어갈 줄기의 잎을 훑어 주세요. 자른 부위는 끓는 물에 2~3초 정도 담가주세요. 줄기 4~5cm 정도 깊이로 담갔다가 꺼내어 꽃으면 물오름이 좋고, 자른 부위는 소독이 되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4일마다 줄기 아래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주면 꽃이 질 때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병의 물은 산소가 많아야 하는데, 표백제로 쓰는 락스를 2~3방울 떨어뜨려 주거나 사이타를 반컵 정도 넣어주어도 꽃을 좀 더 오래 관상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스파티필름의 뿌리썩음병은 예방이 최선

Q 스파티필름의 뿌리가 썩어가면서 줄기도 무르고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A 스파티필름에서 가장 피해가 큰 병이 뿌리썩음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상은 뿌리가 썩어가면서 잎이 황변되고 점차 줄기가 검게 변합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료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병균이 감염되지 않은 강한 묘목을 심거나 좋은 상토에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화분이 토양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에 올려 관리하세요.



고구마는 감자와는 달라 높은 온도에서 보관

Q 시골 사시는 어머님이 고구마를 보내왔어요. 식구는 얼마 없는데, 한 박스씩이나 보내주셔서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이웃과 나눠먹기로 했는데, 속을 보니 검게 썩었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A 초겨울이면 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고구마는 수확 시 상처를 통해 병균이 침입하게 됩니다. 고구마는 뿌리 작물로 생각과 같이 고온성 식물입니다. 수확 시 저장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감자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면 상처가 빨리 썩게 됩니다. 낮은 곳에 보관하면 상처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빨리 감염되어 알코올 냄새가 나며 검게 변하면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큐어링 처리를 하는데 방법은 온도 32℃, 습도 85%를 유지하여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온도를 높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수확 당시의 날씨가 추우면 기간을 늘려주고, 따뜻하면 기간을 짧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13~15℃에 저장해야 베타아밀라아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당도가 높아지고 저장기간이 길어집니다.



꽃치자나무 잎이 노래지는 것은 과습이 원인

Q 꽃치자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고 꽃봉오리도 떨어지면서 꽃이 피질 않습니다.

A 꽃치자 원명 가데니아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토양 수분이 60~70%까지 포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잎이 노래지는 이유는 제일 먼저 화분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분에 물받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자주 비어주고, 가급적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약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싹을 씻은 물을 주고, 혹시 잎 뒷면에 진딧물이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치자는 꽃이 피면 예쁘고 향도 좋은데 진딧물이 잘 달라붙어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요. 흙 표면이 보송보송하게 마른 뒤 물을 주면 5~10초 뒤에 준 물이 화분 아래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아래로 너무 빨리 흘러나오거나 시간이 지나 오래 있다 나오면 상토가 진흙이거나 다져져서 그런 것이니 빨리 화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나무를 짚으로 감싸주면 동해 및 해충 방제 효과

Q 겨울이 다가오니 집 마당에 있는 고욤나무, 감나무 동해 피해가 걱정됩니다. 동해 피해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봄이 되면 감나무가 죽었다고 문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선 감나무 줄기를 짚이나 부직포 등으로 나무껍질이 지기 전에 미리 감싸주세요. 그러면 감나무에 있던 벌레들이 활동하기 위해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 그곳에 숨게 됩니다. 이른 봄 그것을 걷어서 태어주면 해충 방제 효과는 물론 줄기의 동해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밑에 왕겨나 짚을 깔아주거나 흙으로 피라미드처럼 30cm 정도 북돋아주면 동해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나무는 특히 동해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해는 나무 근처에 배수가 잘 안되어 토양이 얼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뿌리의 호흡이 곤란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이나 배수로를 미리 깊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추뿌리혹병 한 번 발생된 토양에는 배추과 작물 심지 않는 게 원칙

Q 텃밭에 심어 놓은 배추가 자주 시들어가고 있어요. 뽑아보니 혹같은 것이 뿌리에 생겼는데 왜 그러지요.

A 배추뿌리혹병입니다. 배추 무 순무 알타리 등 주로 배추과 작물에만 발생합니다. 병든 포기는 잘 자라지 못하고 오그라들며 잎이 누렇게 변색되면서 아래 잎부터 늙어지게 됩니다.

한낮에는 잎이 시들어 있다가 아침저녁으로는 다시 회복되는 증상이 1~2주 정도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포기전체가 악취를 내며 썩어 죽게 됩니다. 포기를 뽑아보면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여러 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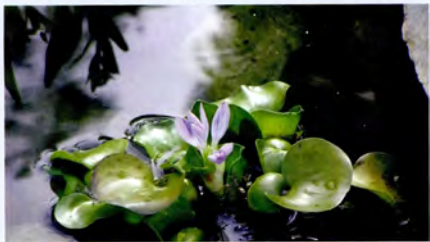
한번 걸리면 병균이 토양에 10년 이상 잔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발생한 토양에는 배추과 작물을 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양 수분이 많고 지온과 기온이 18~25도 정도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배추 심기 전 후론사이드나 흑안나 분제를 토양에 뿌리고 심으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항 속 부레옥잠은 물과 공기 정화 능력 탁월

Q 금붕어를 키우는 어항에 부레옥잠을 넣으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데커레이션 효과 때문에 주변에서 부레옥잠을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부레옥잠은 어떤 식물인가요. 또 키우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A 물고기들이 숨을 쉬거나 배설물이 부패할 때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많이 소모됩니다. 부레옥잠은 유기물이 썩어 악취가 나고 암모니아 가스와 같은 것들을 없애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레옥잠을 물에 띄어 놓으면 물이 정화되어 금붕어가 잘 살게 되고, 맑은 공기 정화를 해주어 실내가 맑아지게 됩니다. 어항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3개 정도 어항에 넣어두면 좋을 듯 합니다. 부레옥잠은 온도가 높아야 하므로 베란다보다는 거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클라멘의 시들음병은 과습과 찬물이 원인

Q 시클라멘 잎이 황색으로 변하고 상부의 꽃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시클라멘 시들음병입니다. 시클라멘은 저온성 구근 식물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어 약한 햇빛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병든 구근을 칼로 잘라보면 도관부가 막혀 물오름이 나빠져 줄기가 시들면서 잎이 화변되다가 결국 말라죽게 되는 병입니다. 화분이 과습하거나 갑작스럽게 찬물을 주게 되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병징이 발생하면 줄기를 뽑아 없애거나 빈레이트라는 농약을 1000배 희석하여 관주해 주시면 됩니다.



상추밭 지렁이는 좋은 징후, 징그러워하지 마세요

Q 텃밭 상자에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렁이가 있어 징그러워요. 지렁이가 있는 토양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어야 하나요. 없애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지렁이가 있다는 것은 상추를 심어놓은 상자의 토양이 유기물이 아주 풍부한 살아있는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지렁이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데, 소화를 시키면서 흙에 있는 양분을 잘게 분해시켜 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용한 동물입니다. 지렁이가 만들어 놓은 구멍은 작물의 뿌리를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물 빠짐을 좋게 합니다. 조금기를 뺀 음식물 찌꺼기나 채소 과일 껍질 등을 일반 흙과 섞어 상자에 올려주면 지렁이가 분해시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맛있는 상추를 오래도록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징그러울지 모르나 유익한 동물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킨답서스 곰팡이는 물이나 우유로 닦아주면 효과

Q 스킨답서스 잎에 검고 작은 반점들이 생겼어요.

A 이것은 벌레가 아니고 일종의 점균류의 곰팡이입니다. 검은 점을 손톱으로 살짝 누르면 툭하고 깨지면서 하얀 액이 나올 것입니다. 곰팡이인 점균이 포자낭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마도 부식된 토양이나 퇴비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균이 잎에 붙어서 양분을 흡수하며 생명을 유지하므로 형균에 물이나 우유를 묻혀 닦아주시면 됩니다.



국립수목원 16일까지 생활정원 전시회 개최 ▶

국립수목원(원장 신준환)에서는 이달 16일까지 '생활정원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개최한 '제2회 생활정원 공모전'에서 선정된 8개 설계안으로, 선정된 팀의 작가가 5일 동안 직접 정원을 만든 것이다.

전시회는 수목원 녹화기념탈 앞 광장에서 진행되며, 전시 작품은 자투리형에 '가을사람'과 '알알이 여우는 소리', 일반형에 '꽃물꽃물 보자기정원', '중식원, 정원의 시작', 're-fresh Garden', 'Cottage Garden of Korea', 'Water saving Garden', 'Frame of Autumn Tree' 등 총 8작품이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일상에서 누구나 식물 가꾸고 돌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생활정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 031-540-1034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고 지난날 20일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184일간 쉬지 않고 달려온 정원박람회는 6개월(184일)간 개최한 최초의 박람회로 기록된다. 최종 집계된 관람객수는 440만3890명으로 목표인 400만명에 대비해 110%를 달성했고, 164억원의 흑자를 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한국 최초로 장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 주체의 국제행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인 체육대회 족구부문, 본지 우리꽃 우승

신은 겨울 팀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줬다. 지난날 11일 조경인들의 최대 축제 '제23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 주최로 개최된 조경인 체육대회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최대의 축제마당으로 매년 그 열기가 뜨겁다. 이번 대회 역시 총 50개사에서 520여 명이 참석해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우승은 겨울팀에게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여름팀은 겨울팀과 공동 1위였으나 가위바위보에서 패배, 우승 문턱에서 손전을 마셔야 했다. 이번 대회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족구대회에서는 본지의 우리꽃과 두산큐백으로 구성된 연합팀이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대회는 ▲봄팀(13개사) ▲여름팀(12개사) ▲가을팀(13개사) ▲겨울팀(12개사)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족구, 400m 이어달리기, 자네발 달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Garden In News

수원시 도시생태농업토론회 개최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농업(UP)으로 Green 수원 만들기'를 위한 '수원 도시생태농업 토론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토론회는 도시농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수원 도시생태농업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2013년의 도시생태농업 추진사례를 발표하는 1부에서는 2013 도시농부학교,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 운영, 생활속 상자텃밭 보급 등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쇼핑몰에서 즐기는 가을 산책길 경방 타임스퀘어 실내 정원 설치, 이달 16일까지 운영

'단풍 보러 산에 간다? 나는 쇼핑몰로 간다.' 서울 영등포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대포 값) 내에 실내 정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을 낚아채고 있다. 타임스퀘어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제 단풍과 나무, 열매 등 식물을 이용한 초대형 실내 가든을 조성하는 '타임스퀘어, 가을을 거닐다'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명 플로럴 디자이너인 김진홍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266.5㎡(약 80평) 규모에 대형 테마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가을 시즌을 주제로 한 초대형 친환경 프로젝트로 지난 봄 '타임스퀘어 스프링 가든'이 이어 두 번째. 설치 기간 중 주말에는 인기 캘리그래피 작가인 '다자란 소년(본명 신동욱)'과 '늘봄(본명 고은영)'을 초청, 고객이 원하는 10자 이내의 문구를 직접 손글씨로 써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타임스퀘어의 가을정원은 이달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 타임스퀘어 (www.timesquare.co.kr)



경기도농업기술원 아이폰용 '텃밭농사 영농일지' 앱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시농부를 위한 아이폰용 '텃밭농사 영농일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영농일지 앱은 작업일지 등록, 사진 입력 등의 기능을 갖추고 36개 작물의 52주간 농사일정에 따른 알람기능도 제공한다. 도농업기술원은 또 '텃밭농사 365 오색채소 달력'도 개발해 전문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뒤 내년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1월 적골라비, 2월 시금치, 3월 파프리카, 4월 양배추, 5월 방울토마토, 6월 가지, 7월 오이, 8월 참외, 9월 브로콜리, 10월 단호박, 11월 당근, 12월 양파 등 계절별 채소를 빨간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 초록색으로 구분해 주요영양소 정보를 제공한다. 오색채소 달력에는 텃밭 가꾸기 기초정보와 채소 음식 레시피 등도 실렸다.

임재욱 경기도원장은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사용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달력은 전문업체에 디자인 기술 이전 후 내년부터 달력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도시농업 체험수기 공모

과천시가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농업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응모기간은 11월 5일까지이며 도시농업을 통해 얻은 느낌이나 어려움, 보람과 미담, 공동체 활동 사례, 에피소드 등 다양한 경험을 A4용지 2~3매 분량의 텍스트파일이나 1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ppt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과천도시농업포럼 <http://cafe.daum.net/gccfarmer>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제공
- 정기 구독자에게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10만원상당)증정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한국의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기간] 2013. 11. 1 (금) ~ 2013. 12. 31 (화)

가든 인 라이브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시지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든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Gardenin November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든지 편히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연시의 주인공께는 가든도구 상품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고 싶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애드지 연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 (10만원 상당)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시지요.)
문의 031-712-7009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특별한 무료 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애드지 연시를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독기간	2013년	월로부터 1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벽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_____
주소 _____
직업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남, 여) _____
주소 _____
직업 _____
전화번호 _____ 나이 _____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11월호

발행처: 벽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광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인원식 농학 박사

우철아 경기조경전문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l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ylove@hanmail.net

강은지 toxbeam@naver.com

객원기자: 김지태 jt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편집: 디자이너 이용훈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봄을 알리는
최고의 아름다움
가을식재....

추식구근

주문을 받습니다.

추식구근은 다양한 품종이 한정 된 수량이 수입되므로
서둘러 주문하는 것이 더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목	식재시기	화기(월)	화색	키(cm)	식재수/㎡	식재깊이(cm)	가격	가격	가격
							100구	50구	20구
튤립	9-11월	4-5월	다양함	30-50	30-50	10	7만원	5만원	3만원
수선	9-11월	4-5월	흰,노랑	20-40	25-50	10	12만원	7만원	3만원
무스카리	9-11월	4-5월	보라	15	100	5	4만원	3만5천원	2만원



구입 문의 가든조아 031.634.7990 www.gardenjoa.com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

테르메덴 50% 할인
월간 가든인 109p를
확인하세요!

